

지구지역액티비즘센터  
2012 특별초청 가나다토론회 ①

# 가부장체제와 자본주의 비판

성,생산,노동을 중심으로

2012년 10월 05일 금요일  
오후 1시 30분\_6시 제로원디자인센터



# 지구지역행동액티비즘센터 2012 특별초청 가나다토론회

## 가부장체제와 자본주의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NGA의 센터인 지구지역액티비즘센터는 운동과 운동, 이론과 이론, 운동과 이론이 만나고 이어지는 장을 만들기 위해 매 해 가나다토론회를 진행해왔습니다

2012년 가나다토론회는 자본주의와 가부장체제에 대한 비판과 적녹보라해러다임을 주제로 각각 비판과 넘어서기라는 이름으로 진행됩니다. 두 차례에 걸쳐 자본주의와 가부장체제에 대한 비판과 대안을 생각해 온 분들을 초청하여 지금까지의 논의를 점검하고 이 체제를 넘어서기 위한 행동철학의 일부로 적녹보라 패러다임을 생각해 볼 것입니다

## 첫 번째 만남

### 가부장체제와 자본주의 비판 : 성, 생산, 노동을 중심으로

자본주의와 가부장체제를 비판하는 일은 지금까지의 생산, 노동, 성을 다시 보는 일이고 이는 곧 무엇을 생산이라 하고 무엇을 노동이라 할 것 인지를 다시 묻는 일입니다. 자본주의와 가부장체제가 무엇을 생산과 노동과 성이라고 해왔는지를 비판하면서 대안적인 생산, 성, 노동은 어떤 모습인지 논의하는 장을 만들어보고자 합니다

# 차례

정성진 자본주의와 가사노동 : 마르크스 가치론의 쟁점

심광현 역사지리유물론과 페미니즘의 비환원주의적 통섭의 전망

고정갑희 가부장체제적 생산과 노동 비판 :

자본주의적 생산과 노동 다시보기

# 자본주의와 가사노동: 마르크스 가치론의 쟁점

이 글은 2012년 10월 5일 개최된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글로벌액티비즘센터 주최 2012특별초청가나다토론회 '자본주의와 가부장제 비판: 성, 생산, 노동을 중심으로' 발표문이며, 아직 미완성 연구노트이므로 인용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진 (경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머리말

1970년대 서구 마르크스주의와 여성해방운동 진영에서 전개된 가사노동 (domestic labor) 논쟁은 마르크스 경제학 비판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또 반자본주의 혁명운동 전략의 모색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논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쟁의 의의와 교훈은 제대로 음미되지 못한 것 같다. 가사노동 논쟁은 서구에서도 한국에서도 '잊혀진 논쟁'으로 되었고, 간혹 언급되는 경우에도 1980년대 사회구성체 논쟁처럼 이제는 이론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현재성이 거의 없는 에피소드 정도로 치부되었다. 실제로 한국의 마르크스주의 정치경제학계에서 가사노동 논쟁은 공황론 논쟁, 국가론 논쟁, 제국주의론 논쟁 등과 같은 1970년대 다른 서구 마르크스주의 논쟁과는 달리 1980년대 말 '마르크스주의의 봄' 시기에도 거의 주목받지 못했다. 한국에서 가사노동 논쟁은 오히려 뒤늦게 1990년대 말 IMF 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반격의 정세에서 검토되기 시작했지만(이미경, 1999; 권현정, 2002), 같은 시기 득세했던 포스트모더니즘, 포스트구조주의 흐름에 밀려, 큰 성과가 없었다. 이 글에서 필자는 2007-2009년 글로벌 경제위기와 마르크스 르네상스라는 새로운 정세에서 가사노동 논쟁을 회고하고 마르크스적 가사노동 분석의 발전을 위해 몇 가지 쟁점을 검토할 것이다. 최근 서구에서는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에서 1970년대 가사노동 논쟁을 재검토하면서 마르크스주의와 페미니즘의 연대를 모색하는 이론적 작업들이 다시 활성화되고 있다. Fine(1992), Chattopadhyay(1999), Gimenez(2004; 2005), Orr(2010), Brown(2012) 등은 그 대표적인 것들로서, 이 글은 이들의 논의에 크게 의존했다. 이는 최근 한국 진보좌파 진영 일각에서 새롭게 시도되고 있는 마르크스주의와 페미니즘, 생태주의의 연합 정치 논의 (고정갑희, 2009)에 개입할 수 있는 지점을 고민하기 위한 것이다.

## 2. 1970년대 가사노동 논쟁의 재검토

### 1) 가사노동과 생산/비생산노동

1970년대 초 가사노동 논쟁의 주요 쟁점은 다음 두 가지였다. (1)가사노동은 생산적인가, 비생산적인가? (2)가사노동

과 자본주의 사회 재생산 및 저항운동과의 관계. 이와 관련하여 다음 입장들이 논쟁의 두 축을 이루었다. 첫 번째 입장은 가사노동의 생산물은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를 갖는 노동력상품이라고 간주하고, 따라서 가사노동은 잉여가치 생산노동이며, 가사노동을 수행하는 여성은 착취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로부터 성모순은 분명한 물질적 근거를 갖게 되었으며 가정주부는 계급투쟁에서 공장노동자와 동등한 전략적 위치를 갖게 되었다. 두 번째 입장은 가사노동은 가정 구성원의 직접적 소비를 위한 사용가치만을 생산하며 따라서 노동자계급의 전반적 유지와 갱신에 기여하지만 그 자체로는 생산적이지도 비생산적이지도 않다고 본다.

가사노동 논쟁은 보통 1969년 발표된 벤스톤의 논문, “여성해방의 정치경제학” 과 함께 시작되었다고 이야기된다 (Benston, 1969). 이 논문에서 벤스톤은 여성의 노동은 남성의 노동과 매우 다르기 때문에 여성은 하나의 독립적 계급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정에서 여성 노동은 그것이 교환가치가 아니라 사용가치만을 생산한다는 점에서 전자본주의적이라는 것이다. 또 집안일(housework)과 육아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이지만, 이들이 상품 생산에 기초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본주의에서는 무가치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벤스톤은 가사노동이 사회적으로 중요하지만 자본주의에서는 무가치하기 때문에, 이를 공적 영역으로 끌어 내어 공적 영역에서 수행되는 다른 노동과 같은 방식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벤스톤은 “그와 같은 가사노동이 공적 부문으로 이동하면 여성에 대한 차별의 물질 기초는 사라질 것” 이라고 주장했다(Benston, 1969: 22).

이탈리아 여성 자율주의자 달라 코스타는 이 주장을 더 밀고 나갔는데, 그녀에 따르면 가사노동은 자본주의 생산 영역 밖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은 직접적 소비를 위한 사용가치를 생산할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에 본질적인 상품인 노동력을 생산한다. 달라 코스타는 가정주부는 잉여가치를 생산한다는 의미에서 생산노동자이며, 가사노동은 “은폐된 형태의 생산노동” (Dalla Costa, 1972: 34)이라고 주장했다. 달라 코스타에 따르면 가사노동은 생산적인데, 이는 가사노동이 남성 노동자를 가사노동 책임에서 해방시켜 자본가들의 이익을 위한 공적 영역에서의 노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달라 코스타는 가족은 공황기에 공적 영역에서 주기적으로 축출되는 노동자들을 수용 보호함으로써 반체제 운동을 억제하고 이를 통해 자본주의 체제가 원활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세콤베는 가사노동은 시장에서 교환되지 않고 잉여가치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자본주의적 의미에서 생산적이지는 않다고 하면서도, 가사노동이 생산하는 노동력이 가치를 갖는다는 사실은 가사노동이 가치를 생산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게 한다고 주장했다. 즉 가사노동은 자본주의적 의미에서는 비생산적이지만 사회적 사용가치는 생산한다는 것이다(Seccombe, 1974). 가디너도 가사노동은 가치를 창조하지는 않지만 잉여가치를 이전시키는 데 기여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가사노동은 마르크스가 채택한 가치 정의에 따르면 가치를 창조하지 않는다. 하지만 가사노동은 필요노동, 혹은 노동력의 가치를 노동자계급의 실제 생존 수준으로 억누름으로써 잉여가치 생산에 기여한다” (Gardiner, 1975: 58). 해리슨도 가사노동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만약 그것을 시장에서 구입했다라면 비용이 더 들었을 것이므로, 그만큼 노동자 임금을 억누르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Harrison, 1973).

한편 포겔은 가사노동은 자본주의에 고유한 필요노동의 두 번째 은폐된 구성요소라고 강조했다. 마르크스에서 필요노동이 “필요노동의 사회적 구성요소” 라면, 노동력 상품의 담지자와 노동자계급 전체의 일상적 및 장기적 재생산에 기여하는 비임금노동은 “필요노동의 가내적 구성요소 혹은 가사노동” 이라는 것이다. 포겔은 가사노동이 가

치를 생산하지 않지만 필요노동의 사회적 구성요소와 마찬가지로 잉여가치 영유와 자본주의 사회재생산에 필수불가결하다고 주장했다 (Vogel, 2000). 임금은 노동자들이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하지만, 가사노동이라는 추가적 노동이 수행되어야 한다. 즉 식품이라는 상품은 준비되어야 하고, 의복도 손질되고 세탁되어야 한다. 아이들도 돌봐줘야 할 뿐 아니라 성인 노동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기능을 가르쳐 줘야 한다. 아프거나 장애자가 된 노동자 역시 돌봐줘야 한다. 즉 필요노동은 마르크스주의 정치경제학 문헌에서 통상적으로 묘사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한 개념이다. 필요노동은 가치를 갖는 부분과 가치를 갖지 않는 부분으로 구성된다 (Vogel, 2000). 가사노동은 가치를 갖지 않지만 잉여가치 전유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만약 어느 노동자가 자신의 에너지의 대부분을 가사노동에 바친다면 그는 생산을 위해서는 자신의 에너지의 적은 부분만을 지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반대로 가사노동이 감축된다면, 추가 노동력이 노동시장에 투입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최근 냉동식품, 전자렌지, 빨래방, 파출부, 유치원, 학원 등이 보급되면서 가사노동의 축소에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졌다.

벤스톤, 달라 코스타, 세콤베, 가디너, 해리슨 등의 주장에서 공통적인 핵심은 무급 가사노동의 착취가 자본의 잉여가치 증대에 봉사한다는 명제이다. 즉 자본가의 이윤은 자본가가 남편에게 가정주부의 더 많은 가사노동에 의해 보상될 수 있는 낮은 임금을 그녀의 남편에게 지불하는 방식으로 가정주부의 무급 가사노동을 자본가가 전유함으로써 증대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자본주의에서 여성 억압의 원인을 무급 가사노동에서 찾고, 기존의 노동자운동과 독립적으로 가부장제를 전복하기 위한 여성해방운동을 자율적으로 전개하고, 당면과제로는 가사노동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런 주장들은 많은 이론적 난점들을 갖고 있다는 것이 논쟁 과정에서 드러났다. 우선 파인은 이들의 ‘무급 가사노동 착취→자본의 잉여가치 증대’ 명제는 마르크스의 가치론의 용어를 빌어 주장되긴 했지만, 이 명제는 다음 (1)식과 같은 스라파(P. Sraffa)의 가격방정식으로 요약될 수 있으며, 마르크스의 가치론을 조금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Fine, 1992: 173-4).

$$pA(1+r)+w_1l_1+w_2l_2=p \text{ ----- (1)}$$

(1)식에서 p는 가격, A는 투입재 매트릭스 즉 기술, r은 이윤율, w<sub>1</sub>, w<sub>2</sub>는 각각 남성과 여성의 소비수준, l<sub>1</sub> l<sub>2</sub>는 각각 자본주의 생산과 가사 생산을 위한 노동 투입량을 가리킨다. 이 식에서 가격 p와 기술 A 및 남성의 소비수준과 노동 투입량, 즉 w<sub>1</sub>과 l<sub>1</sub>이 불변이라면, 이윤율 r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여성의 소비수준 w<sub>2</sub>가 여성의 노동 투입량 l<sub>2</sub>가 증가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가사노동을 통해 가사 영역에서 자본주의로 잉여노동이 이전된다는 해리슨 등의 주장은 구체적 유용노동인 가사노동 시간을 상품의 가치 생산과 관련된 추상적 인간노동 시간과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될 수 있는 것으로 전제했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어야 한다 (Molyneux, 1979: 9). 가사노동은 무상으로 노동력 재생산에 필요한 노동을 제공함으로써 노동력 가치를 억누른다는 해리슨의 주장도 납득하기 힘들다. 몰리뉴가 지적하듯이 가사노동은 노동력의 가치를 구성하는 수많은 요인들(역사적 도덕적 요소를 포함하여) 중의 하나일 뿐이며, “노동자들이 순수 가사노동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한 것을 시장에서 구입하는 것보다 비용이 덜 드는지를 보

여출 수 있는 경험적 증거” 역시 확실하지 않으며, 생활필수품을 시장에서 구입하지 않고 집에서 직접 만들면 노동력의 가치가 떨어지는 지도 알 수 없다(Molyneux, 1979, 10-11).

마르크스의 문헌 자체에 의거할 경우 가사노동은 생산노동으로 간주하기 어렵다. 마르크스는 1861-63년 <자본론> 초고, 즉 <잉여가치학설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여기에서 생산노동자는 매우 분명하게도 자본가를 위해서 자신의 임금에 포함된 생존수단의 가치를 모두 생산할 뿐 아니라 그것을 자본가에게 ‘이윤과 함께’ 재생산해 주는 노동자이다. 자본을 생산하는 노동만이 생산노동이다. ... 이것은 무엇이 비생산노동인지도 보여준다. 비생산노동은 자본과 교환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 즉 임금 혹은 이윤과 직접 교환되는 노동이다. ... 이러한 정의는 따라서 노동의 물질 특징 (그 생산물의 성격이나 구체적 노동으로서 노동의 특성)으로부터가 아니라 그 노동이 실현되는 특정한 사회적 형태, 생산의 사회적 관계로부터 도출되는 것이다 (Marx, 1975: 152-3. 강조는 마르크스).

마르크스는 <자본론> 1권의 초고인 <직접적 생산과정의 제결과>에서도 다음과 같이 말했다:

자본주의 생산의 직접적 목적과 진정한 결과물이 잉여가치이므로, 노동이 생산적일 수 있는 것은, 또 노동력의 지출자가 생산노동자일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그것이 혹은 그가 직접적으로 잉여가치를 창출하는 경우뿐이다. 다시 말해서 생산노동자만이 자본의 가치증식을 위한 생산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소비된다. (Marx, 1976: 1038. 강조는 마르크스).

또 마르크스의 상품의 가치 규정에서 핵심적인 것은 “그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시간”이라는 규정이다.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시간이란 주어진 사회의 정상적인 생산조건과 그 사회에서 지배적인 평균적 노동속련도와 노동강도 하에서 어떤 사용가치를 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노동시간이다. ... 이와 같이 어떤 물건의 가치량을 결정하는 것은 오직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량, 즉 그것의 생산에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시간이다. (마르크스, 1991: 48-49).

가사노동의 경우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시간”이라는 규정이 강제되지 않으므로, 마르크스적 의미에서 가치를 형성하는 노동이 될 수 없다. 파인이 지적하듯이, 가사노동의 경우 “노동과 여가 간의, 또 생산과 소비 간의 어떠한 엄밀한 구별도 존재하지 않는다. 생산성을 증대시키고 비용을 절감하려는 어떤 내재적 압력도 존재하지 않으며, 생산과정에 대한 어떠한 직접적인 외적 통제도 존재하지 않는다” (Fine, 1992: 178, 180). 이 점에서 힘멜바이트와 모훈이 가사노동은 “가치법칙에 종속되지 않기 때문에 가치를 창조하지 않는다. ... 가사노동이 가치는 생산하지만 잉여는 생산하지 않는다는 세콰메의 주장과 가사노동이 잉여는 생산하지만 가치는 생산하지 않는다는 해리슨의 주장은 모두 잘못된 전제, 즉 가사노동과 임금노동을 동일 단위로 정량화하려는 시도에 근거하고 있다” (Himmelweit



and Mohun, 1977: 27, 28)라고 말한 것은 옳다.

마르크스의 관점에서는 가사노동은 사용가치를 생산하는 무급 노동으로서 비생산노동인 것이 분명하다. 가사노동은 비생산노동이므로 노동력 상품의 가치 규정에도 포함될 수 없다. 실제로 마르크스는 <자본론> 1권에서 가사노동에 종사하는 여성을 명확하게 비생산노동자로 분류했다. 즉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적 의미에서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적은 지를 보여 주기 위해, 당시 영국 총인구에서 은행가, 지주, 범죄자, 극빈자, 공무원, 목사, 변호사, 군인은 물론 “늙었거나 어려서 노동능력이 없는 자들, 모든 ‘비생산적인’ 여성들, 청소년, 아동들”(마르크스, 1991: 565. 강조는 마르크스)도 빼다. 즉 가사노동은 자본주의 체제의 재생산과 영속을 위해 필수불가결하지만 자본가를 위해 잉여가치를 생산하는 노동이 아니므로 비생산노동자로 간주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마르크스의 생산/비생산 노동 개념을 분석적 개념이지 규범적 개념이 아님을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산노동자가 되는 것은 결코 행운이 아니며 차라리 불운인 것이다”(마르크스, 1991: 640-1. 강조는 필자)라는 역설적 언급을 통해 마르크스가 강조하려 했던 것은 오로지 이윤 추구에 의해 추동되는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이다. 마르크스에 따르면 자본주의에서는 자본을 생산하는 노동만이 생산노동이기 때문에, “자유로운 생산자들의 연합”인 탈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모든 인간노동은 비생산노동이 될 것이다. 최근 던은 자본주의에서 가족, 국가와 같은 자본주의에 필수 불가결한 비자본주의 제도를 설명하기 위해 마르크스의 가치론을 확장할 필요가 있으며, 마르크스 가치론의 초역사적 확장을 시도하고 이로부터 가사노동은 가치를 생산하며 노동력 가치에 기여한다고 주장했다(Dunn, 2011: 498)

"자본주의 형태의 특수성을 교조적으로 고집하는 것은 불완전하게 상품화되는 세계를 연구할 수 없게 한다. ... 자본주의에서 가치의 특수성을 덜 원칙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Dunn, 2011: 491, 494)

노동력의 가치를 임금수준으로부터 거꾸로 도출하는 통상적인 마르크스주의적 접근은 그 방법론에서 마르크스적 이라기보다 스미드적이며 이론적으로 순환논법이고 (가사노동과 같은-인용자) 결정적인 노동 형태를 현실 세계경제 분석에서 자의적으로 제외한다. ... 이것은 스미드로 후퇴하는 것인데, 왜냐하면 그것의 재생산에 요구되는 총노동량이 아니라 지배 노동량, 즉 노동이 구매할 수 있는 소비재에 따라 가치를 정의하기 때문이다. ... 무급 노동(가사노동-인용자)은 임금 노동에 유사한 사용가치를 제공할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 유용한 노동을 소비재에 체화된 것에 추가할 수 있으며 논리적으로 노동력 가치에 추가될 수 있어야만 한다. ... 노동력은 임금노동과 무급 노동의 변화하는 조합을 통해 재생산된다. 그 중 일부만을 가치생산적이라고 간주하는 것은 자의적이며 일관되지 않다. (Dunn, 2011: 498, 500-1).

하지만 필자는 던처럼 초역사적인 가치 개념, 즉 투하 노동만으로 가치가 형성된다고 간주하는 것은 자본주의에서만 보편화되는 추상노동과 가치형태를 핵심으로 하는 마르크스 가치론과 다르며, 리카도의 투하노동가치론으로 역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던처럼 가사노동이라는 비자본주의적 노동을 설명하기 위해 마르크스 가치론을 무리하게 확장하기보다는 가사노동과 같은 비상품 비자본주의 영역을 설명하는 데는 마르크스 가치론의 설명력이 없다고 보는 것, 다른 한편 가사노동의 시장화 사회화가 진전되고 가사노동에서 해방된 여성의 임금노동 참여가 증가할 경우 마르크스 가치론의 적용 범위가 확대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물론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적 의미에서 생산노동이란 개념 외에 그 자체 생산노동이라는 개념도 제시한 적이 있다. 즉 마르크스는 1859년 <경제학비판>에서 사용가치를 생산하는 구체적 유용노동이 “유용한 생산활동”이며 따라서 “진정한 노동”(reale Arbeit)이라고 말했다(마르크스, 1988: 40). 즉 구체적 유용노동으로 새로운 사용가치를 생산하는 과정이야말로 진정한 노동과정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생산노동을 초역사적 규범적으로 정의할 경우 가사노동도 생산노동으로 분류할 수 있지만, 이는 <자본론>에서 정식화된 자본주의에 고유한 생산/비생산노동의 구별 방식과는 다르다는 점이 지적되어야 한다.

## 2) 가사노동과 노동력의 가치

마르크스에 따르면 노동력상품을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노동시간은 노동력의 소유자의 생활필수품을 생산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시간이다. <자본론> 1권 6장 ‘노동력의 구매와 판매’에서 마르크스는 노동력의 가치를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정의했다.

노동력의 가치는 다른 모든 상품의 가치와 마찬가지로 이 특수한 상품의 생산과 재생산에 필요한 노동시간에 의해 규정된다. 노동력이 가치인 한, 노동력 그 자체는 거기에 대상화되어 있는 일정한 양의 사회적 평균노동을 표현할 뿐이다. 노동력은 오직 살아있는 개인의 능력으로서만 존재한다. 이 개인의 생존이 주어졌다면, 노동력의 생산이란 이 개인 자신의 재생산, 즉 그의 생활의 유지다. 살아 있는 개인은 자기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일정한 양의 생활수단을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노동력의 생산에 필요한 노동시간은 결국 이 생활수단의 생산에 필요한 노동시간으로 귀착된다. 다시 말하면 노동력의 가치는 노동력 소유자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생활수단의 가치다. ... 노동력의 소유자가 오늘의 노동을 끝마쳤다면, 그는 내일에도 오늘과 동일한 힘과 건강을 가지고 동일한 과정을 반복할 수 있어야만 한다. 따라서 생활수단의 총량은 노동하는 개인을 정상적인 생활상태로 유지하는 데 충분해야 한다. 음식물 의복 난방 주택 등과 같은 그의 자연적 욕구는 한 나라의 기후나 기타 자연적 특성에 따라 다르다. 이른바 필요 욕망의 범위나 그 충족의 방식도 그 자체가 하나의 역사적 산물이며, 따라서 대체로 한 나라의 문화수준에 따라 결정되는데, 특히 자유로운 노동자계급이 어떠한 조건 하에서 또 어떠한 관습과 생활상 요구를 가지고 형성되었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므로 다른 상품들의 경우와는 달리 노동력의 가치규정에는 역사적 및 정신적 요소가 포함된다. ... 노동력의 소유자는 죽음을 면치 못한다. ... 소모와 사망의 결과 시장에서 빠져나가는 노동력은 적어도 같은 수의 새로운 노동력에 의해 끊임없이 보충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노동력의 생산에 필요한 생활수단의 총량에는 이러한 보충인원(다시 말하면 노동자의 자녀들)의 생활수단이 포함되며, 그리하여 이 독특한 상품소유자 종족은 상품시장에서 영구화되는 것이다. 일반적인 인간의 천성을 변화시켜 일정한 노동부문에서 기능과 숙련을 익혀 발달한 특수한 노동력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훈련 또는 교육이 필요한데, 거기에는 또 얼마간의 상품등가물이 소요된다. 이 비용은 노동력이 어느 정도로 복잡한 과정을 거쳐 발휘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이 교육비는 보통의 노동력에 대해서는 매우 소액에 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노동력의 생산을 위해 지출되는 가치 속에 들어간다. 이와 같이 노동력의 가치는 일정한 양의 생활수단의 가치로 분해된다. 그러므로 노동력의 가치는 이 생활수단의 가치(즉 이 생활수단의 생산

에 필요한 노동시간)에 따라 변동한다. ... 노동력의 가치는 노동자의 재생산 [즉 노동자계급의 지속적인 존재]에 필요한 상품의 가치를 포함한다. (마르크스, 1991: 215-7, 337)

위 인용문에서 보듯이 마르크스는 노동력의 가치를 노동력 소유자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생활수단의 가치”, “상품의 가치”에 의해 결정된다고 말했다. 또 마르크스에 따르면 “생활수단의 가치”는 그것의 생산에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시간에 의해 결정된다. 그런데 가족을 유지하기 위해 가정에서 생산되는 것들은 상품 형태를 취하지 않는 사용가치들이며, 이들을 생산하는 가사노동은 여성이 수행하던 남성이 수행하던 사회적으로 규정되는 평균 노동, 즉 추상노동이 아니라 구체적 노동이다. 즉 이들은 일상적 소비를 위한 사용가치의 생산으로 이루어진 생존 노동이다. 이 때문에 가사노동은 마르크스가 말한 “진정한 노동”이라 할지라도 노동력 상품의 가치 규정에는 정의상 포함되지 않는다. 유용 대상을 생산하는 특정량의 노동시간이 그 대상을 상품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다. 마르크스는 1857-8년 <정치경제학비판요강>에서도 다음과 같이 말했다:

밀은 그것이 노예에 의해 경작되었든, 농노에 의해 경작되었든, 아니면 자유로운 노동자에 의해서 경작되었든 동일한 사용가치를 갖는다. 밀이 하늘에서 떨어진다고 해서 자신의 사용가치를 잃는 것은 아닐 것이다, “사용가치”는 “교환가치의 담지자”가 되어야만 “상품으로 전환”될 수 있다 (마르크스, 2000: III-189).

마르크스에 따르면 노동력 상품 생산의 경우에도, 오직 “교환가치의 담지자”로서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시간에 의해 생산된 사용가치만이 노동력 상품의 가치에 포함될 수 있다. 이것은 자본주의가 생산과 인간의 재생산에 결정적 기여를 하는 자연을 취급하는 방식과 마찬가지로이다. 페미니스트들은 마르크스의 임금 결정 논의에서 성차별적 혹은 가부장제적 요소를 읽으려 하는데, 이는 현실 분석을 당위론과 혼동한 것이다.

### 3) 가사노동과 재생산노동 및 이중체계

1970년대 활발했던 가사노동 논쟁은 여성해방과 사회주의에 대한 사회주의 페미니스트들의 이중적 헌신을 확인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이내 여러 문제들이 나타났다. 처음에는 자명한 것 같았던 개념들이 애매해지기 시작했다. 예컨대 가사노동이라는 범주의 정의 자체가 동요했다. 가사노동은 단지 집안일만을 가리키는가, 혹은 보육도 포함하는가? 또한 순환논법의 오류도 나타났다. 가사노동은 흔히 여성노동과 동일시되었는데, 이는 설명하려했던 성적 분업을 전제하는 것이었다. 또 가사노동 논쟁이 거의 전적으로 무급 가사노동에만 초점을 맞춘 결과, 유급 여성 노동, 즉 여성 임금노동 (가사도우미든 혹은 시장 임금노동자든)이 소홀히 다루어졌다.

가사노동 논쟁이 진행되면서 점차 쟁점은 가사노동에서 재생산노동 개념, 혹은 사회재생산론으로 이동했다. 몰리뉴는 가사노동 논쟁이 임금노동을 생산, 가사노동을 재생산과 동일시함으로써 임금노동과 가사노동이 동시에 현재와 미래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사회재생산에 연결되어 있음을 간과했으며, 돌봄노동(care labor) 대신 가사노동 일

하는 사회관계와 의미만 분석했다고 비판했다(Molyneux, 1979: 3-4). 몰리뉴는 또 가사노동 논쟁이 생산양식이라는 추상적 수준에 머물러 있었는데, 사회구성체와 재생산이라는 더 구체적인 수준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안하고, 여성 억압은 경제적이나 물질적 요인만으로 환원될 수 없으므로 이론적 연구는 분석대상을 가사노동을 넘어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Molyneux, 1979). 나아가 “가사노동 논쟁은 가사노동을 여성 억압의 물질적 기초라고만 보았기 때문에 왜 사회재생산에서 가사노동, 특히 돌봄노동이 사라지지 않는 노동,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노동인가에 대해 온전히 이해할 수 없었다”(윤자영, 2012: 190). 가사노동 논쟁이 정작 그러한 가사노동을 수행하는 것이 왜 여성인가라는 질문에 답하지 못했다는 평가와 함께 페미니스트들은 가사노동 논쟁에서 간과되었던 측면, 즉 인간의 재생산에서 여성이 담당하는 역할에 주목하기 시작했다(권현정, 2002: 19).

1970년대 말이 되자 하트만과 같은 페미니스트들은 가사노동 논쟁이 오도되었다고 결론내렸다. 하트만은 “마르크스주의 범주들은 성맹적(sex-blind)”이라고 주장하고, “마르크스주의 분석, 특히 그 역사유물론적 방법과 페미니즘 분석 특히 가부장제를 하나의 사회역사적 구조로 인식하는 것, 양자 모두 원용해야 한다”(Hartmann, 1979)라는 이른바 “이중체계론”을 주장했다. 이중체계론의 관점에서는 자본주의와 가부장제라는 두 체계를 연결시키려는 가사노동 논쟁은 별 의미가 없게 된다(Vogel, 2007: 241). 이중체계론은 생산관계, 역사적 변화 및 자본주의 구조분석에 관한 전통적 마르크스주의의 입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했고, 여성 억압의 문제를 마르크스주의의 주요 문제들에 추가되는 문제로 인식할 수 있게 해주었다. 이중체계론은 <독일이데올로기>(1845-47)와 <가족, 사유재산 및 국가의 기원>(1884)에서 다음과 같은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언급으로 뒷받침되는 것으로 여겨졌다:

생명의 생산, 즉 노동을 통한 자기 자신의 생명의 생산과 번식을 통한 새로운 생명의 생산은 이제 이중적 관계로 나타난다. 즉 한편에서 자연적인 관계로, 다른 한편에서는 사회적 관계로 (Marx and Engels, 1976: 43).

유물론적 개념에 따르면 역사에서 결정적 요인은 최종 심급에서는 생산과 직접적 생활의 재생산이다. 이것은 다시 이중적 성격을 갖는다: 한편에서 존재수단의 생산 ... 다른 한편에서 인간 그 자체의 생산 (Engels, 1990: 131-2).

사회주의 페미니스트들은 위와 같은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언급들을 근거로 하여 이중체계론과 이에 근거한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여성운동 건설을 정당화하려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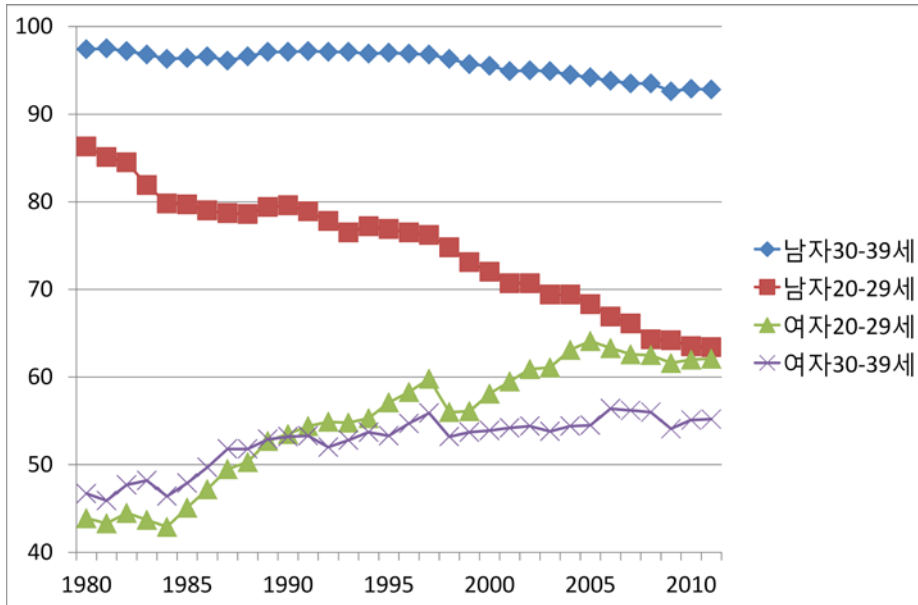
한편 포겔은 이중체계에서 두 영역 혹은 두 체계 간의 상호작용을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이론으로 “사회재생산”(social reproduction) 개념을 제안했다. 사회재생산론에 따르면 여성은 임신출산과 육아를 중심으로 한 돌봄노동의 수행 등 사회재생산에서 독특한 역할 때문에 남성과 매우 다른 지위에 놓이게 된다. 즉 재생산에서 여성의 생물학적 역할 때문에 여성은 덜 효율적인 노동자로 되어 가정에 머무르게 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폴브레는 산업사회 이후에도 가족이 미래의 노동력 재생산 비용을 사적으로 담당하게 되었지만 가족이 생산한 노동력으로부터의 혜택은 전사회가 공유하는 사회경제체제로 재편된 것이 사회재생산 위기를 심화시키는 물질 토대가 되었다고 주장한다(Folbre, 1994). 최근 사회재생산론은 페미니스트 정치경제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윤자영, 2012).

#### 4) 가사노동과 자본주의 발전

가사노동 논쟁의 또 하나의 한계는 자본에 대한 가사노동의 경제적 기여 쟁점에 집중한 나머지 다른 중요한 여성해방운동의 쟁점들이 제대로 다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이다(Molyneux, 1979: 22). 무엇보다 가사노동 논쟁의 추상성이 활동가들을 실망시켰다. 여성운동 활동가들에게 가사노동 논쟁은 현실세계와 관련 없는 개념들의 유희로 보였다. 1980년대가 되자 신자유주의의 대두와 함께 정치 풍토가 보수화되고 급진적 사회운동이 패배하면서 가사노동 논쟁에 대한 관심은 더 줄어들었다. 1980년대에도 페미니스트들의 지적 작업은 계속되었지만 이전과 비교하여 여성해방운동과의 연계는 약해졌다(Vogel, 2000). “운동이 소멸하자 학술적 페미니즘이 페미니스트 활동의 지배적 방식이 되었고, 이론화와 연구가 페미니스트 행동주의의 기능적 대안이 되었으며, 페미니스트 정치는 급진적이고 사회주의적 관심을 상실하고 개혁주의적이고 자유주의적인 경로에서, 로비 그룹에서, 전문적 코커스에서, 또 많은 제도적이고 국지화된 틀에서 계속되었다”(Gimenez, 2004: 89). 1980년대 이후 페미니스트들을 지배했던 포스트구조주의와 정체성의 정치는 문화, 이데올로기와 지역주의 정치에 경도되었으며 반자본주의 정치의 발전에 기여하지 못했으며 도리어 자본주의 발전에 봉사한 측면도 있었다. 실제로 여성의 가사노동으로부터의 해방과 유급 시장노동으로의 진출이 여성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한다며, 이를 추구했던 여성해방운동의 일부 경향은 자본의 이해와 부합되는 측면도 있었다. “US-스타일 페미니즘은 개인주의, 그리고 아내로서 혹은 어머니로서 자신의 역할과 분리하여 자기 자신의 이름의 노동자 혹은 기업인으로서 시장경제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Eisenstein, 2005: 498).

사실 “경제적 정치적 및 시민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서 여성들의 성공은 이러한 투쟁을 야기한 문제들을 생겨나게 한 물질적 조건을 변화시키지 못했다. 그것은 단지 자본주의 사회에 완전한 자격을 갖춘 구성원이 되는 것을 의미할 뿐이었다”(Gimenez, 2005: 28). 필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1970년대 가사노동 논쟁 참여자들이 추구했던 가사노동으로부터 여성의 해방, 여성의 임금노동 진출은 자본주의의 발전을 저해하기는커녕 발전의 주요 요소로 되었다는 사실이다. 한국의 경우도 <그림 1>에서 보듯이 1980년대 이후 자본주의의 급속한 발전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의 급격한 증가를 수반했다.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가 대두하면서 페미니즘 일부는 국가페미니즘으로 전화되기도 했으며 (김경희, 2009), 미국의 경우 기업 세계화의 이데올로기, 미국 제국주의의 군사적 침략을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로 봉사한 것도 이와 관련 있다. “등식은 ‘근대’ (modern)를 여성의 권리, 유대-기독교 유산, 민주주의와 등치하는 반면, ‘전통적인’ 것을 여성의 권리에 대한 가부장제적 억압, 이슬람 유산, 테러리즘과 등치하는 것이다. 예컨대 여성의 권리는 부시 행정부가 벌인 테러와의 전쟁에서 중심적 역할을 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부분적으로 탈레반으로부터 아프간 여성을 구출하는 노력으로 정당화되었다”(Eisenstein, 2005: 509).

〈그림 1〉 한국의 성별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1980-2011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www.kosis.kr

### 3. 마르크스적 가사노동 분석의 몇 가지 쟁점

#### 1) 자본주의와 가사노동의 중층결정의 총체성

포겔은 마르크스가 소비 분석에서 생산적 소비에 집중했으며 개인적 소비와 관련된 노동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포겔이 보기에 개인적 소비와 관련된 노동은 자본주의 생산에서 필수불가결한 경제활동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마르크스의 설명에는 누락되어 있다는 것이다 (Vogel, 2000). 마르크스는 생산 측면만을 강조하고 소비와 재생산은 부차적이거나 생산에 의해 규정되는 것으로 간주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페미니스트들의 비판은 근거가 없다. 〈정치경제학비판요강〉 ‘서설’에서 분명하듯이, 마르크스의 방법론에 특징적인 것은 모든 것을 생산으로 환원하는 리카도 등 고전경제학의 “생산의 경제학”과 달리, 자본주의 경제를 생산과 분배, 유통, 소비의 총체적 통일체로 파악하는 것이다. 마르크스는 생산과 재생산을 변증법적으로 연관된 하나의 전체로 보았다. 또 〈자본론〉 1권 초고의 일부인 〈직접적 생산과정의 제결과〉의 다음과 같은 서술도 마르크스가 생산과정과 노동력의 재생산과정을 통일적으로 파악했음을 보여준다:

축적 과정은 그 자체 자본주의적 생산과정의 내재적 양상이다. 그것은 임금 노동자, 즉 가용 자본량을 실현하고 증가시키는 수단의 새로운 창출을 수반한다. 그것은 이를 여성, 아동과 같은 이전에 자신에 복속되지 않았던 인구 부분들에 자신의 지배를 확장하거나, 혹은 인구의 자연 증가를 통해 증가한 노동 대중 부분을 복속시킴으로써 수행한다. 면밀히 살펴보면 자본 자체가 이러한 노동력 생산, 즉 자본이 자신의 욕구에 따라 착취하려 하는 인간 대중의 생산을 규제한다는 점이 명확해진다. (Marx, 1976: 1061. 강조는 마르크스)

이중체계론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자본주의적 관계와 가족 및 성적 관계는 독립적 자율적인 것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한다. 프라드, 레즈닉, 울프와 같은 포스트모던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들은 자본주의에서 가족제도를 봉건적 생산양식이라고 규정한다 (Fraad, Resnick and Wolff, 1994). 하지만 이들처럼 남편=봉건영주, 여성아내=농노로 유비하여 남편에 의한 아내의 잉여노동 착취가 이루어진다고 설명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 따라서 “상품생산관계에서 자본가와 노동자의 관계로 생산관계를 나누는 기존 경제학과 마르크스주의는 모두 가부장적이다” (고정갑희, 2012: 53), “자본주의를 주요 모순으로 보는 이론가들과 운동가들은 생산을 상품생산으로 제한하였고, 그렇게 함으로써 여성들의 노동과 성별/성애적 노동을 보지 못하게 되었다” (고정갑희, 2009: 37)는 비판은 마르크스의 방법에 고유한 총체성의 변증법, 추상과 구체의 변증법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자본주의에서 생산과 재생산의 구별, 나아가 자본주의와 가족(가사노동)의 경계를 이분법적으로 절대화하는 것은 마르크스의 방법과 거리가 있다. 이 점에서 힘멜바이트와 모훈의 다음과 같은 주장도 동의하기 어렵다:

가사노동의 완전한 사회화는 살아있는 개인들의 재생산의 사회화를 요구한다. ... 자본이 자신의 생산관계 하에 살아있는 개인들의 재생산을 포함시키게 되었다고 가정해 보자. 만약 그 살아있는 개인들이 상품이라면, 그들은 그 자체 사유재산일 것이며 자본주의 생산에 필수적인 ‘자유로운’ 임금노동자로 기능할 수 없을 것이다” (Himmelweit and Mohun, 1977: 25)

힘멜바이트와 모훈은 자본주의에서 재생산 노동의 시장화 사회화의 한계를 근거로 생산과 재생산 영역의 구별이 계속 존속할 것이며 이것이 자본주의 생산의 유지에도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힘멜바이트와 모훈의 주장과는 달리 가사노동 혹은 재생산 노동 일반이 시장화 사회화되기 어려운 것은 아니다. 재생산 노동 혹은 가사노동은 (1)집안일, (2)육아 등 돌봄노동, (3)임신출산수유 노동으로 구별될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가사노동을 돌봄노동과 구별하고, 가사노동은 집안일로만 한정해서 정의하고 그 10대 구성 요소를 다음과 같이 열거한다: (1)식사준비, (2)설거지, (3)세탁, (4)다림질, (5)집안청소, (6)음식물 쓰레기버리기, (7)쓰레기분리수거, (8)시장보기, (9)가정경영, (10)인터넷쇼핑. 1970년대 가사노동 논쟁은 이런 다양한 유형의 가사노동들을 무차별적으로 뭉뚱그렸다(Fine, 1992: 186). 가사노동 중 (1)집안일은 이미 20세기부터 광범위하게 사회화되었고, (2)육아 등 돌봄노동도 최근 확산되는 출퇴근 가사노동자, 상당수 복지국가에서 도입하고 있는 무상보육 등에서 보듯이 시장화 사회화가 진전되고 있다. 윤자영(2012: 191)에 따르면 가사기술의 발전에 따라 육체적 활동을 필요로 하는 집안일 시간은 감소하는 반면, 육아 등 돌봄노동 시간은 오히려 증대할 수 있으며 실제로 1인당 GDP 수준이 높은 나라일수록 전체 부모의 무급 노동시간 가운데 돌봄노동 시간의 비중이 크다. 이것이 과연 사회재생산의 위기를 필연적인 것으로 하는 지는 검토되어야 한다. 가사노동의 시장화 사회화의 곤란을 근거로 하여, 자본주의가 가족, 국가와 같은 비자본주의 제도의 존재를 필수적으로 요청하며, 이들 비자본주의 제도가 자본주의 논리에 포섭, 상품화되면서 재생산의 위기가 초래된다고 보는 것에겐데 코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전통적 가정의 성인 여성 가사노동자는 새로운 임금노동자의 최후의 거대한 잠재적 풀이었다. ... 유자녀 기혼여성이 유급 노동력에 진입하면 노동자계급 가족이 아동을 효과적으로 기를 수 있는 능력이 큰 압박을 받게 된다. ... 새로운 가족 배열은 이동성이 높은 노동에 대한 자본의 필요와도 상충된다. 왜냐하면 이 경우 부부가 그들의 일자리와 관련되어 주거지 입지에 대한 선호가 서로 다르게 되기 쉽기 때문이다” (Kotz, 2007: 169-170).

은 마르크스가 아니라 폴라니(K. Polanyi) 또는 우노코조(宇野弘藏)에 연유하는 관념으로서, 자본주의의 기본모순을 상품화되어서는 안될 노동력이 상품화되는 데서 찾는 우노코조의 기본 전제는 자유시장주의의 모순을 상품화되어서는 안될 노동력, 화폐, 자연까지 상품화되는

데서 찾는 플라니의 패러다임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자본주의의 현실 동학과 부합되지 않으며, 반자본주의 정치가 아니라 자유 시장(자본주의)에 대한 사회적 규제, 혹은 가족과 국가와 같은 공동체의 갱신에서 대안을 찾는 개혁주의 내지 공동체주의와 연결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자본주의에서 생산과 재생산의 상호 연관, 상호 작용, 중층결정 관계를 중시하면서도, 최종심에서 재생산에 대한 생산의 규정성을 인정하는 것이 마르크스 방법의 특징임이 상기되어야 한다(Gimenez, 2005). 마르크스의 방법에서는 자본주의에서 성적 불평등은 성별 생물학적 차이나 가부장제의 산물이 아니라 자본주의 생산과 재생산의 구조적 결과로 이해된다(Gimenez, 2005: 24).

## 2) 기계제 대공업의 발전과 노동력의 가치 및 가사노동의 재구성

마르크스는 <자본론> 1권에서 기계제 대공업의 발전에 따라 여성노동에 미친 두 가지 상호 연관된 영향에 주목한다. 즉 기계제 대공업의 발전에 따라 자본이 여성노동을 대거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 또 이와 연관되어 성인 남성 노동력의 가치가 전가족 구성원으로 분할되어 성인 남성 노동력의 가치가 저하한다는 사실이 그것이다. 여기에서 마르크스가 남성에 비해 여성이 연약하기 때문에 기계제 대공업이 발전한 다음에야 노동력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서술한 것을 두고서, 리브 같은 이들은 마르크스가 성별 대립의 편견을 극복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한다(Leeb, 2007: 848), 하지만 마르크스가 강조했던 것은 기계제 대공업의 발전, 즉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발전이 여성의 노동력 참가의 증대를 위한 기술적 조건을 제공하면서, 또한 동시에 기계제 대공업에 편입된 여성과 아동 노동력에 대한 착취가 차별적으로 이루어지며 이들이 사회의 최하층 가장 저급한 노동을 떠맡게 된 사실이었다. 마르크스는 <자본론> 1권 15장 ‘기계와 대공업’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노동력의 가치는 개별 성인노동자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노동시간뿐만 아니라 노동자 가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노동시간에 의해서도 규정된다. 기계는 노동자 가족의 전체 구성원들을 노동시장에 내던짐으로써 가장의 노동력의 가치를 그의 전체 가족구성원들에게로 분할한다. 그러므로 기계는 가장의 노동력의 가치를 저하시킨다. 예컨대 4명의 노동자들로 구성된 가족의 노동력을 구입하려면 종전에 가장의 노동력만을 구입할 때보다 아마도 비용이 더 들 것이다. 그러나 그 대신 4 노동일이 1 노동일을 대체하므로 4 노동일의 잉여노동이 1 노동일의 잉여노동을 초과하는 것에 비교하여 보면 그들 가족의 노동력의 가격은 하락하게 된다. 한 가족이 생활하기 위하여 이제는 4명이 자본가를 위하여 노동뿐만 아니라 잉여노동을 제공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와 같이 기계는 처음부터 자본의 가장 특징적인 착취 대상인 인간적 착취재료를 추가할 뿐만 아니라 착취의 정도도 증대시킨다”(마르크스, 1991: 504).

그런데 베네슨 같은 페미니스트들은 위의 서술을 두고 마르크스가 이른바 가족임금(family wage)을 지지했다고 비판한다. “마르크스의 주장은 임금 소득의 ‘가족 유지’ 기준에 대한 남자 노동자들의 요구를 암묵적으로 지지한다. 이 기준은 자본을 위해 노동하는 노동자계급 가족 구성원의 수를 제한함으로써 착취를 제한할 것이기 때문이다. 마르크스는 노동일의 단축이 노동자계급 ‘정치경제학’의 원리를 체현하고 있다고 언명했다. 이로부터 남자 외벌이 패턴이 마르크스의 바람직한 ‘가족 경제’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고 유추할 수 있다”(Benenson, 1984: 16). 하트



만(Hartmann, 1979)도 마르크스가 위 문장에서처럼 임금을 노동력의 세대간 재생산 비용으로 정의한 것이 노동자 운동 내에서 가족임금 이데올로기가 득세하게 된 배경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즉 가부장적 특권을 유지하려는 남성 자본가들과 남성 노동자들이 공모하여 가족임금을 도입했고, 이러한 가족임금 메커니즘을 통해 자본주의와 가부장제가 공존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노동자운동의 가족임금 전략이 가족에서 남성에 대한 여성의 경제적 의존을 강화하고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여성의 소득을 단지 가족임금을 보충하는 이차적 소득으로 보는 통념을 강화하여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저임금과 직종 분리를 정당화했으며, 나아가 가족임금은 노동시장에서 일반적으로 개별 여성과 남성이 갈등하는 조건을 창출함으로써 노동자계급 전체의 전투성을 감소시키고 비노동자를 국가가 아니라 노동자계급의 임금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견해를 영속시킴으로써 노동자계급을 분열 약화시킨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권현정, 2002: 23-25). 하지만 가족임금 전략, 혹은 가족임금 이데올로기의 기원을 위의 마르크스 문장에서 찾는 것은 부당하다. 마르크스가 노동력 가치를 노동자의 세대간 재생산, 즉 가족 생계 유지에 필요한 소비재의 가치로 정의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는 임금 결정에 대한 정책 처방이나 규범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현실에서 임금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엄밀하게 보여준 것일 뿐이다.

### 3) 자본주의 발전과 가족의 해체

가부장제는 비자본주의 제도이지만 자본주의에서는 자본주의에 의해 그 성격이 규정된다. “가족의 생계부양이 전적으로 남성의 책임이 된 것은 자본주의적 생산이 성적 분업을 새롭게 조직하면서부터였다. 게다가 이념이 아니라 현실 -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제로 사는 가족형태 - 로서 그것의 출현은 훨씬 더 늦었다. ... 그러나 이러한 남성 생계부양자 가족도 1970년대 이래 남편과 아내가 맞벌이하는 공동부양자 가족의 부활로 쇠퇴하게 되었다”(권현정, 2002: 41).

마르크스는 <자본론> 1권 15장 ‘기계와 대공업’에서 자본주의 발전에 따라 가부장제 가족의 해체를 전망했다.

그러나 자본에 의한 미성숙 노동력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 착취를 야기한 것은 친권의 남용이 아니다. 오히려 그와 반대로 자본주의적 착취방식이야말로 친권에 상응하는 경제적 토대를 제거함으로써 친권을 남용하게 만든 것이다. 그런데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종래의 가족제도의 해체가 아무리 무섭고 메스껍게 보일지라도 대공업은 가정의 영역 밖에 있는 사회적으로 조직된 생산과정에서 부인, 미성년자, 남녀 아동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가족과 양성관계의 보다 높은 형태를 위한 새로운 경제적 토대를 창조하고 있다. 기독교-게르만적 가족형태를 절대적이고 최종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고대 로마적 또는 고대 그리스적 또는 동양적 형태 □ 그런데 이 형태들은 하나의 역사적 발전 계열을 형성한다 □ 를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비합리적임은 물론이다. 또한 남녀노소의 개인들로서 집단적 노동 그룹이 형성되어 있다는 사실은, 그것의 자연발생적이고 야만적인 자본주의적 형태 (여기에서는 생산과정이 노동자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가 생산과정을 위하여 존재한다)에서는 부패와 노예상태의 원천으로 되지만, 적당한 조건 하에서는 이와 반대로 인간적인 발전의 원천으로 변하지 않을 수 없으리라는 것도 또한 명백하다 (마르크스, 1991: 617).

마르크스는 1867년 <자본론> 1권에서 당시 영국에서 여성과 아동 노동 착취를 고발한 공장감독관의 보고서가 “편견이 없고 공정” (마르크스, 1991: 5)하다고 높이 평가하고, 가정에서 여성의 노예화와 착취, 가부장제는 물론 기계제 대공업에 편입된 여성의 차별적 착취와 타락을 고발했다. 하지만 마르크스는 자본이 노동하는 여성을 타락시키고 물리적으로 파괴하면서 가족 자체를 해체시키는 작용을 하면서도, 이 과정을 통해서 고차적 형태의 가족을 사회 전체의 고차적 형태의 요소들과 함께 창출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마르크스는 자본이 여성과 노동을 가정이라는 굴레에서 밀어내어 저임금 노동자로 전환시킴으로써 구래의 가족을 해체하는 것이 “무섭고 메스꺼운” 과정이라고 묘사하면서도 여성과 아동이 조직화된 생산과정에 통합되고 집합적 노동에 참여하는 것이 가족의 “높은 형태를 위한 새로운 경제적 토대”를 창출하고 적당한 조건 하에서는 이와 반대로 인간적인 발전의 원천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보았다. 마르크스는 부르주아 가족형태는 단지 수많은 가족형태들 중의 하나일 뿐이므로 그것이 가족형태가 취할 최종적 형태라고 생각할 이유가 없다고 보았다. 마르크스는 일부 페미니스트들이 억측하듯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부정적이지 않았으며, 이는 이중적 결과를 낳는다고 보았다. “한편에서 그것은 가족 구조를 봉건제에 기초한 형태로부터 이윤과 이기적 이해관계가 주요하게 되는 부르주아적 형태로 전환시켰다. 다른 한편에서 봉건제에 기초한 가부장제 가족의 이와 같은 해체는 여성의 열등성 가정에 기초하지 않는 새로운 가족 형태의 발전을 위한 객관적 조건을 창출했다” (Brown, 2012: 97).

두나예브스카야와 샤토파디야는 이와 관련하여 마르크스의 후기 저작, <민속학노트>(1880-82)가 특히 중요하다고 보았다. 엥겔스가 <가족, 사유재산 및 국가의 기원>에서 계급갈등과 “여성의 세계사적 패배”의 단초로서 사유재산의 도입에만 초점을 맞추었다면, <민속학노트>에서 마르크스의 분석은 초기 사회에 대한 훨씬 복합적인 관점을 보여준다. 인류의 계급사회로 향한 발전을 다소 단선적으로 묘사한 엥겔스와는 달리 마르크스는 <민속학노트>에서 사유재산 제도가 발전하기 훨씬 전부터 공동체 사회 내부에서 계급적 성적 모순이 진행되고 있음에 주목했다 (Dunayevskaya, 1991; Chattopadhyay, 1999). 만년의 마르크스는 <민속학노트>에서 가족내 성별 분업을 주어진 것이 아니라 역사적 현상으로 간주했으며 원시 사회에서 모권제 사회에서 가부장제 사회로의 이행은 여성의 지위와 권리에 유해한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마르크스에게 가부장제는 정상적인 혹은 자연적인 제도가 아니라 그 이전 시대에는 알려져 있지 않은 역사적 제도였다.

두나예브스카야는 1871년 파리로문이 마르크스가 여성을 역사 주체로 재평가하게 된 중요한 계기였다고 강조한다 (Dunayevskaya, 2000). 즉 마르크스는 여성 억압의 현실을 고발하는 데 역점을 두었을 뿐만 아니라 여성을 자본주의에 대한 저항의 중요한 요소로 간주했다. 마르크스는 여성과 남성은 동등한 지위에서 새로운 진정으로 인간적인 관계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보았다. 1880년 마르크스는 ‘프랑스 노동자당 강령’에 “양성 노동자들의 동일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Marx, 1992: 377)을 추가할 것을 주장했다. 카버의 표현대로 마르크스는 19세기 페미니스트였다 (Carver, 1998).

#### 4. 맺음말

대부분의 페미니스트들은 1970년대 가사노동 논쟁을 마르크스의 부적절한 범주들을 적용하려 했던 잘못된 시도로 치부했다. 반면 마르크스주의자들 역시 대개 가사노동 논쟁을 주변적인 것으로 간주했다. 페미니스트들이 가사노동 논쟁의 추상적 이론주의적 편향에 부정적이었다면,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자본주의에서 가사노동의 의의를 설명하기 위해 마르크스의 경제학비판을 확장 발전시키려는 생각을 갖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70년대 가사노동 논쟁은 마르크스주의를 비롯한 진보진영의 이론과 실천에 중요하고 영속적인 영향을 미쳤다. 가사노동 논쟁 참여자들이 사적인 가정을 소비가 아니라 생산의 단위로 간주한 것, 마르크스주의 정치경제학의 범주들을 빌어 사적 가정에서 가족 구성원들이 수행하는 무급 집안일과 보육을 노동과정으로 묘사한 것은 향후 여성 문제의 분석의 패러다임 자체를 전환시킨 것이었다. 가사노동 논쟁은 마르크스의 경제학비판에서 거의 공백 상태였던 가사노동과 노동력 재생산의 메커니즘을 풍부하게 해명하는 데 기여했다. 무엇보다 가사노동 논쟁은 가사노동과 가족에 대한 마르크스의 개념들이 자본주의와 가부장제 비판 이론으로 체계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실제로 1970년대 가사노동 논쟁 참여자들은 당시 마르크스주의의 위기의 압박을 감지하고 창조적으로 대응했던 최초의 사람들이었다. 가사노동 논쟁은 무엇보다 마르크스 이론, 마르크스의 경제학비판 플랜의 창조적 확장의 잠재력, 즉 마르크스의 이론이 여성과 가족 문제를 포괄할 수 있을 정도로 개방적임을 입증했다. 가사노동 논쟁은 많은 모호함과 중도반당에도 불구하고 마르크스의 경제학비판의 발전을 위한 미완의 하지만 결정적인 시도였다(Vogel, 2008: 242). 가사노동 논쟁은 여성 억압이 사회 전체의 재생산에서 중심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관점은 여전히 유효하다. 오늘날 많은 여성들이 임신출산과 육아와 같은 가사노동에 결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공적 영역의 임금노동에 종사하고 있지만 가족 제도는 경제적으로는 개별 가족이 다음 세대 노동자를 양육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모두 부담한다는 점에서 또 이데올로기적으로는 가족이 자신들을 원자화되고 고립된 단위들로 간주하는 것을 조장함으로써 자본주의 체제의 유지에 봉사한다(Orr, 2010). 지난 20세기 이후 진행된 가사노동의 시장화는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의 추세적 단축을 결과시키지 못했다(Fine, 1992: 186). 1980년대 이후 또 신자유주의 시기에 노동자 실질임금이 정체되거나 저하하면서 이른바 케인스주의 장기호황 국면에 특징적이었던 남성 생계부양자(외벌이) 모델은 맞벌이 구조로 전환되고 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 과정에서 사회재생산 비용과 책임이 개인과 가족에게 전가 “재사유화” 되면서, 출산율 하락, 여가 시간의 부족, 맞벌이 가구의 증가로 인한 아동 방치, 돌봄을 받지 못하는 독거 노인 증가, 이주 돌봄 노동자 유입 등 사회재생산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 이 과정에서 “여성이 시장노동을 선택하면서 무급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에 대한 책임을 포기할 수 없거나 면제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중 노동 부담에 시달” (윤자영, 2012: 207)라고 있다. 이러한 현실들은 가족과 가사노동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비판적 분석과 대안 모색이 반자본주의 좌파에게 여전히 중요한 과제임을 보여준다.

## 참고문헌

- 고정갑희. 2009, “페미니즘 관점에서 본 한국의 진보와 패러다임의 전환”, 〈진보평론〉, 40호.
- 고정갑희. 2012, 〈성이론〉, 도서출판 여이연.
- 김경희. 2009, “신자유주의와 국가페미니즘”, 〈진보평론〉, 40호.
- 권현정. 2002,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의 현재성〉, 공감.
- 마르크스. 1988, 〈경제학비판〉, 김호균 옮김, 중원문화.
- 마르크스. 1991. 〈자본론〉 1권, 김수행 옮김, 비봉출판사.
- 마르크스. 2000, 〈정치경제학비판요강〉, I, II, III, 김호균 옮김, 백의.
- 윤자영. 2012, “사회재생산과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여성주의 정치경제학 이론적 검토”, 〈마르크스주의연구〉, 9권 3호.
- 이미경. 1999, 〈신자유주의 ‘반격’ 하에서 핵가족과 ‘가족의 위기’: 페미니즘적 비판의 쟁점들〉, 공감.
- Benenson, Harold. 1984, “Victorian Sexual Ideology and Marx’s Theory of the Working Class”, International Labor and Working Class History, Vol.25.
- Benston, Margret. 1969, “The Political Economy of Women’s Liberation”, Monthly Review, Vol.21, No.4.
- Brown, Heather A. 2012, Marx on Gender and the Family: A Critical Study, Brill.
- Carver, T. 1998, Postmodern Marx, Penn State University Press.
- Chattopadhyay, Paresh. 1999, “Review Essay: Women’s Labor under Capitalism and Marx”, Bulletin of Concerned Asian Scholars, Vol.31, No.4.
- Dalla Costa, M. 1972, “Women and the Subversion of the Community”, in M.Dalla Costa and S.James, The Power of Women and the Subversion of the Community, Bristol: 19–54.
- Dunayevskaya, R. 1991, Rosa Luxemburg, Women’s Liberation, and Marx’s Philosophy of Revolution,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 Dunayevskaya, R. 2000, Marxism and Freedom: From 1776 until Today, Humanity Books.
- Dunn, Bill. 2011, “Value Theory in an Incomplete Capitalist System: Reprioritizing the Centrality of Social Labor in Marxist Political Economy”, Review of Radical Political Economics, Vol.43, No.4.
- Eisenstein, Hester. 2005, “A Dangerous Liason? Feminism and Corporate Globalization”, Science and Society, Vol.69, No.3.
- Engels, F. 1990, The Origin of the Family, Private Property and the State, Karl Marx Frederick Engels Collected Works, Vol.26, Progress Publishers.
- Fine, Ben. 1992, Women’s Employment and the Capitalist Family, Routledge.
- Folbre, N. 1994, Who Pays for the Kids?: Gender and the Structures of Constraint, Routledge.

Fraad, H., Resnick, S. and Wolff, R. 1994, *Bringing It All Back Home: Class, Gender and Power in the Modern Household*, Pluto Press.

Gardiner, J. 1975, "Women's domestic labour", *New Left Review*, No. 89.

Gimenez, Martha E. 2004, "Connecting Marx and Feminism in the Era of Globalization: A Preliminary Investigation", *Socialism and Democracy*, Vol.18, No.1.

Gimenez, Martha E. 2005, "Capitalism and the Oppression of Women: Marx Revisited", *Science and Society*, Vol.69, No.1.

Haug, Frigga. 2003, "Marx within Feminism", <http://www.friggahaug.inkrit.de/documents/marxinfem.pdf>

Harrison, J. 1973, "The Political Economy of Housework", *Bulletin of the Conference of Socialist Economists*, Winter.

Hartmann, Heidi. 1979, "The Unhappy Marriage of Marxism and Feminism: Toward a More Progressive Union", *Capital and Class*, No.8.

Himmelweit, S. and Mohun, S. 1977, "Domestic Labor and Capital", *Cambridge Journal of Economics*, No.1.

Kotz, David M. 2007, "The Erosion of Non-Capitalist Institutions and the Reproduction of Capitalism", R.Albritton, R.Jessop and R.Westra eds. *Political Economy and Global Capitalism: The 21st Century, Present and Future*, Anthem Press.

Leeb, Claudia. 2007, "Marx and the Gendered Structure of Capitalism", *Philosophy and Social Criticism*, Vol.33, No.7.

Marx, Karl. 1975, *Theories of Surplus Value, Part I*, Foreign Language Publishing House, Moscow.

Marx, Karl. 1976, *Capital*, Vol.1, Penguin Books.

Marx, Karl. 1992, *The First International and After*, Political Writings, Vol.3, Penguin Books.

Marx, Karl and Engels, F. 1976, *The German Ideology*, Karl Marx Frederick Engels Collected Works, Vol.5, Progress Publishers.

Molyneux, Maxine. 1979, "Beyond the Domestic Labour Debate", *New Left Review*, No.116.

Orr, Judith. 2010, "Marxism and Feminism Today", *International Socialism*, No.127.

Secombe, Wally. 1974, "The Housewife and Her Labour under Capitalism", *New Left Review*, No.83.

Vogel, Lise, 2000, "Domestic Labor Revisited", *Science and Society*, Vol.64, No.2.

Vogel, Lise. 2008, "Domestic Labour Debate", *Historical Materialism*, Vol.16: 237-243.

# 역사지리적 생태과학과 페미니즘의 비환원주의적 통섭의 과제와 전망

(초고)

심광현 |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미학/문화연구

## 1. 들어가며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와 그 여파로 발생하여 현재 진행중인 유럽의 금융위기, 이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2011년 중동 지역에서 연쇄-폭발한 민중항쟁, 세계 공장 역할을 하던 중국이 2012년부터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기 시작했다. 이는 사실 등은 이제 미국 헤게모니의 해체가 본격화되고 있음을 알려주는 지표들이다. 물론 이렇게 세계체계에 누적되었던 내적 모순들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온다고 해도 당장 자본주의의 전지구적 가동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근 30억 명에 달하는 중국과 인도의 거대한 노동력이 무너져가는 지분을 떠받치는 기둥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기둥들 때문에 격동하고 있는 자본주의 세계체계의 모순적 작동의 전체 상을 파악하기가 어렵게 되고 있다. 체계의 내적 모순들이 터져 나왔지만 그 폭발을 수십억 명의 노동력이 흡수하고 있는 형국인 것이다. 세계 경제의 상층부에서는 금융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미국과 유럽지역에서 발생한 모순들이 중동과 아시아 지역으로 전이-변형되면서 전지구적으로는 체계의 카오스적 요동이 커져가고 있는 현재의 복잡한 과정의 실상을 어떻게 파악해야 할 것인가?

흔들리는 체계 내에 위치하면서 그 체계의 요동과 분기를 지도화하려 할 때에는 양자역학에서 나타나는 것과 유사한 불확정성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관찰자와 관찰대상이 함께 묶여서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이다. 더욱 어려운 점은 관찰대상인 체계의 요동이 커질 때에는 관찰자의 영향이 안정적인 때와는 비교할 수 없게 더 커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난관에는 유리한 점이 있다. 체계의 요동이 급격해져서 카오스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면, 그에 수반되는 나비효과 역시 커지면서 관찰자의 능동적 의도/행동 같은 미세한 변수가 체계 전체의 진화의 향방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이행기에는 체계의 구조적 결정과 주체의 능동적 행위간의 - 전자가 후자를 일방적으로 결정하던 것처럼 보이던 관계 - 변증법이 점점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오늘과 같은 세계사적

이행기에는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두 차원, 즉 지구화된 자본주의 세계체계의 거시적 수준과 가장 미시적인 개개인의 능동적 행위 간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추는 일이 변혁을 위한 이론적, 실천적 과제 해결의 첫 실마리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지만 과거 어느 경우와도 다르게, 지구의 전 지역이 하나의 단일한 자본주의 세계체계 내로 통합되어 있는 오늘날 역사적 구조와 주체적 행위의 변증법을 포착하는 과제 맑스주의의 기본 과제 - 역시 과거와는 다른 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다. 오늘날에는 자본축적의 위기만이 아니라 전지구적 생태위기와 주체성의 위기가 - 펠릭스 가타리가 삼중의 생태위기라고 불렀던 - 함께 겹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서로 포개지고 겹쳐지는 삼중의 위기를 뚫고 나가려면 그 동안 분리, 대립해 왔던 <적-녹-보라> 사이에 이론적, 실천적 연대가 필요하다. 2008~2009년 사이에 필요성이 논의되기는 시작했지만 아직 발전되지 못하고 있는 <적-녹-보라 연대>를 위해서는 우선 각 진영에서 연대를 위해 타결되어야 할 쟁점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부터 토론이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이런 토론의 일환으로 이 글에서는 맑스주의적 관점에서 적-녹-보라 연대가 가능한 이론적 근거가 무엇인지를 살피면서, 그와 동시에 오늘의 관점에서 맑스주의에 부족했거나 결여되었던 공백 지점을 녹과 보라의 관점에서 어떻게 맑스주의의 수정과 보완이 필요한지를 몇 가지 이론적 전제와 방법론적 쟁점에 한정하여 논의해 보고자 한다.

## 2. 적-녹-보라 연대의 이론적 전제, 비환원주의적 통섭의 관점: 역사지리유물론 : 역사유물론-생태과학-페미니즘의 상호교차성

10년 전 데이비드 하비는 세계화의 거시공간과 개인의 신체라는 미시공간 간의 연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역사적 구조와 주체적 행위 간의 변증법을 새롭게 포착하고자 시도한 바 있다.

신체는 그것 주위를 휘감고 그것을 구성하는 힘의 외부에서는 이해될 수 없다. 그러한 핵심 결정인자 중의 하나는 노동과정이며, 세계화는 이 과정이 어떻게 독특한 방식으로 정치-경제적 그리고 그와 관련된 문화적 힘에 의해 결정되는가를 서술해 준다…… 가장 단순한 수준으로 낮추게 되면 세계화는 수십억 명의 개인들 간 사회-공간적 관계에 관한 것이다. 여기에, 전형적으로 분리되어 있어 양자에게 해로운 두 담론 간에 만들어져야 할 근본적 연결이 내재되어 있다. 지난 20년 동안 일군의 담론적 실천으로서 포스트 모더니티의 업적 가운데 일부는 연결들을 단절시키고 분리시키는 것이었다……그러나 이제는 다시 연결할 시기이다. (하비(1); 39)

하비는 이 연결고리를 개인의 '노동력 지출'이라는 노동과정 속에서 찾고자 했다. 물론 노동과정을 매개로 체계와 개인이 연결된다고 하는 발상은 맑스에서 연원한 것이다. 하지만 맑스 시대와 오늘 사이에는 거대한 간극이 펼쳐져 있다. 맑스 당시에는 부재했던 자본의 세계화의 시공간적 만개, 그로 인한 지구생태계와 개체생태계의 만연한 위기, 여성의 사회적 참여의 대대적 확대와 가부장제적 모순의 심화,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병행하는 이데올로기적 복잡성의 증대등이 그것이다. 이런 현상들은 거시공간과 미시공간의 연결이 노동과정 외의 여러 층위들 간의 중층적인 매개로 복잡화될 수밖에 없음을 직관하게 해준다. 이 중층적인 매개망의 지도화를 위해서는 우선 노동

력 지출의 차원을 넘어서서 전지구적 차원에서 에너지와 자연 자원의 소비, 그리고 노동력 재생산 과정(성인 노동자의 휴식과 충전은 물론 가사노동과 출산과 양육 등), 성적 차이와 개인의 자율성 등 다수준적 상호연관성을 체계적으로 규명해야 한다. 역사유물론과 생태과학과 페미니즘 간의 이론적 ‘통섭’(通攝, consilience)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환원주의적’ 통섭이라는 이론적 오류를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본/노동/계급, 자연생태/인간생태(인종과 민족), 성차/애정의 문제들은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나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로 환원될 수 없고, 본질적 차원에서 우선 순위가 매겨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환원이 불가능한 이유는 이 세 가지 문제의 ‘차원’이 다르기 때문이며, 본질적 순위가 매겨질 수 없는 것은 비교평가의 시점이 각기 다를 수밖에 없으며, 세 차원의 조합 방식 역시 역사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자본의 논리로 이 모든 문제를 환원, 종속시키고 있는 자본주의적 현실을 외면하고 상대주의를 주장해도 좋다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자본주의적 환원주의>(모든 것을 자본의 논리로 환원하는 방식)에 맞서 싸우는 과정에서 수단이나 방법으로서의 ‘환원’이 목적론적, 본질주의적 환원주의로 변질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이런 전도된 투쟁과는 달리 <비환원주의적 통섭>의 관점은 계급, 생태, 성차 문제의 3차원적인 조합의 역사적 변화 과정에 초점을 맞추면서, 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반드시 다른 문제의 해결이동시에 요구될 수밖에 없는, 문제해결의 공시적 상호의존성을 강조하려는 것이다.

<넓은 의미의 사회주의 페미니즘>을 주장하는 낸시 홀스트롬은 이와 유사하게 이 세 가지주제와 이론들 간의 <상호교차성>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관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낸시 홀스트롬; 19). 벨 플럼우드도 이 상호교차성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더욱 정교화한다. 그는 에코페미니즘의 입장에서 기존의 사회생태학이나 근본생태론을 비판하면서 억압의 복수성을 인식하면서 응집성 있는 억압이론을 체계화하려면 “각각의 억압에 모든 억압이 포함된다”는 관점과 각 투쟁의 상대적 자율성을 동시에 인정함으로써 하나/다수의 딜레마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러 억압이 하나의 그물망을 형성하기 때문에 각각의 부분을 함께 보면서 동시에 따로따로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벨 플럼우드; 633~635).

필자는 이렇게 각각의 억압체계의 상대적 자율성과 특수성을 규명함과 동시에 각각의 억압에 모든 억압이 포함된다고 보는 프랙탈 이론적 관점을 더욱 정교하게 발전시키는 일을 오늘 우리가 당면한 체계의 카오스적 요동 속에서 변혁의 계기들을 찾아내어 체계화하면서 그와 동시에 이행의 주체 형성을 위한 과제를 함께 하나의 지도 속에 그려 넣는 작업의 기본 가이드라인으로 채택하고자 한다. 전체가 부분에 포함된다는 이런 역설적인 생각은 라이프니츠의 모나드론에서 기원을 찾을 수 있지만, 현대과학에서는 홀로그램 이론, 프랙탈 이론, 초끈이론 등을 포함한 복잡계과학을 통해서 더욱 정교하게 발전하고 있다. 따라서 역사지리유물론 - 생태과학 - 페미니즘간의 비환원주의적 통섭(상호교차성)이라는 관점을 복잡계 과학의 정교한 방법론을 통해서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21세기 체계의 카오스와 주체형성의 변증법적 과정을 과학적으로 지도화하는 작업이 과거에 비해 더 용이해지고 있다. 그리고 당연한 말이지만, 이렇게 비환원주의적 통섭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역사유물론과 생태과학과 페미니즘의 기존 이론들에 대한 상호교차적 수정과 보완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는 문제의 복잡성을 고려하여, 먼저 맑스적 관점에서 역사유물론의 생태과학적 수정과 보완이 어떻게 가능



하고도 필요한가를 살피고, 이를 통해 확장된 역사지리적 생태과학과 페미니즘 간의 상호교차적 수정과 보완이 어떻게 가능하고 또 필요한지를 논의해 보고자 한다.

### 3. 역사유물론의 역사지리유물론적 생태과학으로의 확장

#### 3.1. 역사유물론의 역사지리적 유물론으로의 확장: 데이비드 하비와 조반니 아리기

맑스가 처음으로 확립한 역사유물론의 원래 계획은 인간과 자연의 신진대사의 역사적 변화 과정에서 발생한 자연발생적 분업에서 사회적 분업으로의 이행으로부터 가족과 국가의 기원을 해명하고, 고대적 생산양식과 봉건적 생산양식을 거쳐, 자본, 임노동, 토지, 국가, 대외무역, 세계시장이라는 6가지 기본 요소들 간의 복잡한 관계로 발전한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전모와 그 역사적 전개 및 각 생산양식에 특유한 이데올로기적 상부구조의 역사를 모두 포함하여 체계적으로 설명하려는 방대한 것이었다. 그러나 주지하듯이 이런 계획은 하나로 집약되어 실현되지 못했고, 맑스 사후 이를 계승한 엥겔스에 의해서도 부분적으로만 실현되었을 뿐이다.

맑스/엥겔스 이후 1세기에 걸친 맑스주의의 이론과 실천의 역사는 이 방대한 계획과 그 실현 사이의 커다란 간극과 공백들은 물론 맑스/엥겔스도 예상치 못했던 자본주의의 끈질긴 자기혁신으로 인한 다양한 변화로 심각하게 표류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이론적 표류는 맑스주의를 기치로 내세웠던 러시아혁명과 유럽혁명, 중국혁명의 전개 과정에도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었다. 서구에서는 '68혁명을 전후로 '신좌파' 들의 노력에 의해 맑스주의의 혁신과 전화가 시도되었지만 신-구 세대간 분열, 노동운동-학생운동의 분열과 자본과 국가의 '수동적 혁명' 등으로 인한 계급투쟁에서의 실패는 물론 현대자본주의의 변화상을 분석하는 데서도 제 역할을 못하게 되면서 그 이론적 지주였던 역사유물론은 정치적, 사상적 영향력을 상실하기에 이르고 말았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와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위기가 확산되자 자본주의의 내적 모순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이론인 맑스 사상에 대한 재조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재조명은 단순 반복이 아니다. 맑스에 대한 재조명은 그 강점을 재확인하고 계승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그 사상의 공백을 넘어설 때 빛을 발할 수 있다. 맑스의 역사유물론의 뿌리를 보존하면서도 줄기와 가지들을 수정하고 보완해야 할 필요가 여기에 있다. 물론 그 동안에도 수정과 보완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맑스가 의제화했으나 발전시키지 못한 변증법적 유물론과 이데올로기 개념에 대한 알튀세르의 보완이 그 하나라면, 무역과 세계시장에 관한 데이비드 하비, 월러슈틴과 아리기 등의 보완작업에 의해 이루어진 역사지리유물론과 세계체계론의 등장도 그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보완작업들은 서로 다른 시기에 다른 지역과 학문 분야에서 독립적으로 진행되면서 맑스주의의 소외와 맞물려 진행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하나의 체계 내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시급히 필요한 것은 20세기 후반에 진행된 맑스 사상의 보완과 확장 작업의 성과들을 맑스와 재연결하여 하나의 체계 속으로 통합해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작업의 생명력은 무엇보다도 맑스 사상의 핵심 테제가 현대적인 보완 작업을 통해서 자본주의 세계체계 전반의 모순적 작동을 원활하고 입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때 비로서 발휘될 것이다. 이 과정을 상세화하면 다음과 같다.

1) 맑스 사상을 관통하는 핵심 테제는 인간과 자연의 신진대사 과정에서 물질적 생존수단의 생산이라는 노동과정이 차지하는 중심적 위치이다. 맑스는 『자본』에서 이 과정이 M-C-M'의 순환에 포획되면서 과거의 생산양식의 특징인 노동생산물에 대한 직접적인 수탈이 어떻게 노동과정에서의 노동력 착취라는 방식으로 전환했는지, 그리고 그 착취형태가 자본주의의 발전과 더불어 어떻게 구조적으로 복잡화되었는지를 체계적으로, 역사적으로 서술한 바 있다. 그러나 맑스는 노동력 상품화와 맞물려 확대된 계약관계의 외부에서 여전히 과거와 같은 수탈형태가 다양한 형태로 전지구적 차원에서 행해져 왔는지에 대한 역사적 분석을 빠뜨리지 않았다. 바로 이런 점에서 자본주의는 과거의 지배형식을 단순히 새로운 지배형식으로 대체했다기보다는 오히려 과거의 지배 형식을 보존하면서 새로운 지배형식으로 감싸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맑스가 지배 형식의 역사를 이런 형태의 <포함관계>로 이해했다는 점은 그가 자본주의에서의 가족형태를 바라보는 관점과도 부합한다.

현대의 가족은 그 맹아 속에 비단 노예제뿐만 아니라 농노제도 포함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처음부터 농경을 위한 노력과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의 가족은 그 후 사회와 그 국가에서 광범하게 발전한 온갖 모순을 '축소판의 형태'로 내포하고 있다(엔겔스; 65)

그러나 맑스 사후 바로 이런 착취와 수탈의 이와 같은 공존과 역사적 포함형태가 종종 망각되어 왔고, 이런 망각은 오늘날 지구화된 자본주의 세계체계의 제 모순의 불균등 발전을 올바르게 분석하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요인이다. 오늘날 신자유주의에 의해 제도화된 새로운 착취/수탈형태를 맑스적 관점에서 재구성해 보면 다음과 같다.

정규직의 착취보다 비정규직에 대한 착취 강도가 커지며, 그 중 절반은 착취라기보다는 수탈당하는 입장에 가까운 현실을 놓고 볼 때, 향후 생산관계에 큰 변화가 없다면, 공장 내 정상적 착취보다 공장 외부에서의 비정상적인 착취/수탈의 비중이 더욱 증대할 것이다. 오늘의 한국사회에서도 정규직 노동자를 제외한 비정규직 중 간접고용노동자와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대개가 노동조건 등의 제반 측면에서 사실상 <노예노동> 상태에 처해 있으며,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안정된 주거 조건 자체도 박탈당하고 있으므로 미래세대는 이미 상당부분 생존조건을 수탈당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사실들은 이미 『자본』에서 맑스가 규명한 다양한 층위에서 전개되는 자본주의의 착취/수탈의 다층적 메커니즘을 다음과 같은 틀로 종합해 볼 때라야 선명하게 이해될 수 있다(심광현(1)).

〈표-1〉 [자본]에서의 착취/수탈의 개념적 구분과 적용(심광현©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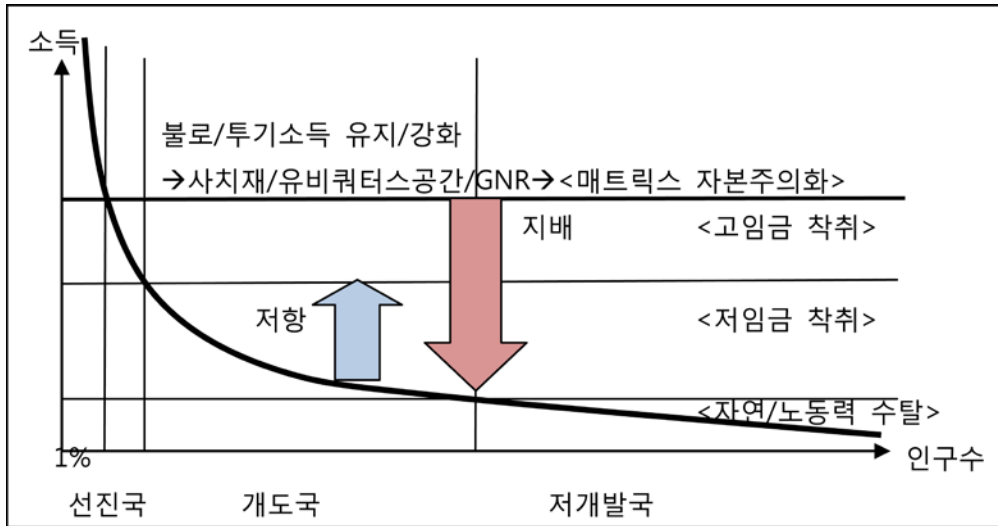
개념	내용	유형	특징	역사적 내용
착취	생산과정 내부	절대적 잉여가치 착취	외연적/양적 포섭	저임금/긴 노동시간
		상대적 잉여가치 착취	내포적/질적 포섭	고임금/소비자본주의
수탈	생산과정 외부에서 자원/기회 의 강탈	시초 축적 (15~18세기)	내부: 엔클로우저 (토지와 노동력의 상품 화 과정)	농촌 수탈을 통한 대 규모 노동력의 도시 유입
			외부: 식민지 건설 (에너지/자원의 수탈)	아메리카/인도/아프리카/아시아 등에서의 자원/노예 수탈
		제국주의적 수탈 (19-20세기)	제국주의 경쟁 (영/프/독/이탈리아/미국 /일본 등)—식민지	영국의 인도지배/ 아메리카인디언 학살 /1-2차 대전 등
		제국적 수탈—탈식민지 (20-21세기)	주식/증권 시간적(미래할인)	비정규직/실업 미래 세대

〈표-2〉 현대자본주의의 중층적인 착취/수탈의 위계 구조(심광현©2012)

구분	유형	내용	제도/현상
착취	상대적 잉여가치 착취	고임금/숙련 노동	정규직
	절대적 잉여가치 착취	저임금/비숙련 노동(여성노동)	비정규직-불안정노동 (9개 유형으로 세분화)
수탈	노동 기회 박탈	임금 인하를 위한 구조적 압력	실업(산업예비군)
	세대간 수탈	국가부채/기업부채 /금융파산 등	부채의 미래세대로의 전이
	자연/농촌 수탈	환경 파괴/식량 자급률 감소 등	한미FTA
	금융적 수탈	주식/증권/부동산 투기	신자유주의적 금융수탈

유비쿼터스 컴퓨팅 기술의 본격화 이전에도 이미 이런 상태를 야기하고 있는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에 어떤 근본적인 변화가 없을 경우 유비쿼터스 컴퓨팅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2010년대에 어떤 형태로 작동하여 “가공할” 결과를 야기할 것인지는 충분히 상상해 볼 수가 있다. 이미 전세계적으로 정규직-비정규직-실업자의 위계 구조가 점점 더 맥함수 분포를 취하게 되고, 세대간 수탈-자연 수탈- 금융적 수탈이 악화될 경우 대중적 저항이 강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무력 진압 역시 강화되고 있는 바( ‘신자유주의 경찰국가’ ), 미국이 주도하는 GNR 혁명이 군사력-경찰력에 실용적으로 접합될 경우 첨단과학기술을 이용한 정보통제와 무력사용을 통해 대중의 저항에 대한 통제력 역시 강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2025년까지 미군의 중대장 이하의 보병부대의 로봇화 계획). 이런 추세를 다이어그램으로 그려 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1: 세계적 소득의 역함수 분포와 착취/수탈의 위계>



이렇게 영화 『매트릭스』 같이 재앙적인 디스토피아로 나아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로보캡의 기술이 실현될 것으로 예시된 2025년 전후로 근본적인 혁명적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2) 데이비드 하비는 『자본의 순환』(1982)을 통해서 자본의 순환을 상품생산에 대한 투자(1차순환)와 소비기금과 건조환경에 대한 투자(2차순환), 과학기술과 사회적 소비(교육과 보건)에 대한 투자(3차순환)으로 나누어 분석하면서, 각 순환 단계마다 경쟁의 심화로 산업 부문간 위기 이전, 지역간 위기 이전, 세계적 차원의 위기가 순차적으로 나타나 자본주의의 공간적 팽창이 불균등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지를 체계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역사유물론의 역사지리유물론으로의 확장의 이론적 기초를 닦은 바 있다(하비(2)).

<표-3: 자본축적의 위기와 전환의 유형>

구분	세목	해당 사항	사례
부문적 위기	호/불황 반복	특정 부문 내에서의 위기/해결	5~10년 주기
전환 위기	부문적 전환 위기	부문 간 전환에 따른 위기/해결	IMF 구조조정
	지리적 전환 위기	지리적 전환에 따른 위기/해결	미국->중국 자본 이동
세계적 위기	세계 대공황	모든 부문, 영역, 지역들을 가로	1780년대, 1830년대, 1873,
		지른 세계적 위기	1923~29, 1973, 2008 등

이렇게 해서 포착된 자본주의의 전지구적 불균등발전은 최근의 세계적 금융위기의 산업적, 지역적 이전의 불균등성과 위기 체감과 이데올로기적 장치들의 유형과 기능적 불균등성, 자본의 영토적 고정성과 유동성 간의 긴장을 설명하는 데 핵심 고리가 될 것이다.

1990년대 이후 세계화된 자본의 순환은 3차 순환단계를 넘어서서 넓은 의미의 문화적 실천 전반(일상생활의 관습을 포함한 주체양식과 생산수단의 생산에 관한 지식 전반)을 포섭하여 새롭게 상품화하고 정책대상으로 재구성하는 단계로 확장되고 있는데 이 과정을 <자본의 4차 순환>이라는 새로운 개념화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파악할 필요

가 있다고 본다. 아래의 표는 데이비드 하비의 <자본의 1-2-3차 순환>의 분석틀을 확장된 의미의 <문화적 실천>과 연결하여 재구성한것이다(심광현(1)).

<표-4 자본의 1-2-3-4차 순환(심광현©2012)>

자본1-2-3차 순환(19~20세기)	노동력/인구	생산수단과 조직 (기술-조직 혁신)	재구성 (1990 이후)	자본의 4차 순환 (21세기)
1차순환 (상품생산-소비) <b>(Product-서비스)</b> 개별기업 1-2-3차 산업	상품소비와 노동력 재생산 <b>(소비재)</b>	가치와 잉여가치 생산 <b>(생산재)</b>	신자유주의 금융-정보의 세계화  기호-브랜드 가치 문화자본 사회자본 인지자본  GNR혁명에 의한 생명-물질- 인지과정의 재구성 (자연의 재구성)	*상품미학과 창조산업 *문화(콘텐츠)산업 *감정노동과문화경제(성 형산업/결혼-장례산업/ 돌봄산업/치유산업) *소셜네트워크 등
2차순환 (도시건조환경) <b>(H/W)</b> 자본시장	소비용건조환경 <b>(소비기금)</b> (집합주택-대형 마트-극장과 엔 터테인먼트-공원 -광장 등)	생산용건조환경 <b>(고정자본)</b> (대규모 생산시설- 교통-정보-빌딩 인 프라)(생산성 향상)		*젠트리피케이션과 도시 간-도시 내 경쟁 *문화공학(문화도시/창 조도시/생태도시) *유비쿼터스도시 * 3rd Space 출현
3차순환 (공공서비스) <b>(S/W)</b> 국가기능	사회적 소비 <b>(ISA/RSA)</b> (노동력의 양과 질 관리)	과학기술 혁신 <b>(노동과정의 기술 적-사회적 조직화)</b>		*문화적 공공영역/ *학문간융복합-통섭 *문화정책(예술/콘텐츠/ 복지/관광/체육)의 확장 을 통한 일상의 재구성

<자본의 4차 순환>이라는 개념은 현존하는 자본의 1-2-3차 순환과 별개의 차원을 의미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간 완성된 자본의 1-2-3차 순환 과정 전체를 <신자유주의적인 문화적 논리>에 따라 전면 재구성하는 과정을 가시화하려는 개념이다. 이 과정은 자본의 1-2-3차 순환 과정에서는 공백으로 남겨져 있던 일상생활(몸과 감정, 대인관계, 자연과의 관계 등)과 공동체적 의례(관혼상제와 상호부조 등), 과학기술을 포함한 제반 학문과 표의체계, 감정과 학습, 인지적 과정을 포함한 다양한 주체화 양식 전반을 포함한 <문화적 실천>의 모든 영역을 상품화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오늘날 자본의 4차순환에 포섭된 <주체화 양식>의 변혁이라는 과제가 과거 루카지가 강조했던 것과 같은 프롤레타리아트의 <의식의 각성>이라는 차원을 넘어서 감각, 감정, 욕망 구조의 변화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과제와 맞물려 있고, 나아가 이 부분의 변화가 선진국의 경제 시스템 전반에 큰 충격을 줄 정도의 비중을 띠어가고 있다는 점을 알게 해준다.

3) 하비가 역사지리유물론을 19~20세기에 적용시켰다면, 조반니 아리기는 『장기 20세기』(1994)에서 M-C-M' 운동이 어떻게 해서 M-C(실물팽창)과 C-M(금융팽창) 국면으로 나누어 순환적 주기를 이루는지를 설명하고, 이 주기가 영토권력과 어떻게 길항 관계를 이루면서 지중해 연안에서 시작하여 네 차례에 걸쳐 전지구화된 자본주의 세계체계의 공간적 팽창과 헤게모니의 중심 이동을 만들어냈는지를 체계적이고 역사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윌러스틴이 출범시킨 자본주의 세계체계론의 전반적 구조를 완성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아리기의 논의는 오늘날 지구화된 자본주의 세계체계 전반의 카오스적인 요동을 설명하는 데 필수적인 전제가 된다.

이 세 가지 연구성과를 맑스의 사상과 연결해 보면 맑스가 세운 본래 계획은 <자본주의 세계체계의 역사적 형성과 내적 모순 및 한계에 대한 역사지리유물론적 비판>이라고 재해석해 볼 수 있겠다.

### 3.2. 역사지리유물론의 생태과학적 보완

하지만 맑스 사상의 핵심은 이 세 가지 연구성과의 연결만으로는 충분히 조명되기 어렵다. 맑스 사상에는 인간과 자연의 신진대사와 그 촉매제로서의 노동과정의 역사적 진화가 자본주의에 이르러 어떻게 근본적인 균열이 발생하며, 그 결과 인간과 자연의 신진대사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게 되는가에 대한 생태학적 분석과 통찰이 광범위하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2000년을 전후로 존 벨라미 포스터와 폴 버킷, 제이슨 무어 등이 체계적으로 해명한 바와 같이 맑스는 자본주의가 부의 영원한 원천인 토지와 노동자로부터 생명력을 탈취한다는 점을 누누이 지적했다. 또한 지속가능성이라는 문제에 대해 기술하면서 토지의 영양순환, 오염, 위생조건, 삼림파괴, 범람, 사막화, 기후변화, 산업폐기물의 재활용, 종 다양성, 종의 상품화 등을 비롯한 여러 쟁점들을 다루었고, 다윈의 진화론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공진화(coevolution)이라는 개념에 도달할 수 있었다. 또 그는 맬더스와 대결하면서 '과잉인구'(맑스는 사용했지만 맬더스는 사용하지 않았던 개념)의 원인이 자연적이라기보다는 역사적이라는 점을 규명했고, 자본주의의 기원적 모순으로서 토지와 노동자의 분리를 지적했다. 그의 경제학 비판은 자본축적의 과정은 곧 모든 생명의 상품화이자 사용가치에 대립하는 경향임을 지적했다(포스터; 122~123)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임스 오코너와 앨런 루디 같은 일부 생태사회주의자들은 맑스가 제시한 풍부한 생태론적 통찰을 강조하는 대신 오히려 맑스가 생태론을 충분히 발전시키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데에 열을 올려 왔다. 특히 오코너는 자본주의의 기본 모순을 이윤실현이 모순과 생산조건의 모순이라는 두 가지로 구분하고 맑스가 첫 번째 모순에만 집중하고 두 번째 모순을 간과했다고 비판하면서 세 가지 생산조건의 훼손에 대응하여 신사회운동의 세 가지 유형이 등장했다고 분석하고 있다(개인적 생산조건의 악화에 대응하여 페미니즘이, 자연적 생산조건의 악화에 대응하여 환경운동이, 공통적 생산조건의 악화에 대응하여 도시운동이 출현했다는 것)(포스터; 124~125). 그러나 이런 분석과 제안들은 1) 맑스 사상에 대한 허수아비 논증의 형태를 취하고 있고, 2) 맑스가 M-C(lp+mp)-M' 라는 자본순환 공식으로 통합한 상품, 화폐, 노동력, 자연자원, 토지, 도시공간 등을 낱개로 다시 분리시켜 통합된 자본 순환 과정을 이해할 수 없게 만들며, 3) 오존층과 같은 광범위한 자연적, 생태적 조건을 경제위기와 같은 생산 조건 속에 억지로 통합함으로써 경기순환과는 전혀 다른 주기를 가진 생태조건을 경제위기와 일치시키려는 오류를

범하고 있고, 4) 무엇보다도 자본주의 모순을 계급투쟁이라는 내적 모순과 생산조건이라는 외적 모순으로 이원론적으로 분리시킴으로써 노동운동과 신사회운동을 분리시키면서, 후자의 역할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려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에서 운동을 인위적으로 분할하고 연대의 지평을 축소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하겠다(포스터; 125~130)

이런 식의 문제점을 넘어서면서 생태론적 관점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오히려 맑스가 그랬던 것처럼 제국주의(지리적 수탈)와 마찬가지로 생태파괴(인간생태계와 더불어 자연생태계의 파괴)가 이윤추구 그 자체인 자본주의의 기본적인 특성이라는 사실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환경 문제, 생태계의 문제가 단순히 경제적 프리즘을 통해서 이해될 수 없는 더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관점에 선 역사지리적 생태과학이라는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할 필요가 있다. 포스터가 강조하듯이 맑스주의적 분석의 궁극적인 강점은

경제위기 이론이나 경제적 계급투쟁에 대한 분석이 아니라 인간적-자연적 역사에 대한 유물론적 인식이라는 훨씬 더 심층적인 차원에 위치한다. 이때 역사는 끊임없이 우연적이고 변증법적인 과정으로 이해되며, 오직 그렇게 이해될 때에만 진리일 수 있다. 이는 부르주아 사회에서 주요한 소외된 지적 산물 중 하나였던 자연-물리과학과 사회과학의 분열을 비환원론적 방식으로 극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포스터; 134)

이런 관점에서 생태론적 관점에서 맑스주의를 왜곡되게 비판하는 것보다는 맑스의 관점을 현대의 발전된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의 연구성과를 통해서 일관되게 확장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더욱 생산적이고 과학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다. 변증법적 사상가이자 진화생물학자였던 제임스 굴드, 생태과학과 사회과학을 종합하려는 위르의 하일라와 리처드 레빈스, 변증법적 생물학을 주창하는 리처드 레빈스와 리처드 르윈턴, 자연과 사회의 변증법을 자본주의 연구의 이론적 핵심으로 설정하고 농업생태적 변형체계의 축적순환을 역사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제이슨 무어 등의 연구가 이런 생산적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제이슨 무어 외). 특히 제이슨 무어는 자본주의에서 신진대사의 균열은 그것의 지속불가능성 때문에 근본적으로 세계화되는 본성을 갖고 있고, 매 축적체계의 변화 단계마다 농업생태적 재조직화와 공간적 팽창을 포함하는 본원적 축적의 새로운 단계를 동반하는 순환 과정을 반복해 왔는데, 이제는 공간적 팽창이 폐쇄됨에 따라 자본은 내부적 팽창으로 전환하고 있음에 주목하고 있다. 가령 세계의 유전자 스톱의 상품화와 단순화가 그것이다(무어; 216) 이런 관점은 자본-국가-노동-자연을 부분적으로 조합하는 대신 이 모든 요소들 간의 역사적 변증법으로 파악하게 해준다. 그리고 이런 연구는 사실상 맑스가 <자본론>을 집필하면서 세웠던 <플란>(자본-(임)노동-토지-국가-무역-세계시장)의 과학적 연결과 발전에 다름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 복잡한 요소들 간의 역사적으로 변화하는 변증법적 과정의 메커니즘을 총괄적으로 이해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자본주의는 역사적으로는 500 년 이상의 기간 동안 네 차례의 축적순환을 거듭하면서 공식적으로는 지중해에서 전 지구적 차원으로 팽창해 오는 동안에 제반 요소들 간의 변형과 생성과 소멸을 촉진해 왔기 때문에 흔히 오해하듯이 ‘계급투쟁’이라는 단일 쟁점으로 환원될 수 없는 것이다. 맑스가 말했듯이 ‘계급투쟁’이라는 용어는 맑스 자신이 발명한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사용되어 왔던 것이며, 맑스의 창의성은 그 계급투쟁이 어떻게 자본주의의 내적 모순에 의해 작동하는가를 과학적으로 규명한 데에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하

지만 흔히 이런 오해가 발생하는 것은 맑스의 정치경제학 비판이나 역사유물론이 너무나 복잡한 요소들 간의 역동적 상호작용을 증층적으로 분석하여 공시적-통시적으로 보여준 것이기에 문자적인 기술과 산술적 공식 만을 따라가서는 결코 그 핵심을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맑스의 사상의 기초가 되고 있는 역사과학적인 생태학적 관점과 자본주의 비판의 내재적 상관관계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 이는 맑스의 사상이 그 시대의 언어로는 제대로 표현할 수 없었고(알튀세르는 <자본 읽기>에서 맑스가 스스로 “탐구와 서술의 변증법”이라고 불렀던 맑스의 방법론에서 ‘서술’(Darstellung)의 개념이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임을 밝힌 바 있다), 오직 현대과학의 새로운 언어를 통해서만 해명될 수 있는 새로운 과학적 패러다임을 내장하고 있었다는 것을 뜻한다.

필자가 다른 글(심광현(2))에서 밝힌 바처럼 하워드 오덤의 <시스템 생태학>은 맑스 사상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복잡계적인 공시적 순환 체계를 알기 쉽게 가시화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하워드 오덤은 『시스템 생태학』(1983)에서 자연 생태계와 경제생태계 및 국가의 조절 기능 간의 입체적인 순환체계를 처음으로 모형화한 바 있다. 그는 생산자 및 소비자를 동시에 포함하는 자연 생태계들을 시스템 언어로 분석하여 특성을 설명할 뿐 아니라, 생태계의 천이 및 진화과정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비교 분석하고 있으며, 자본주의 국가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간주하고 화폐의 순환, 수요와 가격, 생산과 경제 성장, 비용 편익 분석 등을 시스템 이론으로 설명하고 있을 뿐 아니라, 문화의 진보에 따른 인간의 자연 이용 변화와 농업과 광업, 그리고 기술의 역할, 도시와 주변 지역의 재화와 물질 이동을 다루면서 동시에 지구 전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간주하여 물질 순환, 생물권의 역할, 무역의 흐름 등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설명하고 있다.

에너지 다이어그램은 아주 많은 것을 포함하고 그것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예리함이 요구되기 때문에, 이 언어는 현재 분산된 문헌 속에 존재하는 ‘바벨 탑’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모든 사람들이 계층구조적 관계, 기계론적 관계, 전반적인 형태, 창발성, 여러 수준의 축약, 에너지론, 동역학, 경제학 등을 동시에 보여주는 완전한 모델을 발표하게 된다면 그것은 집합적인 진보가 되지 않을까? (...) 시뮬레이션하지 않고 측정과 실험에 의존하는 과학에 안주하는 것은 잘못된 것일지도 모른다. 반드시 모델의 정량적인 검토를 통해서만 이론적인 설명들이 관찰과 일치하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 모델링 없는 과학은 이류가 되지 않았습니까? (오덤, 1321~1322)

오덤의 저작에는 이렇게 시스템 언어에 기반 한 에너지 다이어그램이 풍부하게 제시되어 있는데, 일례로 미국 경제의 흐름을 정부, 가정, 자본의 생산과 유지에 대한 주요 흐름들을 분리, 결합한 형태로 보여주는 슐츠의 소득-지출 흐름의 모델에 에너지 관계의 흐름을 추가하여 재구성한 에너지 다이어그램은 모든 에너지원으로부터 투입된 에너지들이 노동, 자산, 정부 통제와 상호작용인 생산함수와 화폐의 흐름과 일의 흐름을 표시하는 되먹임 루프들을 통해 어떻게 순환하며 재생불가능한 에너지로 빠져 나가는지를 알기 쉽게 보여주고 있다. 또 재생불가능한 자원의 감소가 한 국가에서 이 자원의 상대가격을 어떻게 증가시키는지 보여주는 세계경제의 축약모델이 제시

32 되어 있다(오덤, 1126~11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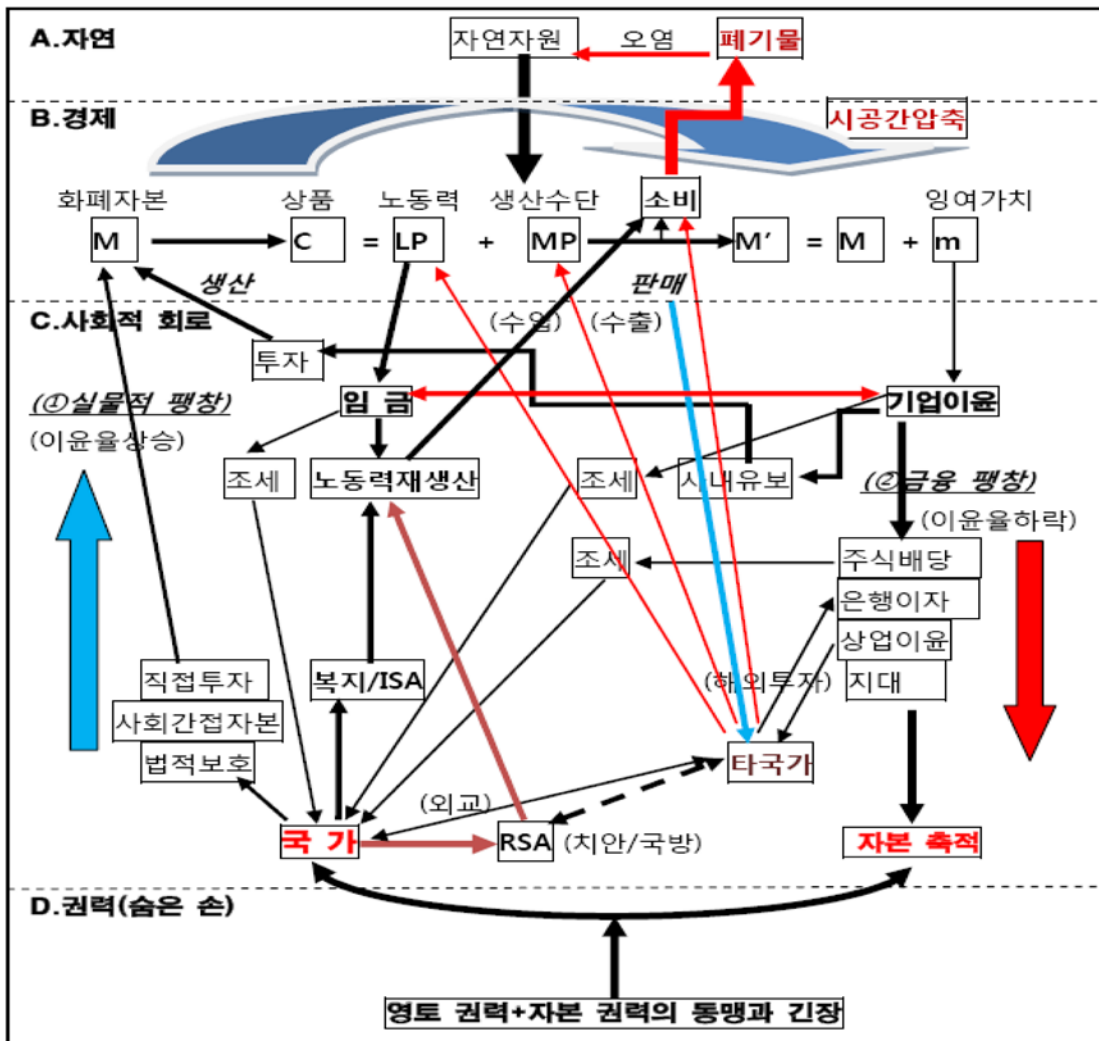
양의 피드백과 음의 피드백 작용을 갖는 복잡한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델인 오덤의 다이어그램은 약식 모델이기에



M-C-M'의 과정에 참여하는 제 주체들 간의 계급투쟁의 역학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시스템적 포개 넣기 방식을 통해 갈등의 동학을 얼마든지 연결,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인류역사에서 에너지 발달 단계에 대한 미니모델의 경우에는 수렵과 채집, 농경생활, 연료와 광물을 사용하는 도시 문화 중심으로의 진화에 따라 인간과 자연의 신진대사의 흐름이 사회 생태계의 흐름이 점차 커지는 데에 반비례하여 야생 생태계가 축소되는 과정을 알기 쉽게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다(오덤, 1171).

이런 네 가지 측면들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맑스의 역사유물론을 하나의 순환모형으로 지도화할 수 있는 해석이 가능하다. 자연과 인간의 신진대사(A)의 새로운 역사적 형태인 자본축적의 일반적 도식 <M-C-M'>(B)은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최상위 수준의 순환시스템으로, 그 안에는 여러 하위 시스템들 간의 사회적 회로들(C)이 함축되어 있고 이는 국가-자본의 연합권력(D)에 의해 조절되고 있다. 아래 그림에서 가장 복잡한 형태로 전개되는 사회적 회로(C)는 산업자본의 투자(M) → 생산수단과 노동력 구입(C=LP+MP)→노동과정에서 부가가치 창조(C'=C+m) → 상품 판매를 통한 화폐 수입 실현(M'=M+m) → 임금 + 잉여가치(산업이윤(배당+사내유보) + 이자 + 상업이윤+ 지대 +조세)의 분배(M') → 분배 이후 사내유보의 재투자=산업자본화(M') → 생산능력과 고용 확장(M')이라는 복잡한 경제순환의 흐름으로 이루어진다.

<그림-2> 자본순환 도식의 시스템생태학적 해석(심광현(2))



맑스의 『자본』은 위 그림의 4가지 상이한 차원들 간의 순환회로를 분석적 추상과 종합적 서술 과정을 통해서 글의 형태로 통시적으로 풀어나갈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난해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 4차원의 순환체계들 간의 복잡한 회로를 위와 같이 하나의 공시적 다이어그램으로 시각화하면,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된다(단, 여기서 각 회로가 지나가는 매듭(‘노드’)들은 단순한 통과점이 아니라 +/- 의 기능이 부여된 조절장치로 이해해야 한다. 이는 회로의 각 차원들 간에, 각 매듭들 간에 변증법적인 의존과 갈등이 증폭/감소/대체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장치이다) 이런 점에서 이 그림은 맑스와 이후 맑스주의의 “분산된 문헌 속에 존재하는 바벨탑을 제거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나아가 이 그림은 맑스와 이후 맑스주의의 연구에서 취약하거나 공백으로 남겨진 부분이 무엇인지도 쉽게 인지하게 해준다. 들뢰즈와 『천 개의 고원』(1980)을 공동 집필한 후에 펠릭스 가타리가 생애 후반에 이르러, 자연생태학-사회생태학-인간생태학의 세 가지 생태학 간의 연결망을 하나로 ‘지도화’ 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꼈던 것은 바로 이런 회로들간의 공시적 시각화가 가지는 장점을 인식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지도화의 장점을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다(심광현(2)).

- (1) 이는 자본주의 생산의 복잡한 전체 과정의 시간적 흐름을 공시적으로 직관하게 해준다.
- (2) 그 순환적 흐름에는 상반된 방향의 운동(실물적 팽창과 금융적 팽창)이 내재하고 있어 이 회로들은 평형상태가 아니라 항상 불안정한 역동성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 (3) 잉여가치의 착취와 관련하여 자본-노동의 대립은 필연적일 뿐 아니라 그 최종 수취의 경로를 둘러싼 영토국가와 자본권력 사이의 동맹과 긴장이 변증법적으로 얽혀 있다는 사실 역시 쉽게 ‘가시화’ 해준다.
- (4) 이 순환 회로들의 전체 체계 내의 모든 ‘노드’ 들은 단순한 통과장치가 아니라 일종의 변압기처럼 에너지와 정보의 흐름을 증가(+) 혹은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면서 근방의 다른 노드들과 이웃관계를 형성하며, 계급 간, 계급 내의 차이와 동맹과 적대들이 발생하는 과정들을 생생하게 보여줄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이 전체 순환 회로는 하나의 회로가 아니라 크고 작은 다양한 회로들의 중첩으로 이해되어야 한다(이 중첩성을 알튀세르는 “중층결정”(혹은 “과소결정”)이라는 용어로 개념화하고자 했다).
- (5) 시간이 경과할수록 자연자원의 고갈과 오염이 불가피함과 동시에 자연자원과 노동력이 소진되는 만큼, 그에 비례하여 국가기구의 비대화화 고정자본과 유동자본 전체의 고도축적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가시화’ 해준다.
- (6) 특히 중요한 것은 네 가지 (자연 - 생산과정 - 사회적 회로들 - 권력의) 이질적 차원들로 구성된 전체 순환 시스템 내에서 각 하위 시스템들의 순환과정은 기본적으로 두 개의 상반된 방향, 즉 아리기가 맑스의 자본순환 도식  $M-C-M'$  를 실물적 팽창( $M-C$ )과 금융적 팽창( $C-M'$ )의 결합과정으로 재해석한 두 방향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실물적 팽창의 방향으로 상향 운동할 경우 생산-판매 과정을 경유하여 획득된 잉여가치가 산업생산과 금융부분에 균형 있게 재투자되는 방향으로 폭넓게 순환하게 되지만(넓은 회로 순환), 금융적 팽창의 방향으로 하향 운동할 경우 산업에 투자되는 몫이 줄어들고 대부분의 잉여가치가 주식과 이자와 지대와 같은 금융 부분에 편향되어 순환하게 된다(좁은 회로 순환) 2차 대전 이후 확립된 미국 헤게모니 하의 세계 자본주의가 발전주의/케인스주의에서

신자유주의로,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다시 신자유주의의 약화와 신케인스주의의 강화라는 상반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양상은 바로 이 두 가지 운동 방향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맑스주의적 역사지리유물론에 대한 시스템생태학적 수정과 보완 작업의 중요한 함의는 기존의 대다수 맑스주의자들이나 생태주의자들 대개가 간과했던 두 가지 지점의 중요성을 부각시킨다는 것이다. 그 하나는 이 그림에서 B 차원이 현재와 같이 전지구적 규모로 계속 작동할 경우 A 차원에 기존에 사용해온 에너지자원의 고갈과 함께 생태적 오염과 파괴를 누적시켜 경제위기와 생태위기 간의 악순환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명료하게 가시화한다는 점이다. 이 점은 맑스가 『자본』의 곳곳에서 자본주의가 부의 원천인 인간(노동력)과 자연의 신진대사 자체를 심각하게 훼손하여 그 지속가능성을 위협할 것이라고 비판한 지점의 체계적인 조명에 다름 아니기에 자본주의에 대한 생태학적 비판은 맑스의 역사유물론과 상치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맑스 사상의 출발점이자 필연적인 귀결임을 알 수 있게 해준다. 다른 하나는 B 차원에서 상품생산의 증가는 여성노동력의 증가와 더불어 과거에는 비상품적 형식으로 작동하던 노동력 재생산 과정 전반(결혼과 육아와 공동체적 상호부조 등의 일상생활)을 상품화할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국가의 개입(자본의 2차순환과 3차 순환) 역시 확대되면서 가족관계와 성애적-정서적 관계의 해체와 복잡화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맑스주의에서는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라는 개념으로 나아간 것 외에는 여성 노동력의 확대와 가족형태 및 성정치의 변화에 대한 분석을 발전시키지 못했다. 상호교차성의 관점에서 역사지리적 생태과학에 대한 페미니즘적인 수정과 보완이 요구되는 곳 바로 이 지점이다.

#### 4. 역사지리적 생태과학의 페미니즘적 수정과 보완

맑스주의적 생태과학과 페미니즘의 '상호교차적' 만남이 실질적으로 의미 있으려면 양자가 일정하게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페미니즘의 역사에 대한 통상적인 이해(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반에 투표권 투쟁을 중심으로 양성평등을 주장한 자유주의 페미니즘을 1세대 페미니즘으로, 1960년대에 등장하여 사적 영역에서의 여성 억압과 특히 여성 고유의 성욕의 억압이라는 문제를 새롭게 제기한 급진적 페미니즘을 2세대 페미니즘으로 규정하는 역사 이해)에 의하면 페미니즘은 사회변혁과는 분리된 채 독자적으로 존재해 온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양자 간에는 유사한 점이 별로 없어 보인다(김숙경; 11). 하지만 페미니즘의 역사를 이런 협소한 틀을 넘어서 18세기 말 프랑스 혁명기로부터 소급해서 보게 되면, 노동해방과 여성해방의 의제가 서로 무관하거나 적대적이었던 것이 아니었고, 성적차이라는 의제도 18세기 말부터 제시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18세기 말 프랑스 혁명기까지 소급하여 페미니즘의 역사를 재구성하고 있는 로보쌈에 의하면 19세기 초 <유토피아 사회주의 페미니즘> 권현정, 「유토피아 사회주의 페미니즘」, 『페미니즘 역사의 재구성: 가족과 성욕을 둘러싼 쟁점』, 권현정 외 지음, 과천연구실 세미나 19, 도서출판 공감, 2003. 1789년 혁명에 여성들이 적극 참여함으로써 정치에서 여성들의 능동적 주체임을 입증해 보았다면 1800년대에 여성은 산업화 과정에서도 노동력의 담지자로서 등장했다. 그러나 여성의 정치적 참여에 대한 금지는 곧 경제적 참여에 대한 금지로 확대되었다(79쪽). 이런 흐름에 반대하여 푸리에, 생시몽주의자인 앙팡탱, 오엔주의등 유토피아 사회주의자들은 여성해방의 물질적 조건에 관심을 기울임과 동시에 사적 소유의 전달을 담당할 뿐 아니라 경쟁적 이데올로기의 핵심적 원천이라고 판단된 가족과 결혼체계 자체에 대한 급진적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려고 노력했다(80~86쪽). 이들은 공동체를 구성하는 원리 자체를 변화시킴으로써, 즉 성적으로 조화로운 공동체를 구성함으로써 평등속에서 성적 차이를 실현하고자 했고, 이를 위한 전제로 노동권과 여

성권의 결합을 사고했다(105쪽)과 20세기 초 러시아 혁명기에 활동한 콜론타이는 여성의 경제적 독립(노동권)과 성적 자율성(여성권)의 결합을 모색함으로써 사회변혁에 여성해방을 종속시키지 않으면서도 양자를 교차시키고자 했던 대표적인 시도들이다(김숙경; 12). 이렇게 폭넓게 재구성된 페미니즘의 역사적 맥락에서 보자면 자본주의 사회의 변혁을 목표로 내걸었던 사회주의 및 맑스주의와 페미니즘은 애초에는 상호교차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1848년 혁명 실패 이후 사회변혁운동과 페미니즘의 연결고리가 끊어지기 시작했고, 1871년 파리 코뮌 이후 사회변혁의 전망이 퇴조하는 가운데 노동자운동은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이라는 부르주아적 가족

모델을 적극 수용하고 여성 노동권을 제한하면서 가족임금 전략으로 나아갔고, 여성운동은 자유주의적 개혁과 결합하여 투표권 쟁취로 집중하면서 가내 폭력과 성폭력에 대항하는 운동(사회정화주의)의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노동자운동과 여성운동은 분리되게 되었다(김숙경; 58~61).

이런 역사적 맥락을 되돌아 보면, 노동권과 여성권은 혁명기(프랑스 혁명, 러시아혁명, 68혁명 등)에는 결합했다가 혁명의 퇴조기에는 분리되는 방식으로 결합과 분리의 반복적인 순환 운동 속에 놓여져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순환 주기를 개괄해 보면 한 주기가 대략 한 세기에 걸쳐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1) 19세기: 1789~1848년 프랑스 혁명 기간 동안의 결합기(유토피아 사회주의 페미니즘)와 1871~1910년대까지의 분리기(1세대 페미니즘), (2) 20세기: 1917~1929의 결합기(콜론타이)와 이후 페미니즘의 소강상태, 1960~90년대 2세대 페미니즘의 등장과 다양한 형태의 분리주의의 확산기, (3) 21세기: 2000년대에 들어와 사회변혁과 페미니즘의 재결합을 위한 노력이 다양하게 시작되는 시기(넓은 의미의 사회주의-생태주의 페미니즘). 이렇게 볼 경우 사회변혁과 페미니즘의 결합은 기존 헤게모니의 해체와 새로운 헤게모니가 등장하는 이행기마다 나타났음을 알 수 있고, 미국 헤게모니의 해체에 해당하는 현 시기는 사회변혁운동과 페미니즘의 결합이라는 미해결의 과제가 또 다시 시대적 요청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된다.

하지만 아리가 보여준 바와 같이 500년 간에 걸친 자본축적체계의 순환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헤게모니의 지리적 교체와 기술혁신/조직혁신, 공간적 팽창, 다른 형태의 혁명운동이라는 ‘차이’를 만들어내는 반복인 것처럼, 지난 220여 년 동안에 이루어진 사회변혁운동과 페미니즘의 결합/분리의 순환 역시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차이를 만들어내는 반복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 우리는 사회변혁과 여성해방을 적극적으로 결합하고자 했던 과거의 사례로부터 계승해야 할 미해결 과제를 발굴해야 함과 동시에 분리주의적 페미니즘 운동의 역사로부터 제기되었던 미해결 과제의 재조명을 통해 우리 시대에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유례 없는 새로운 과제가 과연 무엇 인지를 함께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지면의 한계상 프랑스 혁명기로까지 소급되는 사회변혁적 페미니즘 운동에 대한 폭넓은 역사적 고찰은 다른 기회로 미루고, 여기서는 노동권과 여성권의 결합에 대한 페미니스트들의 요구가 어떻게 지지되었고 또 번번히 기각되어 왔는지와 더불어 맑스주의 내에서 이 의제를 다루어 왔던 엥겔스와 콜론타이의 사례 분석에 초점을 한정하여 ‘반복과 차이’의 문제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 4.1. 노동권과 여성권의 결합요구의 계보

엄밀히 말하자면 사회변혁적 페미니즘이 제기해온 노동권과 여성권의 결합으로서의 여성해방에 대한 요구는 몇몇 예외를 제외하고는 러시아 혁명기는 물론이거니와 프랑스 혁명 당시부터 혁명주체인 남성 혁명가나 노동자들로부터 대부분 기각되어 왔었다:

1) 1790년 콩도르세는 <여성의 시민권을 위한 청원>에서 남녀양성에게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자고 주장했고(1792년 울스틴크레프트의 <여성권의 옹호>에서도 동일한 주장), 1791년 올림 페 드 구즈는 <여성과 여성 시민의 권리선언>에서 민족과 시민성의 성별화된 성격을 규정하고자하면서 남성에게 부여한 모든 권리와 자유를 여성에게 부여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가족 안에서의 전제로부터 여성의 해방을 위해 새로운 요구, 특히 성적 착취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권리와 육아 책임의 공유를 요구했다. 1793년 레옹과 아콩브 등의 주도 하에 결성된 <혁명적 공화주의여성시민협회>는 남성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하고 여성을 배제한 것에 항의했다. 그러나 새롭게 권력을 잡은 자코뱅은 자연적인 성적 분업이 사회의 조화를 위한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라고 본 루소의 관념에 입각하여 1793년 이런 클럽들을 폐쇄하고 여성의 정치활동을 금했다. 또한 나폴레옹은 1804년 새로운 민법을 제정하여 여성의 지위와 관련해 혁명기에 얻어진 입법적 성과를 부정하고 가족 내 가부장적 권력을 재확립, 남편의 보호를 대가로 남편에 대한 아내의 복종의 의무화했고, 결혼한 여성은 재산권이나 인격권 모두를 박탈당하도록 했다(권현정; 7~77)

2) 180~1840년대에 들어와 푸리에주의, 생시몽주의, 오엔주의자 등 유토피아 사회주의자들은 노동권과 여성권의 적극적 결합을 주장했고, 특히 푸리에나 앙팡탱은 가족의 해체와 여성의 자유결합을 주장하기도 했지만(그러나 여타의 생시몽주의자들은 당시 급증하던 실업/저임금/미혼모/출산통제의 어려움 때문에 성적 급진주의를 기각하고 그대신 여성의 성적해방을 경제적-법적-지적 해방과 연결시킴), 1848년 혁명 초기에 여성 노동권을 인정했다가 6월 제헌의회는 여성의 정치활동을 금지한다. 1849년 드루앵이 의회 입후보를 위해 민주사회당에 도움을 청했을 때 당의 주도적 논객이던 프루동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고, 여성노동권을 부정하는 프루동주의는 프랑스 노동자운동을 지배했고, 1866년 제1인터내셔널에서도 일반적으로 공유되었다. 이에 반대하여 레오와 미셀 같은 급진 공화주의 및 사회주의 여성들은 1869년에 여성의 시민권-중등 및 고등 교육기회-노동권-동일임금을 요구하는 <여성권협회>를 결성, 1871년 파리코뮌에서도 여성 노동의 재조직화를 시급한 요구로 제출했고, 사회주의 여성들 역시 <파리방어를 위한 여성연합>을 조직하여 여성시민으로서 코뮌의 정치활동 참여를 요구했지만, 코뮌은 이를 기각했다(권현정; 100~102쪽).

3) 1818년 <제1차전러시아여성노동자농민대회>에서 콜론타이는 가족의 미래를 다루는 중요한 연설(이후 <공산주의와 가족>이란 팜플렛으로 출판)에서 개별적 가사노동의 철폐와 자녀양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요구했고, 이중적 도덕기준과 성매매에 대한 투쟁, 이혼의 권리를 선언했지만, 1921년 신경제정책의 도입은 여성을 다시 가정으로 돌려보내며 부르주아 가족관념의 복귀를 허용했다. 일반적으로 볼셰비키 지도자들에게 콜론타이가 주장한 자유결합

과 동지적 사랑은 공동체적 유대의 원리라기보다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원리로 이해되었다. 1919년 레닌은 ‘가족의 사멸’이 당 강령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콜론타이의 제안에 명시적으로 반대했고, 부하린과 트로츠키 역시 콜론타이를 비판했다. 1926년 가족법 논쟁은 가족구조 변혁을 위한 마지막 계기였지만, 여기서도 가난한 여성노동자들이나 임시연인은 보호에서 제외되었다.(이미경; 131~140쪽)

이렇게 프랑스 혁명에서부터 러시아 혁명에 이르기까지 긴 기간 동안 노동해방(노동권)과 여성해방(여성권)을 결합 시키고자 했던 여성혁명가들의 반복적인 시도들이 남성 혁명가들에 의해 번번히 기각되어 왔던 역사의 이면에도 몇몇 예외가 존재한다. 엥겔스와 아우구스트 베벨이 그들이다. 공-사 분할 이데올로기에 의거하여 여성 노동권에 반대한 프루동을 비판하면서 베벨은 『여성과 사회주의』(1878)에서 맑스와 마찬가지로 여성의 노동권을 옹호했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가사와 양육의 사회화를 주장했다. 엥겔스는 『가족, 사적 소유, 국가의 기원』(1884)에서 여성의 종속과 가족 형태가 생물학적 차이가 아니라 경제적 토대에 기반하여 역사적으로 변화해 온 것으로 설명하면서 미래사회에서 가족이 변혁될 수 있다는 전망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들은 여성의 재생산 권리에 대한 초기 사회주의 여성들의 인식을 수용하지는 못했다(김숙경; 40~41). 맑스와 엥겔스 등 대부분의 사회주의자들은 부를 재분배하기만 하면 노동자계급은 원하는 만큼 많은 아이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출산통제에 반대했기 때문이다(김숙경; 43). 이런 판단은 이들이 생각했던 여성권이 여성 노동권과 양육의 사회화에 한정되고, 출산과 성욕에 대한 여성의 자율적 통제에 대한 이해로까지 확대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이런 점에서 사회변혁과 페미니즘을 통합적으로 사고하고자 하는 21세기의 페미니즘의 여러 조류들에서 여성권의 문제를 여성 노동권이나 양육의 사회화에 한정하지 않고, 여성 성욕의 자율성이라는 관점으로 확대하여 사고하는 관점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앤 퍼거슨은 ‘다중체계 사회주의 페미니즘’이라는 입장에서 인간 지배체계를 계급, 인종/민족, 섹스/젠더의 상호교차성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할 것을 제안한다. 그런데 다중체계 사회주의 페미니즘 이론이 다른 이론과 구별되는 지점은 성/애정 생산이라는 개념이다. 양육체계와 섹슈얼리티와 애정의 사회적 조직화는 물질적 욕구만큼이나 기본적인 것이다. 인간의 기본적인 물질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이라는 맑스/엥겔스의 생산 개념을 자연의 변형만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생산과 재생산(역사적 양육 및 성체계를 통한 사람의 생산과 변형)까지 포함하도록 확장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부르주아 가족만이 아니라 귀족과 농민 가족 등 다른 형태의 가부장적 성/애정 생산에 대한 비교연구를 통해 대안사회의 새로운 가족형태를 구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성/애정 생산에 대한 연구가 물질적 생산양식에 대한 연구와 ‘상호교차’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대의 페미니즘 연구는 무엇보다도 과거 엥겔스의 『가족의 기원』, 콜론타이의 ‘자유결합’ 과 사랑의 기술/우정의 학교와 같은 러시아 혁명기의 성/애정 생산의 대안적 모형에 대한 연구와 결합될 수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이런 결합을 <넓은 의미의 사회주의 페미니즘>이라고 명명하는 낸시 홀스트롬은 70년대의 반맑스주의적 페미니즘이 오해했듯이 맑스주의가 생산관계에 초점을 맞추면서 가족 내부의 노동을 등한시 했다고 비판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재비판한다. 맑스와엥겔스가 가족과 사회 일반의 성적 평등뿐만 아니라 성적 분업의 종식까지 주장했던 유토피아 사회주의자들의 열망을 공유했고, 온갖 사회적 위계의 자연주의적 정당화에 대한 비판을 심화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맑스/엥겔스 자신은 물론 이후 맑스주의에서도 ‘개

인적 관계와 정서적 차원으로 확대된 사회이론'을 충분히 발전시키지 않았다는 점에서, 맑스주의의 기본적인 이론에 중대한 수정을 가할 필요는 없지만 보완할 필요는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관점에서 엥겔스의 『가족, 사유재산, 그리고 국가의 기원』(1884)의 핵심 주장을 발췌해 보자.

## 4.2. 엥겔스의 여성해방론

엥겔스는 고대 로마인에게 '가족' (familia)이라는 말은 원래는 부부나 그 자녀들을 가리키는 것도 아니고 다만 노예만을 가리키는 것이었다고 한다. 그에 의하면 이는 씨족 시대의 모권이 전복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63) (혼인에는 인류 발전의 3개의 주요 단계에 상응하는 3개의 주요 형태가 있었다. 야만 시대에는 군혼, 미개시대에는 대우혼, 문명시대에는 간통과 매음으로 보충되는 일부일처제가 있었다. 미개의 높은 단계에서는 대우혼과 일부일처제 사이에 여자 노예에 대한 남자의 지배와 일부다처제가 있었다)(82)

모권의 전복은 '여성의 세계사적 패배'였다. 남자가 가정에서도 지배권을 장악하게 되어 여자는 자기의 존귀한 지위를 상실하고 노비로, 남자의 정욕의 노예로, 순전한 산아도구로 전락하였다. 여성의 이와 같은 굴욕적인 처지는 특히 영웅시대의, 더욱이 고전시대의 그리이스인들 사이에서 노골적이었는데...이리하여 확립된 남성독재의 최초의 산물은 당시 발생하고 있던 가부장제 가족이라는 중간형태이다. 그 주된 특징은 후에 논의하게 될 일부다처제가 아니라 다음과 같은 것이다. 일정한 수의 자유민과 비자유민이 토지를 소유하고 가족군을 돌보기 위해서 가장의 권력 하에 가족으로 조직되는 것이다(가족의 기원, 63~64)

엥겔스는 이런 가족형태가 <대우혼>으로부터 <일부일처제>로의 이행을 나타내준다고 규정하며, 막심 코발레프스키의 발견에 의거하여 <가부장적 세대공동체>라고 명명한다. 한다. 게르만인들 사이에서도 살림살이의 단위가 최초에는 현대적 의미의 개별 가족이 아니라 '세대공동체'이며, 이것은 여러 세대의 가족들로 구성되어 있고, 더구나 비자유민을 포괄하는 경우도 허다한데, 로마의 가족도 이런 유형에 속한다고 한다(65~66). 그리고 일부다처제는 노예제의 산물로서 특수한 지위를 가진 개인들만 취할 수 있었던 역사의 사치품이고, 인도나 티벳에서는 모권지배 시대에 있었던 과거의 <군혼>의 특수한 형태로서 남자는 일부다처제, 여자는 일처다부제 생활을 동시에 하는 경우가 있었고 일종의 역사의 사치품으로서만 존재할 수 있었다고 한다(68). 반면 일부일처제 가족은 남편의 지배에 따른 것으로서 대우혼에서와는 달리 혼인유대가 매우 강하면서 남편에게만 이 유대를 일방적으로 끊을 수 있고 정조를 지키지 않을 권리를 적어도 관습상 보장받으며, 여자가 과거의 성생활의 습관을 잊지 못해 내색을 보이면 과거보다 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69).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와 같이 여자에게 불리한 단혼이 양성 간의 합의에 의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성에 의한 다른 성의 압제로서 과거 그 어느 시대에서도 알지 못했던 양성 간의 모순의 선언으로서 나타났다는 것이다. 엥겔스는 일부일처제가 자연적 조건이 아니라 경제적 조건에 기초한, 즉 원시적-자연발생적 공동소유에 대한 사적 소유의 승리를 기초로 한 최초의 가족형태였다는 것이다. 그래서 엥겔스는 "최초의 분업은 자식을 낳기 위한 남녀 간의 분

업이었다”는 맑스의 주장에 다음과 같이 덧붙인다. “최초의 계급적 압박은 남성에 의한 여성의 압제와 일치한다. 단혼은 역사상 일대 진보이기는 하였으나, 동시에 그것은 - 노예제 및 사유재산과 함께 - 현재까지도 그렇지만, 온갖 진보가 동시에 상대적 퇴보이기도 하며, 한 사람의 행복과 발전이 다른 사람의 고난과 억압을 대가로 하여 실현되는 그런 시대를 열어 놓는다. 단혼은 문명사회의 세포로서, 지금은 이것을 바탕으로 문명 사회 내부에서 완전히 발전한 대립과 모순의 본질을 연구할 수 있다”(73) 엥겔스는 이 모순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기왕의 비교적 자유로운 성교는, 대우혼이 승리하고 나아가 단혼이 승리한 경우에도 결코 소멸하지 않았다…… 단혼은 가족 위에 드리워진 검은 그림자처럼 문명시대에도 인간을 따라 다닌다(모어건), 모어건이 말하는 단혼이라는 것은 ‘단혼과 병존하는’ 남자와 미혼 여자의 야합을 말한다…… 단혼은 직접적으로는 군혼에서 유래하며 여자가 정조의 권리를 사기 위하여 다른 남자에게 몸을 바치는 의식에서 유래한 것이다. 돈을 위하여 몸을 허락하는 것은 최초에는 종교적 행위였다. 그것은 사랑의 여신의 신전에서 진행되었고, 그 돈은 처음에는 신전의 재산으로 되었다…… 단 남자에게 몸을 허락하는 것은 원래는 모든 여자의 의무였으나, 후에는 무녀들만이 다른 모든 여자를 대신하여 수행하였다. 다른 종족들의 경우 단혼은 결혼 전에 처녀에게 허락된 성적 자유에서 유래되었다. 따라서 이것 역시 군혼의 유물이다. 다만 다른 길을 따라 오늘날까지 전해 내려왔을 따름이다…… 군혼이 문명에 물려준 이 유산은, 문명이 생산한 모든 것이 양면적이고 이분법적이며 모순을 가지고 있듯이, 그것도 역시 양면성을 띠고 있다. 즉 그 한 측면은 일부일처제이고, 다른 한 측면은 단혼과 그 극단적 형태인 매음제도이다…… 이와 함께 일부일처제 자체 내부에서 제2의 모순이 전개된다. 단혼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즐겁게 하고 있는 남편의 곁에는 버림받은 아내가 있다…… 단혼 및 단혼과 함께 간통도 불가피한 사회현상으로 되었다. 이것은 금지되고 가혹하게 처벌되기는 하였으나 근절되지는 않고 있다…… 이것이 3,000 년에 걸친 단혼의 최후의 결실이다…… 남편의 전체적 지배로 말미암아 이 가족형태에서 남녀 간의 적대감이 명백해진다…… 이 개별가족이란 문명기 초기에 계급으로 분열된 이래, 사회로서는 해결할 수도 없고 극복할 수도 없었던 사회적 대립과 모순의 축소판에 불과하다.(73~75)

엥겔스는 현대에 이르러 프롤레타리아의 경우에는 고전적 일부일처제의 모든 기초가 제거되어 있기 때문에, 또 대공업으로 인해 여자가 가정에서 노동시장과 공장으로 나와 종종 가족의 부양자로 됨으로써, 프롤레타리아 가정에서 남편의 지배는 그 마지막 잔재마저 존재할 여지가 없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이미 엄밀한 의미에서의 일부일처제적 가족이 아니므로, 그 영원한 동반자인 단혼이나 간통도 여기서는 전혀 보잘것없는 역할을 하며, 아내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엥겔스는 대공업이 여성에게 사회적 생산으로의 길을 다시 열어주었지만(과거의 모권 시대에 여성이 집안 살림을 맡아보는 것은 남편이 식료품을 획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회적으로 필요한 사회적 활동이었다), 그가 사회적 노동에 참가하여 독립적인 별이를 하려 하면 가정 살림을 못하게 되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사회적 활동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여성의 지위는 공장에 진출하건, 의사 및 변호사를 막론하고 어느 직업 분야에 진출하건 마찬가지가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므로 여성해방의 첫 번째 조건은 여성 전체가 사회적 노동에 복귀하는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또한 개별 가족이 사회의 경제적 단위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명백해질 것이라는 것이다(81~82). 그런데 엥겔스는 일부일처제를 비판하는 데에서 다음과



같이 한 걸음 더 나아간다.

다가올 사회적 변혁은 적어도 상속할 수 있는 항구적인 재화 - 생산수단 - 중 한없이 많은 부분을 사회적 소유로 만들기 때문에 누구를 상속자로 할 것인가를 가지고 신경 쓸 필요는 최소한도로 감소할 것이다. 그러나 일부일처제는……소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반대로 그 때에야 비로소 제대로 실현될 것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통계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일정한 수의 여자가 돈을 받고 몸을 팔 필요도 소멸할 것이기 때문이다. 매음은 소멸될 것이나 일부일처제는 붕괴되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남자에 대해서도 현실로 될 것이다. 그리하여 남자의 지위는 상당히 변할 것이다. 그러나 여자의 지위, 즉 '모든' 여자의 지위에도 역시 심한 변동이 일어날 것이다. 생산수단이 공동소유로 됨으로써 개별 가족은 이제 사회의 경제적 단위로는 되지 않을 것이다. 사사로운 집안 살림은 사회적 산업으로 되고, 아이들을 돌보고 교육시키는 것은 공공사업으로 될 것이다……그리하여 오늘날 처녀가 마음 놓고 사랑하는 남자에게 몸을 맡길 수 없게 만드는 가장 본질적인 사회적 계기 - 도덕적 및 경제적 - 인 그 '결과' 에 대해서 처녀들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83~84).

완전히 자유로운 결혼은 자본주의적 생산과 이에 기인하는 소유관계가 지양됨으로써, 오늘날 아직도 배우자의 선택에 아주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그 모든 부차적인 경제적 고려가 제거되는 때에야 비로소 일반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 그때에는 이미 상호간의 애정 이외에 다른 아무런 동기도 없게 될 것이다.(90)

새로 나타나게 될 것은 어떤 것들인가? 그것은 남녀의 새로운 세대가 자라나서, 남자는 일생을 두고 금전이나 기타 사회적 권력 수단으로 여자를 사는 일이 없게 되고, 여자는 진정한 사랑 이외에는 다른 어떠한 동기로도 결코 남자에게 몸을 맡기지 않게 되며, 사랑하는 사람에게 경제적 결과에 대한 두려움으로 몸을 허락해 버리는 일을 거부하게 될 때 확정될 것이다……그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스스로 알 것이며, 또 이에 따라서 각인의 행동에 관한 여론을 스스로 조성할 것이다. 오직 그뿐인 것이다.(91)

엔겔스는 야만에서 미개를 거쳐 문명 단계로의 전환 과정에서 가족형태가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추적하면서 『가족의 기원』을 다음과 같이 마무리하고 있다. 공공연한(고대의 노예제) 그리고 최근에는 은폐된 형태의 노예제(농노제와 임금노동제)를 동반자로 갖는 3대 시기를 거친 문명은 다음과 같은 5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 (1) 화폐와 이자와 고리대금업-생산자들의 중개계급으로서의 상인의 출현-토지의 사유 및 저당권의 발생-지배적 생산형태로서의 노예노동의 출현으로 특징 지어지는 상품생산, (2) 여자에 대한 남자의 지배라는 일부일처제이며 사회의 경제적 단위로서의 개별가족이라는 새로운 가족형태, (3) 계급지배의 억압적 기관으로서의 국가, (4) 사회적 분업의 기초로서 도시와 농촌의 대립의 고착, (5) 소유주의 재산을 죽은 후에 처분할 수 있게 해주는 유언제의 도입이라는 특징을 갖는다고.(197~198) 그리고 이런 특징들은 가진 문명의 발전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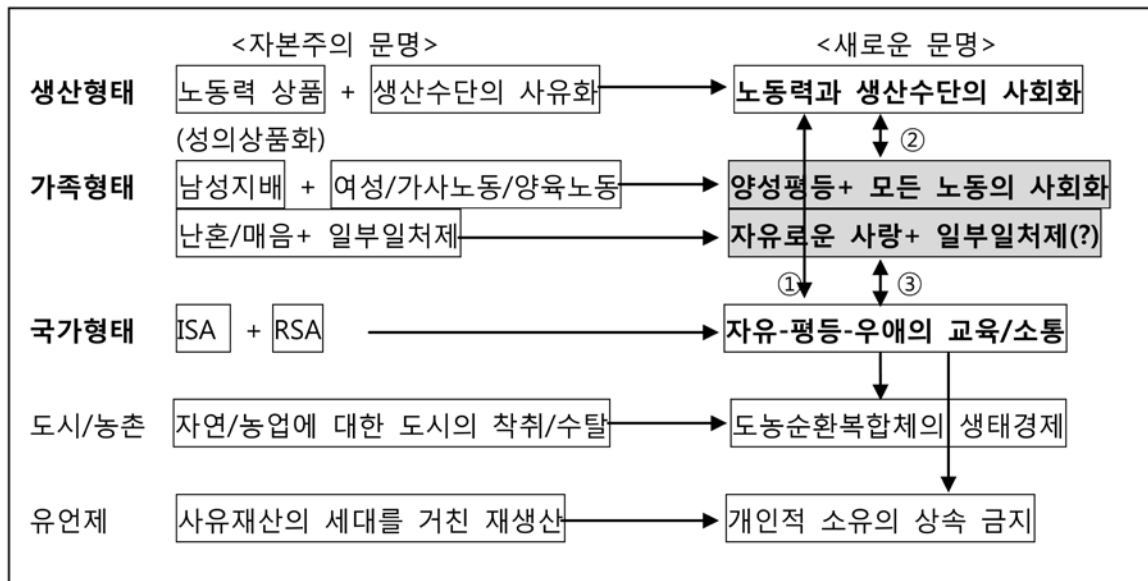
이런 제도에 입각한 문명은 고대의 씨족사회로는 도저히 해낼 수 없는 일을 해냈다. 그러나 문명이 그렇게 한 것은 문명이 인간의 가장 추악한 충동과 정욕을 발동시키고, 인간의 다른 모든 소질을 희생시키면서 그것을 발전시켰기 때문이다. 야비한 탐욕이 문명의 첫날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그 추동력이었다. 첫째도 재부요, 둘째도 재부요, 셋째도 재부, 그것도 사회적 재부가 아니라 탐욕적인 개개인의 재부, 이것이야말로 문명의 유일한 결정적인 목표였다. 그런데 이 사회의 태내에서 과학이 더욱 더 발전하고 예술의 개화기가 반복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근대적 재부 축적에 성과를 가져다 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198~199)

이런 평가 위에서 엥겔스는 원래 푸리에의 '빛나는 문명비판' 을 인용하여 결론을 맺으려 했던 계획을 시간이 없어 실행하지 못한다는 아쉬움을 피력하면서 그 대신 모어건의 다음과 같은 주장으로 결론을 대신하고 있다.

진보가 어디까지나 장래에도 법칙이라면, 단순히 재부만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종국적인 사명은 아니다. 문명의 개시 이래 지나간 시간이라는 것은 인류가 이미 살아온 시간의 보잘것없는 한 토막이며, 또 인류가 앞으로 살아야 할 시간의 보잘것없는 한 토막에 불과하다. 재부를 둘도 없는 궁극적인 목표로 하는 그런 역사 과정의 결말로서 사회의 멸망이 우리 앞에 다가 오고 있다. 왜냐하면 그런 역사 과정은 자기 자체를 해소할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치에서의 민주주의, 사회 내에서의 우애, 권리와 특권의 평등, 전반적 교육 등은 경험, 이성 및 과학이 항상 지향하는 보다 높은 다음 단계의 사회를 창조할 것이다. 그것은 고대 씨족이 지닌 자유, 평등, 우애의 보다 고양된 형태의 부활일 것이다. (모오건, 고대사회, 552쪽)

엥겔스나 모어건이 갈구하는, 현재까지의 문명이 붕괴하고 군혼을 특징으로 하던 고대씨족이 지닌 자유, 평등, 우애의 보다 고양된 형태의 부활(과 그에 따라 추악한 물욕과 정욕 이외에 억압되었던 인간의 모든 소질의 부활)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결국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종합해 볼 수 있다 (1) 여성해방의 첫 번째 조건은 여성 전체가 사회적 노동에 복귀하는 것이며, (2) 그러기 위해서는 생산수단이 공동소유가 됨으로써 개별 가족이 사회의 경제적 단위가 되지 않아야 한다. (3) 이럴 경우 사사로운 집안 살림은 사회적 산업으로 되고, 아이들을 돌보고 교육시키는 것은 공공사업으로 될 것이다. 배우자의 선택은 오직 상호간의 애정 이외에 다른 아무런 동기도 없게 될 것이다. (4) 이와 같은 남성에 의한 여성 지배의 종식은 결국 문명의 나머지 4가지 특징(노동에 대한 상품과 자본의 지배, 계급지배의 수단으로서의 억압적 국가기관, 농촌에 대한 도시의 지배, 소유재산의 자유로운 처분권)의 소멸을 동시에 함축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서로 맞물리는 조건들은 엥겔스가 현대의 사회주의 페미니즘이 주장하고 있는 계급적 지배와 성적 지배의 상호교차성, 혹은 상호의존성 문제를 이미 상세하고도 풍부하게 해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준다. 문명의 5가지 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3가지 요소, 즉 생산형태-가족형태-국가형태 간의 상호의존성을 보다 분명하게 하기 위해 다이어그램을 그려 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3: 자본주의 문명에서 새로운 문명으로의 전환 구도〉



이 다이어그램은 생산형태-가족형태-국가형태는 서로가 서로를 규정하면서 전제하는 형태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변화만으로는 다른 형태의 변화가 완수될 수 없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이 중에서 ①은 전통적인 의미에서 억압적 국가장치의 폐지와 주요 생산수단의 사회화라는 고전적인 의미에서의 정치경제적인 혁명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면, ②는 사회적 생산의 모든 부문에서 양성평등의 실현이자 이를 위해 전제되어야 하는 가사노동/육아노동의 전면적 사회화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20세기의 자본주의는 19세기에서와는 달리 국가의 복지기능의 향상과 여성의 사회적 진출 증대로 인해 ①과 ②의 일정 부분이 - 지역별로 불균등하고 모순적인 방식으로 - 해결되어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③의 문제는 19세기 수준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고, 소비문화와 성의 상품화를 매개로 더욱 악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성의 상품화) 이런 점에서 가족형태의 변혁에 관한 이론과 실천은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지체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자본주의 문명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페미니즘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렇다면 가족형태의 변혁은 어떤 형태를 취할 수 있을까? 엥겔스의 논의에서는 3 가지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다. (1) 오직 진정한 사랑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자유결합 (2) 남자에게는 난혼/이혼이 자유롭게 허용되고 여자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형식적이며 매음제를 보충물로 가지는 일부일처제 대신 남녀 모두에게 권리와 의무가 허용되는 실질적인 일부일처제와 난혼/매음의 소멸, (3) 원시적 공산주의와 군혼에 기초했던 고대씨족이 지녔던 자유-평등-우애의 보다 고양된 부활이 그것이다.

사실 이 세 가지 가능성은 분리된 것이라기보다는 앞서 언급한 5가지 형태들의 변화와 서로 변증법적으로 맞물려 있다. 가령 가사노동과 양육노동을 포함한 모든 노동과 생산수단의 사회화 과정은 혈연을 중심으로 한 모성과 부성의 형태를 약화시킬 수밖에 없고, 핵가족의 의미도 대대적으로 변화시킬 이다. 그럴 경우 일부일처제는 어떤 형태일 것인지를 지금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렵다. 엥겔스가 말한 것처럼 미래의 세대는 스스로 양성의 결합과 가족형태를 스스로 결정하겠지만, 오직 사랑에 의한 자유결합이 일반화될 것인데 반해 핵가족적인 혈연관계는 상당히 완화될 것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사랑에 의한 자유결합이 과연 군혼 시대의 고대 씨족이 지녔던 자유-평등-우애의 보다

과 질투심을 극복하고 어떻게 자유-평등-우애의 가치의 동시적 실현과 연결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바뀌볼 수 있을 것이다.

#### 4.2. 콜론타이의 자유결합/사랑의학교 프로젝트의 21세기적 함의

러시아 혁명기의 여성 혁명가인 엘락산드라 콜론타이는 마이젤-헤스를 차용하여 <사랑의학교>를 통해 <사랑의 기술>을 배움으로써 이제까지의 문명이 배태시켜온 소유욕과 질투심을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날개 없는 에로스'와 '날개 달린 에로스'를 구별하면서, 그 자체가 목적이므로 목숨을 거는 전자의 경우와 달리, 후자는 전자를 필리아(동지애)적 사랑으로 승화하여 소유욕과 질투심을 극복하고 공동체적인 결합이 지속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콜론타이는 이런 형태의 사랑의 공동체를 <보편가족>이라고 부르는 데, 윤소영은 이를 제4의 공산주의에서 요구되는 새로운 시빌리테라고 할 수 있다고 본다. 자유결합이 제대로 실현되려면, 사회경제적인 조건이 마련되고, 사랑의 학교에서 사랑의 기술을 배워야 하고, 또한 동지애적인 우정이 형성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새로운 시빌리테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새로운 성적 억압이라고 비판하면서 빌헬름 라이히는 사드나 푸리에의 성적 초자유주의를 체계화했고, '68 학생혁명 당시 마르크제 역시 라이히를 계승하여 초자유주의적인 성정치를 주장한다. 그리고 급진적 페미니즘은 다시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성폭력에 대한 비판을 여성운동의 핵심과제로 격상시킨다(윤소영, 역사적마르크수주의, 206~209).

그러나 1970년대 급진적 페미니즘에 의한 성정치의 문제설정과 성폭력 비판/반대운동은 내부 분열과 보수주의의 반격, 그리고 국가기구의 보호나 법치주의로의 폐쇄와 같은 문제들로 잠철되면서 사회변혁과 여성권의 결합이나 콜론타이가 제시했던 자유결합과 같은 여성권의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지평을 상실하고 말았다. 이런 문제상황을 타결하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해결책에 의존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여성의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애정관계/성적 욕구에 대한 새로운 탐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정인정: 203). 그리고 이런 탐구는 다시금 엥겔스와 콜론타이가 질문했던 문제를 재조명해야 할 필요를 제기한다. 그런데 엥겔스가 열어 놓은, 3 가지 가능성은 20세기에 들어와 상호연결되기 보다는 서로 상충될 가능성도 충분히 안고 있다. 다시 말해서 (1) 새로운 사회의 가족제도가 실질적인 일부일처제의 단혼으로 연속적인 발전이 가능할 것인지 (2) 아니면 새로운 형태의 군혼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과도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다. 엥겔스가 말했듯이 이는 결국 생산형태와 국가 형태의 변혁과 더불어 가족형태의 변혁을 수행할 미래의 세대가 스스로 결정할 문제일 것이다. 여기서, 엥겔스의 말대로 양성평등적인 의미에서 자유결합에 의한 일부일처제가 아직 실현된 바 없으므로 일단 (1)이 먼저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고, (1)의 불완전함이 입증되고 다른 사회적 변화와 모순을 일으킬 때 (2)의 가능성이 모색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정도로 마무리해두도록 하자. 또 이런 가정 하에서 콜론타이가 제안한 에로스적 사랑에서 필리아적 사랑으로의 승화와 관련된 <사랑의 기술>을 가르칠 <사랑의 학교>라는 새로운 문화교육적 과제가 새로운 사회를 창조할 새로운 주체형성의 핵심 과제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44 요약하자면, 엥겔스-콜론타이의 문제제기의 핵심은 노동해방이 진정한 의미를 가지려면, 노동해방과 여성해방이 결합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1) 남성들에게만 허용되어 온 시민권/투표권과 노동권이 여성들에게도 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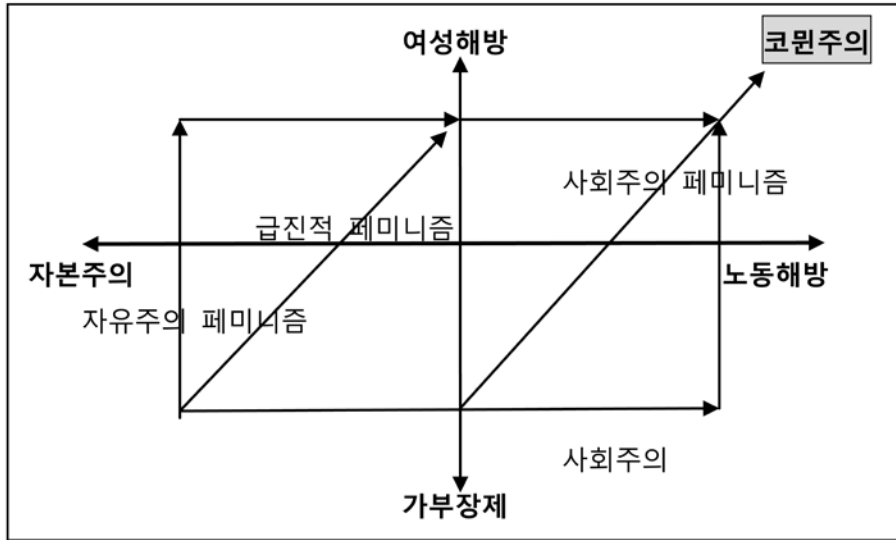
등하게 허용되어야 하며, (2) 여성들에게 강제로 부가되어 왔던 가사노동/양육노동의 사회화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며, (3) 여성 여성들에게 거부되었던 출산통제권과 성욕/애정의 자율성이 전격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정치, 경제, 가족 생활 모든 측면에서의 여성권의 확장은 허공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정신적 차원에서 사회생활의 재조직화를 동반하는 것이기에, 현재까지 여성권의 다각적인 제한으로 이득을 보았던 남성들의 특권에 대한 제한과 양보를 동시에 의미하는 것이라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프랑스 혁명에서 러시아혁명에 이르는 긴 기간 동안 남성(혁명가)들은 (1)~(3)에 걸친 여성권 요구를 줄곧 기각해 왔었는데, 이를 허용하기 위해 전제되어야 할 남성(혁명가/노동자)들의 자기 제약/희생과 여성들과의 공동노력 - 남녀평등 속에서 성적 차이를 승인하며 공생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주체양식의 형성을 위해서는 상당 기간의 상호교육과정이 요구될 것이다- 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지만 푸리에가 주장했듯이 -인류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의 자유와 평등의 진전정도가 사회진보의 척도라는 점에 동의한다면, 경제의 재조직화만이 아니라 가족형태의 재조직화와 여성의 출산통제권과 성욕의 자율권을 포함하는 사회 생활 전반의 재조직화(문명의 변혁)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자본주의의 극복만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주요한 기둥으로 포함되어 있는- 오래된 가부장제의 동시적인 극복이 요구된다는 사실을 외면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자본주의의 극복이 생산양식/법제도의 변혁만이 아니라 주체양식의 변혁을 포함하듯이 가부장제의 극복역시 가족형태/법제도의 변혁만이 아니라 주체양식의 변혁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지난 시기의 혁명은 바로 이런 점에서 자본주의/가부장제 극복을 위한 새로운 주체양식의 발명에 실패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본다.

〈표-5: 자본주의-가부장제 변혁의 필요충분조건〉

	자본주의 극복	가부장제 극복
구조/제도의 변혁	1(생산형태/국가형태)	2(가족형태)
주체양식의 변혁	3(individuality)	4(sex/sexuality)

이런 맥락에서 보자면 기존의 맑스주의는 1에, 아나키즘은 3에 치중해 온 반면, 자유주의 페미니즘은 2에, 급진적 페미니즘은 4에 치중해 왔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자본주의와 가부장제가 내재적으로 결합되어 작동하고 있는 - 가부장제는 여성에게 저임금노동/가사노동의 이중부담을 주어 노동시장 통제를 가능하게 함과 더불어 성의 상품화/이중도덕을 통한 핵가족제의 존속을 통해 자본주의의 지속가능성에 기여하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자본주의에 선행하면서도 자본주의에 핵심적인 초석으로 포함되어 있다 - 역사적 현실을 변화시키려면, 과거 유토피아 사회주의 페미니즘의 전통과 이를 계승한 엥겔스-콜론타이의 문제설정이 보여주듯이 1+2+3+4의 결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문제설정의 확장 경로를 다음과 같이 좌표화 해볼 수 있을 것이다.



## 5. 나가며

이런 복수적 문제설정의 결합은 어떤 상관관계를 이룰 수 있을까? 일찍이 실비아 월비는 『가부장제 이론화하기』(1990)라는 책에서 자유주의 페미니즘, 급진적 페미니즘, 맑스주의 페미니즘, 이중체계론의 문제점을 검토하면서 이들 이론들이 초점을 맞추었던 각 부분들을 모두 통합하여, 임금노동, 가사, 성성(sexuality), 문화, 폭력, 국가 모두를 포괄하며, 자본주의의 형태 변화와 더불어 함께 변화하는 가부장제의 정도와 형태를 추적하는 방식으로 확장된 형태의 이중체계론을 제안한 바 있다. 월비는 영국에서 가부장제의 형태가 사적 가부장제에서 공적 가부장제로 변화했다고 보는 데 6 가지 요소의 위상 변화로 그 형태를 변화를 다음과 같이 표로 집약한 바 있다(월비: 47쪽).

〈표-6: 사적 가부장제와 공적 가부장제의 비교표〉

가부장제의 형태	사적 가부장제	공적 가부장제
지배적 구조	가구 생산	고용/국가
더 큰 가부장적 구조들	고용	가구생산
	국가	성성
	성성	폭력
	폭력	문화
	문화	
시기	19세기	20세기
전유 방식	개인적	집합적
가부장적 전략	배제	분리

46 그런데, 최근 고정갑희는 월비의 이론이 성이론을 아직 부분적으로만 이론화한 점에 문제가 있으므로 이런 부분성을 극복하려면 계급에 버금가는 성을 이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면서, 계급론에 성을 첨가하는 대신 성이론에 계급

론을 첨가하는 방식으로 성이론을 전면화하자고 제안하고 있다(고정갑희; 42~47). 이런 관점에서 그녀가 제안하는 성이론은 성관계, 성노동, 성장치라는 개념축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성관계는 가부장체제의 토대이고, 성노동은 가부장적 성관계를 유지하는 노동이며, 성장치는 가부장체제를 유지하는 물질적/이데올로기적 장치이고, 이 각각은 비가부장적이거나 반가부장적인 성관계, 성노동, 성장치로 바뀔 수 있고, 그렇게 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으며 그렇게 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51~58). 아래의 표는 이 각 구성요소를 요약하여 필자가 도표화해 본 것이다.

〈표-7: 성이론의 체계 구성표〉

대범주	중범주	내용
성관계	성적 생산관계	인간생산, 쾌락생산, 상품생산
	성적 거래관계	결혼과 가족제도(인간생산), 결혼과 매매춘(쾌락생산), 가계 생산과 상품생산(상품생산)
	성적 권력관계	남성지배권력(인간생산), 남성과 이성애자(쾌락생산), 자본가와 남성(상품생산)
	성적 계급관계	소유계급남성과 출산계급여성(인간생산), 소비계급구매자남성과 생산계급성노동자여성(쾌락생산), 남성자본가계급과 여성노동자계급(상품생산)
성노동	성관계를 유지하는 노동	모성과 아내노동(인간생산), 아내노동과 매춘노동(쾌락생산), 성별노동으로서의 가사노동과 모성과 아내노동의 연결(상품생산)
성장치	이데올로기적-강제적 장치	성적 생산관계를 유지-재생산하는 장치들(국가, 신체, 가족, 시장, 종교, 교육, 미디어, 서사)

월비의 포괄적이지만 나열적인 가부장제이론에 비하면 고정갑희의 성이론은 포괄적이면서도 체계적이고, 이중체제를 넘어서서 맑스주의적 자본주의 비판을 하나의 부분집합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이런 체계를 근거로 그녀는 가부장적 세계체계론, 글로벌 페미니즘이론을 제안하고 있다. 분명히 맑스의 자본주의 비판이론은 M-C-M' 자본순환의 흐름에 의해 인간생산과 쾌락생산을 상품생산에 종속/환원시켜온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이었기 때문에, 인간생산과 쾌락생산을 노동력 재생산이라는 하위범주로 다루어왔고, 이 때문에 인간생산과 쾌락생산이 지닌 비환원주의적인 특성을 규명하는 데에서는 한계가 있었다. 맑스/엔겔스의 『독일 이데올로기』나 엔겔스의 『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은 어떤 역사적 과정을 거쳐서 인간생산/쾌락생산이 국가와 자본주의적 사유재산과 상품생산의 프레임 속으로 종속/환원되어 왔는가를 규명하기는 했지만, 인간생산/쾌락생산이 가부장적-자본주의적 권력과 상품생산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 어떤 절차와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인지를 해명하기 위한 대안적인 프레임을 구성하지는 못했다. 앞에서 간략히 검토한 바와 같이 이런 이론적 공백은 맑스주의적 이론과 실천에서 노동해방과 여성해방의 결합에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이런 맥락에서 고정갑희의 새로운 성이론은 자본주의와 가부장제의 동시적 비판과 양자의 극복을 위한 대안적 프레임을 구성해 나가는데에 중요한 이론적 실마리를 제공한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가부장제를 포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성이론의 장점은 곧 단점일 수 있다. 그녀의 포괄적 가부장제 이론에서는 현대 자본주의가 차지하는 지배적인 위치가 부분집합으로만 설정되어 있어 자본주의 극복의 경로 설정이 모호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이전과 자본주의, 그리고 자본주의 이후의 성관계-성노동-성장치의 체계의 역사적 형태 변화가 함께 설명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작업의 성패는 맑스 이후 현재까지 자본주의 세계체계의 형성과 변화의 역사적 과정과 생태학적 변화과정을 다룬 역사지리적 생태과학의 연구성과와 엥겔스-콜론타이가 시도했던 여성해방이론을 어떻게 생산적으로 계승할 수 있는가의 여부와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 것이다 (끝)



## 참고문헌

### 국내문헌

1. 고정갑희, 성이론: 『성관계-성노동-성장치』, 도서출판 여이연, 2012.
2. 권현정, 「유토피아사회주의 페미니즘」, 『페미니즘 역사의 재구성: 가족과 성욕을 둘러싼 쟁점들』, 과천연구실 세미나 19, 공감, 2003
3. 김숙경, 「페미니즘의 역사: 개관」, 『페미니즘 역사의 재구성: 가족과 성욕을 둘러싼 쟁점들』, 과천연구실 세미나 19, 공감, 2003
4. 심광현(1), 「〈문화/과학〉 20년의 이론적 궤적에 대한 비판적 회고: 개혁과 혁명의 변증법적 리듬 분석을 중심으로」, 『문화/과학 70호』, 2012 여름호.
5. \_\_\_\_\_(2), 「맑스 변증법의 현대적 재해석: 칸트, 알튀세르, 벤야민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변증법』, 현대사상연구소, 2010.
6. 윤소영, 「역사적 마르크스주의: 이념과 운동」, 과천연구실세미나 22, 2004
7. 이미경, 「1세대 페미니즘」, 『페미니즘 역사의 재구성: 가족과 성욕을 둘러싼 쟁점들』, 과천연구실 세미나 19, 공감, 2003
8. 정인경, 「성폭력과 성적 차이의 페미니즘」, 『페미니즘 역사의 재구성: 가족과 성욕을 둘러싼 쟁점들』, 과천연구실 세미나 19, 공감, 2003

### 외국문헌

1. 데이비드 하비(1), 『희망의 공간: 세계화, 신체, 유토피아』, 최병두 외 옮김 (원전 초판 2000), 도서출판 한울, 초판 4쇄, 2007
2. \_\_\_\_\_(2), 「자본주의 하의 도시과정: 분석틀」(1981), 『자본주의 도시화와 도시계획』, 최병두-한지연 편역, 도서출판 한울, 1989)
3. 조반니 아리기(1), 『장기 20세기: 화폐, 권력, 그리고 우리 시대의 기원』, 백승욱 옮김, 그린비, 2008
4. \_\_\_\_\_(2), 『베이징의 아담 스미스』, 강진아 옮김, 길, 2009
5. 존 벨라미 포스터, 「자본주의와 생태: 모순의 성격」, 『역사적 자본주의 분석과 생태론』, 과천연구실 세미나 25, 공감, 2006
6. 제이슨 무어, 「생태위기와 세계사적 신진대사의 균열」, 『역사적 자본주의 분석과 생태론』, 과천연구실 세미나 25, 공감, 2006
7. 실비아 월비, 「가부장제 이론」, 유희정 옮김, 1996. 낸시 홀스트롬, 「여성의 본성에 관한 마르크스주의 이론」, 『페미니즘, 왼쪽 날개를 펴다』, 낸시 홀스트롬 엮음/유강은 옮김, 메이데이, 2012
9. 벨 프럼우드, 「생태정치론 논쟁과 자연의 정치학」, 『페미니즘, 왼쪽 날개를 펴다』, 낸시 홀스트롬 엮음/유강은 옮김, 메이데이, 2012
10. 프리드리히 엥겔스, 「가족의 기원: 루이스 H. 모어간 이론을 바탕으로」, 김대웅 옮김, 도서출판 아침, 1985
11. 하워드 오덤(2000), 『시스템 생태학 I·II』, 박석순·강대석 옮김, 아르케

# 가부장체제의 생산과 노동 비판: 자본주의적 생산과 노동 다시보기

고정갑희(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집행위원장, 한신대)

## 1. 생산양식, 생산관계 그리고 생산과 재생산: 자본주의와 가부장제 논쟁

자본주의와 가부장제에 대한 논의를 생산과 연결시켜 볼 때 마르크스주의가 생산관계를 자본과 노동의 관계로 본 것을 넘어 페미니즘에서는 생산의 논의가 진행되었다. 1970년대 이후의 페미니즘 논의는 생산양식과 생산관계를 제시하는 데까지 나아갔다. 이는 막스 베버가 가부장제를 아버지의 지배와 경제생산을 연결시켜 정의한 것에서 나아가, 자본주의적 생산양식과 생산관계와는 다른 생산양식과 생산관계를 제시하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 '산업적 생산양식' 이라면 가부장적 생산양식은 '가족적 생산양식' 일 수도 있다는 개념 제시와 남성과 여성이 임노동과 계급구조에 다르게 포섭되는 물질적 관계가 가족-가구체계에 있다고 제시하였다. 이는 자본주의와 가부장제를 각각 다른 생산양식과 생산관계의 형태로 본 것이다. 자본주의와 가부장제를 각각 다른 생산양식과 관계로 보지 않은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의 진영에서는 생산과 재생산을 연결하고, 재생산의 정의를 다르게 함으로써 기존의 경제학과 다른 선을 긋기도 하였다. 재생산을 재화생산의 반복이나 유통과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의 노동으로 연결시킨 것이다. 서구의 마르크스주의와 사회주의 페미니즘은 가부장제의 물질 토대와 이데올로기 논쟁을 여기까지 진행시켰다.

### 생산양식과 생산관계: 가부장제의 물질 토대와 이데올로기

50 가부장제에 대한 논의는 서구에서 제2의 물결이 시작되는 1968이후 본격적으로 이론화되기 시작하였다. 급진적 페미니스트들이 가부장제를 이론화하기 시작하였고, 마르크스주의/사회주의 페미니스트들이 급진적 페미니스트들

의 가부장제론이 이데올로기 차원으로 빠진 것을 비판하며 유물론적 가부장제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급진적 페미니스트들(술라미스 파이어스톤, 케이트 밀레트 등에서 출발)은 프로이트주의와 더불어 마르크스주의를 비판하면서 가부장제론을 폐기 시작하였다.

지금까지 가부장제에 대한 이론은 다양하게 진행되었다. 가부장제론은 가부장제의 물적 특성에 대한 논의와 자본주의와의 관계에 대한 논의가 중심이 된다. 급진주의자들은 계급에 대한 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물적인 특성보다는 이데올로기적 특성을 강조하였다.

애초에 이 용어를 사용한 막스 베버의 경우도 가부장제를 경제생산과 가구조직을 연결하여 설명하였다. 베버는 “아버지가 확대된 친족 및 여타 성원들을 지배하고 가구의 경제생산을 통제하는 가구조직의 특별한 형태”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한 개념이다. 이런 과거의 대가족제 혹은 가구조직과 관련하여 설명하는 것을 넘어서서 페미니즘은 가부장제를 현재의 핵가족과도 연관된 형태로 보았다. 가부장제에 대한 본격적인 이론화는 케이트 밀레트에서 찾을 수 있다. 밀레트는 “제도로서의 가부장제는 모든 대표적 종교에 침투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카스트나 계급은 물론이고 모든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형태를 관류하고 있을 만큼 깊이 침투되어 있는 사회적 불변수인 반면 이것은 또한 시간과 장소에 따라 심한 다양성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았다. 《〈성의 정치학〉》 그리고 가부장제는 단순히 과거의 가구조직의 특별한 형태가 아니라 남성지배와 권력의 총체로 정의되기 시작하였다. 소콜로프는 가부장제를 “남성으로 하여금 여성을 지배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권력관계의 총체” 연애결혼이란 이데올로기, “로맨틱한 사랑은 ‘아버지의 권력’ 으로부터 딸을 해방시킬지는 모르나 그 대신 여자를 점차 ‘남편의 권력’ 에 종속시킨다. 연애라는 미처 날뛰는 에너지는 ‘아버지의 지배’ 라는 중력권을 벗어나려는 원심력 쪽으로 작용하며, ‘남편의 지배’ 밑으로 들어가는 자발적인 자기 방기 쪽으로 작용한다. ‘연애결혼’ 이란 이데올로기: 전근대적 대가족에서 근대적 핵가족으로 이행기에 가부장적인 근대적인 형태를 여성 스스로 기꺼이 선택하도록 한 이데올로기 장치. ...이성애적 관계는 이성 사이를 뭉기보다는 오히려 그 관계 속에서 같은 이익을 공유하는 동성 사이를 묶는다.”(우에노 치즈코, 67)라고 정의한다. 일본 瀬地山角은 “성에 기초하여 남성 우위의 형태로 권력이 배분되고, 나아가 역할이 고정적으로 배분된 관계와 규범의 총체”라고 하였다. (우에노 치즈코, 재인용)

가부장제는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이 급진주의 페미니즘에서 이어받은 중요한 개념이기도 하다. 그리고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과 사회주의 페미니즘이 논쟁을 벌이는 주요용어가 되기도 한다. 이렇게 페미니스트 사이에서 논쟁을 일으키는 ‘가부장제’ 개념이기 때문에 가부장제라는 개념만 없었더라도 페미니즘이 한결 이해하기 쉬웠을 것이라고 불평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특히 가부장제라는 단어의 울림이 전근대적인 대가족을 연상시키기 때문에 우에노 치즈코의 말처럼 “근대적인 단혼 소가족 속에서 사랑하는 아내와 민주적인 가정을 이루어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도대체 자신들의 가정의 어디가 ‘가부장적’ 인지 실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음에 틀림없다.” 《〈자본주의와 가부장제〉》, 63)

가부장제와 생산관계의 문제는 물적 특성을 말할 때 빠지지 않는 부분이다. 가부장적 관계가 지배적 생산관계에 따라 특수한 형태를 띠다고 보는 입장에서라면 자본주의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자본주의와 가부장제의 논의는 상당한 차이들을 두고 전개되었다. 가부장제가 계급관계를 통해 작용한다는 입장, 계급과 성의 관계에서 계급의 중요성을 여전히 견지하는 입장, 이데올로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자본주의와 가부장제를 분리하여 논하려는 입장 등 다양하다.

로이진 맥도너우Roisin McDonough와 레이철 해리슨Rachel Harrison은 가부장적 관계는 지배적 생산관계에 따라 특수한 형태를 띤다고 보고 자본주의 생산 양식에서 가부장제는 계급관계를 통해 작용한다고 말한다. 상이한 계급의 여성은 상이한 모순을 드러낸다고 본다. 이 두 사람은 케이트 밀레트의 가부장제론이 한계가 있다고 본다. 계급에 대해 성의 우위를 주장했다고 보는 것이다. 계급에 대한 성의 우위를 주장함으로써 유물론적 분석에서 사회학적 분석으로 넘어갔다고 비판한다. 줄리엣 미첼의 경우는 프로이트를 재해석해 역사유물론 내에서 무의식 이론을 설명하고자 시도한 것으로 보고 중요하게 생각한다. 미첼은 이데올로기와 성차별의 문화적 구조가 단순히 우리의 의식 속에서만이 아니라 무의식 속까지 뿌리를 내리고 있는 방식에 대해 구조적 분석을 제공하는 이론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줄리엣 미첼은 『정신분석과 페미니즘』에서 여성의 지위는 인종, 민족, 계급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같다고 보고 가부장제와 자본주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주의로의 전환과 무의식의 문화와 싸워야 한다고 보았다. 상징질서, 아버지의 법이 갖는 위력은 쉽게 변화되지 않는다. 모택동도 '집합적인 작업, 평등법, 자녀의 사회 양육 등에도 불구하고, 중국인들의 여성에 대한 <태도들>을 정말로 심각하고도 결정적으로 변화시켰다고 하기는 너무 이르다'(Psychoanalysis and Feminism 412)라고 한 적이 있다고 미첼은 지적한다. 미첼의 견해로는 자유주의 페미니즘의 여성의 참정권, 남녀공학, 차별수정 계획정책과 급진적 페미니즘의 생식기술을 통한 해결이 궁극적인 해결을 가져올 수 없다는 것이다.

미첼은 가부장제를 외디푸스 콤플렉스에 의해 각 개인의 무의식 속에서 나타나는 여성억압의 이념적 형태로 간주하는 반면에, 하트만은 가부장제를 여성 노동력에 대한 남성들의 역사적인 지배에 (물적인) 근거를 갖는 사회내의 관계구조로 파악한다. 하트만이 가부장제에 대한 유물론적인 분석을 하게 된 것은 전통적인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여성억압을 주로 또는 전적으로 여성들과 생산과의 관계 양태의 관점에서 해석하려는 경향에 대해 불만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여성들과 생산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은 노동자 계급의 여성들에 초점을 맞추고 성별억압을 계급 억압의 관점에서 이해하고자 하는 그들의 욕망을 설명한다. "우리는 가부장제를, 물질적 기반을 갖춘 남성 사이의 계급제도적 관계와 남성으로 하여금 여성의 지배를 가능하게 하려는 남성들 사이의 결론이 존재하는 일련의 사회관계라고 정의한다. 가부장제의 물질적 기초란 남성에 의한 여성 노동력의 지배를 뜻한다. 이 지배는 여성이 경제적으로 필요한 생산자원에 다가가는 것을 배제함으로써, 그리고 여성의 성적 기능을 통제함으로써 유지된다."(하이다 하트만 "The Unhappy Marriage of Marxism and Feminism")그녀는, 예를 들어 마리아로사 달라 코스타와 셀마 제임스와 같은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스트들은 가정주부들이 자본을 위해 진정으로 생산적인 노동을 수행하고 있음을 증명하고자 모든 수단을 동원했다고 말했다. 하트만은 노동자들의 자본과의 관계 속에 여성과 남성의 관계를 포함시키는 것은 여자들이 가정의 안팎에서 남자에게 예속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하지 못한다고 본다. 그녀는 자본주의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분석은 가부장제에 대한 페미니즘적 분석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렇게 자본주의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분석을 토대로 가부장제에 대한 페미니즘적 분석이 보완될 것을 주장하는 것은 성의 중요성만큼이나 계급의 중요성을 견지하는 셈이다.

그러나 가부장제를 더 전면화시키는 이론으로는 크리스틴 델피(Christine Delphy)를 들 수 있다. 델피는 가부장적 생산관계를 강조하였다. 델피는 두 개의 분리된 생산양식이 있다고 보고 산업적 생산양식과 가족적 생산양식으로 나누고, 가부장제를 남편이 아내를 착취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여성억압의 물질적 토대는 자본주의 생산관계가 아니라 가부장적 생산관계에 있다고 본다. 질라 아이젠스타인(Zillah Eisenstein)도 가부장제란 자본주의에 선행하는

것이라 보며 가부장제는 <성역할에 기초한 남성 권력>에 의존하고 있고 핵가족 내에 제도화된 것이라고 정의한다. 동시에 아이젠스타인은 다음과 같이 가부장제와 자본주의의 억압 중 그 어느 하나만 억압적이라 할 수 없음을 강조한다. 여기서 ‘자본주의적 가부장제’ 이론이 파생된다.

여성 사회주의자와 급진주의 여성해방론자는 권력을 다음과 같이 이분법적인 방식으로 취급한다. 즉 그것을 한 사람의 경제적인 계급지위 혹은 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파악한다. 남성/여성 간의 구분에 기초한 권력에 대한 비판은 대체로 가부장제에 초점을 맞춘다. 한편 부르주아/프롤레타리아간의 구분에 기초한 권력에 대한 비판은 자본주의에 초점을 맞춘다. 그들은 각각 생산의 사회적 관계 또는 재생산의 사회적 관계, 가사노동 또는 임금노동, 공적 영역 또는 사적 영역, 가족 또는 경제, 이데올로기 또는 물질 조건, 성별분업 또는 자본주의적 계급관계 중 어느 하나만을 억압적이라고 본다.” (Z. 아이젠스타인 <<자본주의적 가부장제이론과 사회주의 여성해방론의 계발>>)

(가부장제의 입장에서 보면) 자본주의 역시 가부장제에 종속된 하나의 제도적 변종에 불과하다. 노동이란 장에서 성 지배로부터 이익을 얻는 것은 자본가만이 아니다. 남성노동자도 그로부터 이익을 얻는다. 남성이 주도하는 노동조합이 일치단결하여 이제까지 얼마나 여성을 배제하고 억압해 왔는가를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스트는 통렬하게 비난한다. (우에노 치즈코)

미셸 바렛은 가족-가구체계라는 개념을 가지고 가부장제에 접근한다. 성차와 여성억압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이 여성을 가정과 모성에 제한하는 가족이데올로기와 남성과 여성이 임노동과 계급 구조에 다르게 포섭되는 물질적 관계를 가구체제에 있다고 본다. 남성에 대한 여성의 의존은 이데올로기 측면만이 아니라 물질적 관계에서 재생산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가부장제의 문제를 놓고 마르크스주의적 페미니즘의 해석과 사회주의적 페미니즘의 해석이 존재한다.

이후 90년대 가부장제론으로는 우에노 치즈코와 실비아 월비를 들 수 있다. 실비아 월비는 책(『가부장제이론』)을 내면서 책의 목적이 여성의 종속을 이론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를 위해서 “가족, 고용과 같은 전통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남성 폭력, 성성, 문화와 국가와도 관련지어 분석이 발전되어야 한다.” 고 주장한다. “영국에서 산업화로 인한 변화와 정치적 시민권의 발달로, 여성은 가부장제가 사적인 형태에서 공적인 형태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였다” 고 적고 있다. 그는 가부장제의 역사적 변화를 사적에서 공적 가부장제의 변화로 본다. 국가와 유급노동이 여성 억압의 중심이며, 여성은 공적 영역에서 집합적으로 착취당하는 공적 가부장제로 형태가 변화되었다고 한다.

이렇게 생산양식과 생산관계를 설명하는 방식이 기존 경제학이나 정치경제학에서 생산양식과 생산관계를 설명하는 방식과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해 보는 것도 재미있는 일이다.

생산양식이란,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방식 즉 먹고살기 위해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분배하며 교환하고 소비하는 방식을 말한다. 생산양식은 생산방식과 분배양식, 교환방식과 소비양식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정치경제학은 경제를 이 생산양식 개념에 기초하여 분석한다. 어떤 사회이든 경제활동의 중심은 생산활동이다. 생산이 있어야 분배도 하고 교환도 하며 소비할 수 있다. **생산활동**은 인간과 자연의 관계, 인간과 인간의 관계라는 두 가지 관계가 결합되어 있는 가운데 이루어진다. 생산활동에서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생산력이다. 생산력은 인간이 자연을 변형하고 가공하는 능력을 말한다. ... 생산활동에서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생산관계**이다. 생산관계는 좁은 의미로는 생산과정에서의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나타내지만, 넓은 의미로는 생산, 분배, 교환, 소비 등 경제생활 전반에서의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나타낸다. 넓은 의미로 사용할 때 생산 관계들의 총체를 경제구조라 한다. 생산력과 생산관계가 결합된 것이 바로 생산양식이다. ... 인류의 역사는 생산양식이 교체되어온 역사라고 할 수 있다. 인류 역사에서는 원시 공동체, 아시아적 생산양식 혹은 공납제, 노예제, 봉건제 혹은 지주제, 자본주의, 사회주의 등의 생산양식이 존재하였다. 각 생산양식에서는 생산력의 성격과 수준이 달랐고, 생산관계의 성격도 달랐다. 생산활동에서의 인간과 인간의 관계, 즉 생산관계의 내용을 말해주는 기본적 지표는 **생산수단**의 소유관계이다. 생산수단은 사람들이 먹고살 수 있는 생활수단을 생산하는 수단이므로, 생산수단의 소유관계는 사람들의 물질적 생활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생산수단의 소유관계에서 서로 다른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집단을 **계급**이라 한다. 정치경제학에서는 생산수단의 소유관계를 중심으로 계급을 정의한다. ...계급사회에서는 생산수단의 소유자인 지배계급이 비소유자인 피지배계급과 생산관계를 맺는다. 이 관계를 계급관계라 한다.” (김형기, 《새정치경제학》)

## 생산과 재생산: 자본주의적 상품생산과 노동의 범위 확장과 그에 대한 비판

이 중에서 생산과 재생산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 일군의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은 재생산은 생산적이라는 생각까지 밀고 갔다. ‘생산’은 아니지만 ‘생산적’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재생산은 생산을 받쳐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자본주의와 가부장제를 구분하고 가부장적 생산양식과 생산관계를 따로 둔 입장에 대한 비판을 전제로 한다. 이렇게 따로 두게 될 경우 가부장제는 하나의 섬으로서 기존 자본주의와는 다른 영역으로 쉽게 간주할 수 있다는 논지를 편다. 생산과 재생산의 논의를 통해 자본주의적 생산-노동 범주의 확장을 시도하고 그에 대한 비판을 가하는 한 예를 들어 생산과 노동에 대한 생각을 전개시켜 보겠다.

포르투나티의 《재생산의 비밀》은 재생산을 기존 경제학이나 마르크스주의 경제학과는 다르게 정의한다. 재생산에 대한 기존 경제학의 사전적 정의는 “인간은 생산한 소비재나 생산재를 소비함으로써 생산과정에서 소모한 노동력이나 생산수단을 경신하여 다시 새로운 생산을 하는 과정을 계속적으로 되풀이하며 살고 있다. 이 소비와 생산의 반복을 재생산이라 한다. 어떠한 시대에서나 인간은 재화를 소비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 인간이 소비하는 재화는, 인간이 직접 생산하는 데 사용하는 재화(생산수단)를 가지고 자연에 대하여 의식적으로 작용(생산활동)함으로써 획득(獲得)되는 것으로 생산하는 일 없이 사회는 존재할 수 없다. 더욱이 생산은 사회의 존속을 위해서는 단 1회의 생산에 그쳐서는 안 되며,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과정이어야 한다. 이와 같이 생산이 연속되고 반복되어 행하여질 때, 이것을 재생산이라고 한다. 이 재생산은 한 번의 생산과정에서 새로이 생산된 생산수단과 생활자료(生活資料)가 그 생산과정에서 소비된 생산수단과 생활자료를 보전(補填)할 수 있다면 가능해진다. 이 재생산이 동일한 규모로 실시되어 연속해서 동일량의 생산물만 생산할 경우를 단순재생산이라고 하며, 연속해서 생산규모가 커지고 생산량이 순차적으로 증대할 경우를 확대재생산, 생산규

모가 축소되어 생산량이 감소하는 경우를 축소재생산이라고 한다. 사회가 발전할 때 재생산은 언제나 확대재생산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가적 기업에 의한 이윤획득(利潤獲得)이 생산의 동기가 된다. 이런 사회에서 재생산과정은 직접적 생산과정과 유통과정의 두 과정으로 이루어지며, 자본은 이 두 과정을 화폐자본·생산자본·상품자본이라고 하는 여러 형태를 가지고 반복하여 운동한다(자본의 순환·회전). 자본주의 사회의 재생산과정의 이론적 해명은, 개별적 자본의 운동으로서의 자본의 순환·회전을 밝히는 것이며, 또 사회총자본의 재생산과정에 대해서는 이들의 개별적 제자본이 생산하는 생산수단이나 생활자료가 어떻게 유통하고 상호간에 서로 보전하는가, 그 방식을 밝히는 것이다. F.케네의 '경제표' 나 K.마르크스의 '재생산표식'은 국민경제 전체의 재생산과정을 처음으로 이론적으로 표식화한 것이다. 현재 각국의 재생산과정은 국민소득의 순환을 중심으로 하는 국민경제 계획 체계(計定體系)로써 통계적으로 나타내도록 되어 있다. 또한 최근에는 산업공해의 발생과 더불어 폐기물과 그 자연환원(自然還元)의 과정을 빼놓고서는 재생산을 논의할 수 없게 되었다." 포르투나티는 "자본주의 하에서 재생산은 생산으로부터 분리된다"(23)고 말하면서 "상품 생산은 가치의 창출로 나타나는 반면에 재생산은 비가치의 창출로 나타난다."(23)고 본다. 그리고 "생산과 재생산 모두 가치 생산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로 재생산을 비가치로 설정하는 것이다."(26)라고 한다. 자본주의 생산 양식은 재생산을 생산과 연결하는 확고한 결합에 기초하고 있다. "자본주의 아래에서 재생산은 많은 다양한 부문들로 이루어진다. 가족과 매춘이 주요 부문들이고 전과정의 중추이다. 이 두 가지 주요 부문들에서의 근본적 노동 과정들은 각각 (1)노동력의 생산 및 재생산 과정, (2)남성 노동력의 특정하게 성적인 재생산 과정이다.(37-8) 포르투나티가 생산과 재생산 사이의 차이를 가치와 비가치의 차이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생산과 재생산이 연결결합되어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다. "생산과 재생산 사이의 실제적 차이는 가치/비가치의 차이가 아니라, 생산이 가치 창출이고, 가치 창출로서 나타나는 반면에 재생산은 가치 창출이지만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외관상의 분리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 생산 양식은 재생산을 생산과 연결하는 확고한 결합에 기초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생산이 재생산의 전제 조건이자 존재 조건이기 때문이다. 논의의 여지가 있지만, 재생산은 모든 측면에서 더 복잡한 방식으로 기능한다."(24)

생산과 재생산 사이의 이러한 외관상의 차이는(임금노동/비임금노동, 공장/가정)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되어 왔다. 그 차이는 발전이 덜 된 결과로 보였거나, 차라리 재생산 부문 안에 강력한 전자본주의적 흔적들이 계속 남아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재생산 부문은 심지어 그 자체로 하나의 "생산양식"으로 보여왔고, 이 생산 양식은 재생산 부문을 자본의 심장부에 존재하는 비자본주의적 "섬"으로 만들곤 했다. 또한 재생산은, 자본주의적 생산과 양립할 수 있는 틀 속에서 그래도 점증적으로 조직화되어 가고 있는 "자연적인" 생산으로 해석되어 오기도 했다.(26) 이는 생산 노동이 상품생산에 관련된 노동(임금노동)으로 설정되는 반면에 재생산 노동은 사회적 노동의 자연적 힘으로 설정되는 것에 대한 비판을 전제로 한다. 그리고 재생산 노동은 "개인 서비스로 나타나는 반면에 실제로는 노동력의 재생산에 관여하는 간접적으로 임금을 받는 노동" (24)이라고 정의함으로써 가족임금제와 같은 것을 끌어들이는다.

그리고 생산 안에서의 노동자와 자본 사이의 교환과 재생산 안에서 교환을 비교한다. "생산 안에서는 노동자와 자본 사이의 교환이 형식적으로는 대등한 것들 사이의 등가물들의 교환으로 나타나지만 실제로는 대등하지 않은 것들 사이의 비등가물들의 교환이라는 의미에서 양면적인 반면에, 재생산 안에서는 교환이 세 가지 다른 수준에서 발생한다. 그것 또한 대등하지 않은 것들 사이의 비등가물들의 교환이지만, 심지어 형식적으로도 그것은 자본주의적 방식으로 조직되는 교환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남성 노동자들과 여성들 사이에 발생하는 것

으로 보이는 교환이지만, 실제로는 남성노동자들을 매개자로 하여 자본과 여성들 사이에 발생하는 교환이다. 이러한 교환의 주체들은 한편의 재생산 노동과 다른 한편의 임금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본으로 모두 기능하는 노동력과 화폐이다.” (37-8)

포르투나티가 재생산이 ‘생산적’이라고 하는 것은 마르크스의 정의와는 다르게 정의하는 것임을 드러내는 예가 된다. “생산적 노동은, 자본주의적 생산에 대한 의미에서 보자면, 자본의 가변 부분(임금으로 지출된 자본 부분)에 비추어 교환되어 자본의 이 부분(또는 그 자신의 노동력의 가치)을 재생산할 뿐만 아니라 덧붙여 자본가들을 위해 잉여 가치를 생산하는 임금 노동이다. 그렇게 함으로써만 상품이나 화폐는 자본으로 변형되고 자본으로 생산된다. 자본을 생산하는 그 임금노동만이 생산적이다.”(맑스, 『잉여가치이론에 관한 이론들』, 『재생산의 비밀』 157 재인용) 상품생산이 자본주의적 생산의 근본적 지점으로 설정되며, 상품생산을 지배하는 법칙들이 자본주의 자체를 특징 짓는 법칙들로 설정되는 지점을 파악한 포르투나티는 재생산이 “자연적인” 생산으로 설정되는 것을 비판한다. 재생산 노동, 특히 가사 노동이 생산적이지 않다는 것은 자본의 관점에서 자본과 결합된 노동만을 생산적 노동이라고 하는 인식에서 나온 것이며 마르크스주의는 생산적 노동 개념을 자본과 결합해서 자본의 잉여가치를 생산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70년대 여성 운동에서 치고 나온 논쟁 속에서 생산적 노동 개념이 바뀐다. 생산적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꼭 자본과 결합된 노동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확장되어 버린 것이다. 자본의 입장에서 정의되던 것이 여성의 입장에서 다시 정의 된다.

포르투나티는 재생산이 비노동으로 제시되는 측면을 설명한다. “재생산 노동--가사 노동과 매춘--은 이중적 성격을 갖는다. 가사 노동은 자신을 자본에게는 사회적 노동의 자연적 힘으로, 그러므로 비노동으로 제시하고, 노동자에게는 개인적 서비스로, 그리하여 직접적으로 임금을 받지 않는 노동으로 설정한다. 매춘은 자본에게는 사회적 노동의 비자연적 힘이며, 노동자에게는 화폐로 지불되지만 직접적으로 임금으로 지불되지 않는 개인적 서비스다. 생산 및 재생산 능력을 지닌 노동력으로서 여성 자신은 자본에게는 사회적 노동의 자연적 힘으로, 그러므로 비노동으로 나타난다. 여성은 노동자에게는 자신을 가정 주부로 설정하지만, 비직접적으로 임금을 받는 가사노동자다. 이와는 달리, 남성 노동력을 성적으로 재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노동력으로서의 여성은 자본에게는 사회적 노동의 비자연적 힘으로, 그리고 그 결과 비노동자로 나타나지만, 여성은 자본에게는 비직접적으로 임금을 받는 성 노동자이고 남성 노동자에게는 매춘부다. 이렇듯 실제로 재생산 영역 안에는 두 개의 주요한 계급들이 있다. 자본가 계급과 가사 노동자 및 성노동자라는 두 분파로 구성된 계급이 있다.” (44-45)

포르투나티는 재생산노동으로 놓았던 두 가지 축인 가사노동과 매춘노동을 교환의 양상으로 비교한다. “여성가사 노동자와 자본 사이의 교환은 성노동자와 자본 사이의 교환이 그런 것보다 남성 노동자와 자본 사이의 교환과 훨씬 더 다른데, 왜냐하면 성 노동자와 자본 사이의 교환은 가격으로 나타나므로 적어도 임금 관계와 공통적인 어떤 것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재생산 노동은 실제로는 임금을 받지 않는 노동이고, 이것은 재생산 노동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으로 남아 있다.” (61) 그리고 자본주의적 상품생산의 노동자가 교환하는 화폐는 합법적이지만 여성이 교환하는 매춘 노동은 합법적이지 않고 불법적이므로 상품생산 노동과 재생산노동은 다르게 취급됨을 지적한다. 그리고 가사노동자 또한 남성노동자와 불평등한 관계를 갖는다고 지적한다. 매춘부는 그 관계에 의해 범죄 시되기 때문에 더욱 불평등한 관계를 갖는다고 비판한다.



포르투나티는 마르크스주의적 분석이 “생산 과정의 반쪽--상품 생산--만을 서술하므로 그 자체로 재생산을 포괄할 수 있도록 확장될 수 없다는 것, 나아가 생산의 순환 전체에 대한 분석은 재생산도 분석될 때까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해진다. 이 재생산 분석은, 맑스주의적 범주들을 도식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페미니즘의 비판과 결합시킬 때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26)라고 지적한다.

포르투나티와 같은 마르크스주의적 페미니스트는 자본주의와 가부장제가 어떻게 자본주의적으로 연동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른 것으로 보여지게 되는지를 세밀하게 분석한다. 더불어 이성에는 “자본주의적 대인 관계 조직의 구체적인 산물”이라고 본다. 사랑이나 가족에 그리고 이성에 같은 것이 “특정하고 정확한 물질적 과정의 결과”임을 분석한다.(48) 오늘날 “자본주의적 사랑”을 막는 일이 남성과 여성 모두의 “비착취”를 위한 것임을 주장한다. “여성들은 자신들이 ‘사랑하는’ 개인들을 통해 자본을 위해 노동할 수밖에 없다. 여성들의 사랑은 결국 남성들과 여성들의 개인으로서의 자기 부정에 대한 확인이다. 오늘날, 상품이 아닌 개인으로서 자신이나 타인을 재생산하는 유일하게 가능한 방법은 이러한 자본주의적 ‘사랑’ --착취의 섬뜩한 얼굴을 가리고 있는 ‘사랑’ --의 경향을 막고, 여성과의 관계에서 국가와 자본을 대표하는 남성의 매개자의 역할을 파괴하면서 남성과 여성 사이의 관계를 변형시키는 것이다. 성평등을 위한 유일한 현실적 강령은 둘 모두의 비착취를 위한 것이다.”

포르투나티는 생산과 재생산, 여성의 가사노동과 매춘노동이 자본과 남성과 갖는 관계를 찬찬히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이 생산, 노동 그리고 성을 연결하여 자본주의를 설명하려는 시도로서 의의를 갖지만 동시에 몇 가지 발표자의 생각과는 다른 지점이 있다. 포르투나티는 생산과 재생산을 구분함으로써 여전히 상품생산과 자본주의에 우위를 두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성들이 생산하는 가장 중요한 지점 중에 하나인 인간생산이 빠져 있다. 따라서

- 생산의 내용이 달라져야 한다.
- 재생산의 정의가 달라져야 한다.
- 지금까지 경제학에서의 생산관계는 상품(재화)생산관계다.
- 상품생산관계의 재정의가 필요하다. 이 재정의는 포르투나티의 재정의와는 다른 것이어야 한다.
- 성과 생산의 관계가 이론화되어야 한다. 이는 성적 생산관계의 이론화를 의미한다.
- 성적 생산과 성적 생산관계는 마르크스주의나 주류 경제학의 범주를 훌쩍 넘어선다.

발표자가 말하는 성관계는 맑스주의의 생산관계에 버금가는 개념이다. 마르크스주의는 세계를 이해하는 하나의 틀을 만들었다. 거기에는 생산관계라는 개념이 존재한다.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에 따라 자본가와 노동자 계급이 나누어진다. 자본주의를 해석하는 틀에서 중요한 하나의 개념이 이 관계다. 성의 이론화를 겨냥하며 가부장제를 자본주의보다 더 오래되고 끈질긴 제도과 체제로 보는 발표자는 가부장적 성적 관계, 성관계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갖는다. 가부장제가 여러 형태를 거쳐 자본제적 가부장제로 자리한 근대 이후의 성관계를 다룰 때는 성관계란 바로 자본제적 가부장제의 문제도 포함하는 그런 개념이 될 것이다.

성적 생산관계는 기존 생산관계의 범위를 드러내고 생산관계를 재조정한다. 성적 생산관계라는 개념을 내놓음으로

써 기존 '생산관계'는 '상품생산관계'로 재정의 되어야 한다. 성관계 중 성적 생산관계는 인간생산, 쾌락생산, 상품생산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기존 성관계의 개념을 적용하면 성관계를 통해 인간생산과 쾌락생산이 이루어진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상품생산관계 또한 성관계의 내용이 될 수 있다. 성관계가 섹스관계만이 아니라 젠더-섹슈얼리티관계를 의미하고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성별과 성애관계라고 말하게 될 때, 인간생산과 쾌락생산도 성별-성애적 관계이고, 상품생산은 성별-성애적이다. 물론 인간생산, 쾌락생산, 상품생산 사이에는 성관계적 특성의 차이가 있다. 이 세 가지 생산관계의 특성과 차이와 연결고리들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성의 생산관계를 논하는 일은 기존의 '생산'론을 바꾸는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생산과 재생산이 불평등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드러내는 일이기도 하다. 따라서 '생산'만을 재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재생산'을 재구성하는 것이 될 것이다. 남성중심적 가부장적 생산론은 사회적 상품 혹은 재화를 생산하는 것을 '생산'이라 하였다. 이 영역을 '생산'으로 놓음으로써 자연히 인간을 생산하는 일은 '재생산'이란 말로 대치되었다. 생명공학을 논하면서 '재생산기술'을 말하거나 '재생산권'을 요구하는 논의들은 모두 현재의 '생산/재생산' 개념 정의를 문제삼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따라서 맑스주의를 포함한 기존경제학의 '생산/재생산'론과 생산중심주의 뿐만 아니라 페미니즘의 '재생산'론을 비판의 대상으로 삼게 된다. 페미니즘은 그동안 '재생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왔다. '재생산의 비밀', '재생산권', '재생산기술' 등으로 인간 생산을 재생산으로 정의해 왔다. 그러니까 내가 문제 삼는 것은 기존의 '생산중심주의'가 재생산을 재화의 재생산과 재화의 생산을 위한 재생산으로 나누고 있는 점이다. 생산과 재생산이 상품(재화)생산 중심이고 인간 생산과 쾌락생산이 모두 재생산의 영역에 포함되어 버린다는 점이다.

## 2. 가부장체제적 생산과 노동으로서 자본주의적 생산과 노동: 자본주의적 생산과 노동을 재위치 짓기와 가부장체제적 생산과 노동을 이론화하기

### 왜 가부장체제이며 무엇이 가부장체제인가

여기서 필자가 정의하는 가부장체제적 생산과 노동이란 상품생산과 상품생산노동까지를 포함하는 생산과 노동을 의미하고, 자본주의적 생산과 노동을 포함한다. 가부장체제라는 개념을 제시하는 것은 기존 자본주의 대 가부장체 논쟁이나 자본주의적 가부장체 논쟁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것이다. 둘이 다른 생산양식이고, 다른 노동이 아니라 연동된 하나의 생산양식이며 노동됨을 강조하기 위함이고, 기존 자본주의체제 분석으로는 현재로서는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가부장체제라 명명함으로써 해결하려는 시도다.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기존의 자본주의론을 확장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의 자본주의론이 은폐하거나 생략한 부분을 위해서는 포르투나티와 같은 시도를 넘어 가부장적 경제, 가부장적 노동, 가부장적 생산양식, 등으로 기존의 가부장적 경제와 노동 개념을 확장하여 재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본주의 경제, 자본주의 노동, 자본주의 생산양식으로 설명가능하다면 자본주의 경제와 가부장체제적 경제는 동의어가 된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자본주의 경제가 이것을 다 설명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이론화과정과 운동의 과정이 자본주의 경제의 범주를 상품생산경제, 시장경제, 등으로 제한해 왔다. 가부장체제론은 지금까지의 세계체제론이나 자본주의 경제론이 다루지 못하는 영역까지를 연결하면서 다루기 위한 개념으로 제안한다. 물론 적녹

보라경제, 생태경제와의 관계 설정은 필요하다. 생태적인 측면까지를 다루려면 생태경제 혹은 다른 개념이 또 필요할 것이다. 적녹보라적 경제라는 말이 더 적합할 수도 있다. 현재로서 여성/남성, 성과 생산, 노동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전지구적 가부장체제에 대한 현실분석을 기반으로 문제설정을 새롭게 하고 운동을 새롭게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가부장체제를 제시한다. 이는 생산, 노동, 성의 재개념화를 전제로 한다.

가부장체제를 전면에 내세우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부장체제는 자본주의체제와 여타의 체제들과 함께 작동한다. 그러나 다른 체제들은 중요하다고 부각되거나 전면화되어 있으나, 가부장체제는 전면화되어 있지 않다. 전면화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충분히 문제로 설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싸움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자유주의체제, 자본주의체제, 세계체제, 군사체제, 냉전체제, 분단체제 등은 전면화되었다. 그러나 가부장체제는 가부장제라는 이름으로 여성들만이 관심을 갖는 그 어떤 것으로 여겨졌다. 21세기 지금 가부장체제를 말하지 않고 지구적 지역적 차원의 삶의 변화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가부장체제를 전면에 내세워야지만 지금 운동이 봉착한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다.

가부장제로 말하지 않고, 가부장체제로 말하는 이유는 앞에서 보았듯이 지금까지 서구의 제2물결 여성운동과 페미니즘은 가부장제를 문제 삼았고 다양한 이론들과 현상들을 문제화하고 분석하고, 운동으로 만들어내었다. 그러나 가부장제는 그것이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런 문제가 이야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화적인, 제도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리고 여성들을 둘러싼 문제를 이야기할 때, 이 추상적인 언어를 버리고자 하는 시도들도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좀 큰 이 개념을 버릴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신자유주의에 버금가는 언어로 담론의 정치의 장으로 갖고 와서 사용해야 한다. 가부장제라는 말이 자본주의라는 말만큼이나 대중화되어야 하고, 이 정도로 대중화된다는 것은 성(젠더와 섹슈얼리티)의 문제가 인간 삶의 핵심에 있다는 것을 심각하고 진지하게 알아챌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도 또한 사회 속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음을 의미하지만 체제는 좀 더 확실하게 윤곽을 드러내는 개념이라 생각한다. regime 혹은 system이라 번역될 이 체제는 정치경제군사체제적 성격을 드러내는 것이다. 가부장제라고 할 때, system의 의미가 없었던 것이 아니고, 그것의 중요한 의미가 깊은 제도라는 의미였으나, 체계나 체제로 말하게 되면 경제적이고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체제와 등급의 범주를 갖는 것을 의미한다. 즉, 군사체제, 정치체제, 경제체제인 신자유주의체제, 자본주의체제, 제국주의체제, 분단체제, 냉전체제, 한국의 87체제 등을 연상하고, 그것들과 연관된 지점들을 생각하게 만들어 준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부장체제는 자본주의체제, 신자유주의체제, 세계체제보다 훨씬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체제라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다. 문제는 가부장체제에 대해서는 아직 역사성을 설명하지 못한 지점에 있다. 왜냐하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놓고 씨름해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성의 문제는 지역적이고, 부분적이라고 생각했고, 가부장제를 여성과만 연결하여 생각한 오류를 범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가부장체제는 여성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군대문제만 하더라도 군가산점제만 가부장제와 연결된 것이 아니라 남성의 징병제 자체가 가부장체제의 문제이라는 인식을 아직 많은 사람들이 하지 못하고 있다. 발표자가 말하는 가부장체제는 성체제 혹은 성체계에 기반한다. 가부장체제는 성관계, 성노동, 성장치라는 삼각구도로 작동한다고 이론화하였다. 현재의 체제는 가부장체제이고, 이 체제는 가부장적 성관계-성노동-성장치를 통해 작동하여 왔고, 현재도 작동한다고 보았다. 그렇다면 성관계-성노동-성장치를 어떻게 정의하고 들어가는가? 성

관계는 생산/거래/권력/계급관계로 구성되며, 성노동은 인간생산노동/쾌락생산노동/가사생산노동으로 크게 나누어 질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성장치는 신체, 가족, 서사, 시장, 국가, 미디어, 종교, 교육 등으로 나누어진다.

여기서 성이란 섹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젠더와 섹슈얼리티를 다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서구의 페미니즘은 섹스, 젠더, 섹슈얼리티를 구분하고 그것을 통해 발전해 왔다. 문화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그 중첩되는 것들을 총칭할 개념어도 필요하다. 흔히 계급, 인종, 민족과 나란히 젠더를 놓는다. 그러나 성은 젠더를 넘어서는 개념이다.

성체계는 성관계-성노동-성장치라는 삼각구도를 갖는다. 성관계와 성노동과 성장치는 서로 연동되어 가부장체제를 유지하고 재생산하는 역할을 해 왔다. 성관계, 성노동, 성장치는 생산관계, 거래관계, 계급관계를 내포한다. 성노동은 젠더노동과 섹슈얼리티노동으로 구분되기도 하며 서로 혼재되어 있기도 하다. 성노동은 성적 노동으로 성별노동과 성애노동이 있다. 이 노동의 분류에는 모성노동, 가사노동, 매춘노동, 성별-성애화된 임노동이 포함된다. (물론 남성들이 하는 노동, 남성들이 해 온 노동에 대한 분류가 들어가고, 이것에 역사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과거 스파르타의 전사들은 전사노동을 했고, 플라톤같은 사람은 지식노동이라는 성노동을 한 것이었다. 당시 지식노동은 유희이고, 귀족계급이 하는 놀이처럼 되어있었지만 현대어로 하면 지식노동인 셈이다. 노동의 성격을 말하는 것으로 본다면 남성별화된 노동과 여성별화된 노동의 역사를 살피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 분야의 논의는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역사학과 인류학과 경제학이 살펴야 할 분야로 보인다.) 성장치는 성이데올로기를 유지하고 재생산하는 장치들로서 시대마다 다를 수 있다. 현대는 국가, 시장, 몸, 서사, 미디어가 부각되며, 아직도 여전히 가족이 그 중심에 있고, 종교, 교육의 장치들을 들 수 있다. apparatus라는 말로 번역될 장치는 가부장적 성관계와 성노동을 가능하게 하는 장치들이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주요 장치는 변해왔다. 예를 들어 서구에서는 종교 장치로서 기독교적 교회가 주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시장과 미디어가 더 큰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만약 사회가 가부장적이지 않은 사회로 이행하고 변해간다면 이 장치들은 또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국가나 시장이나 서사들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 사이즈 자체가 간단한 사이즈가 아니게 되었다는 점에서 장기지속의 면모를 띤다. 몸의 경우 몸에 체화된 아비투스, 관습이라는 것,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고 물려주는 몸이라는 것이 가장 끈질긴 성장치가 된다. 가족 또한 마찬가지다. 인간재생산의 기체인 가족이 변하고 있지만 또한 변하지 않는 어떤 부분이 있고, 그것이 가부장적 성관계, 성노동을 지속시키고 있다. 나는 이것을 성체계라고 한다. 가부장체제라는 개념을 성체계라고 보고, 성체계는 바로 자본주의체제이기도 하다고 말한 적이 있다. 생산관계와 노동, 계급, 시장관계로서 성체계를 보아야 한다는 논리였다. 게일 러빈이 말한 여자들의 교환의 의미와는 다른 의미에서 재구성한 이론이고 개념이다.

가부장체제는 자본주의-제국주의-군사주의의 성격을 띤다. 가부장체제는 정치경제군사문화체제이다. 현재로선 자본주의적체제도 군사주의체제도 남성중심권력체제도 가부장체제다. 가부장체제는 공간으로 보면 지구적 차원의 체제이며 시간으로 보면 오랜 역사성을 띤다. 가부장체제는 그 역사적 국면으로 보면 근대와 현대에서는 자본주의적 성격을 띠고, 제국주의적 성격을 띠며 군사주의적 성격을 띤다. 가부장체제가 자본주의적 성격을 띤다는 것은

이상할 것이 없다. 근현대의 경제체제 자체가 자본주의적 체제이기 때문에 가부장체제도 근현대에 오면 어디나 할 것 없이 자본주의적 성격을 띠게 된다. 자본주의로부터 피해 있었던 세계 곳곳이 자본의 힘에 굴복하기 시작하였

다. 가부장체제는 전지구적 차원에서도 작동하며 따라서 전지구적 자본주의-군사주의-제국주의의 면모를 갖는다. 지금 자본주의 논의는 세계화와 전지구적 자본주의 논의로 전개되고 있으며 신자유주의라는 새로운 자본주의적 국면의 위기에 대한 논쟁으로도 전개되고 있다. 그런데 신자유주의를 말하는 것이 여전히 남성 중심의 담론으로 보이는 것은 거기에 젠더, 섹스, 섹슈얼리티 논의가 다 빠져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수정하는 방법은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고 들어가는 것이다. 신자유주의가 가부장체제의 한 국면임을 말할 수 있다면 성과 관련된 문제가 사장되지 않으면서 신자유주의를 이야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전지구적 자본주의, 세계화, 신자유주의 시대로 규정되는 현재 여성/남성의 문제는 어떻게 이야기되고 있는가? 여전히 따로 다른 세상처럼 공간도 달리 이야기되고 있다. 이는 남성활동가와 남성지식인들이 이 문제를 중요하게 보지 않기 때문이다. 가부장체제는 큰 범주다.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장기지속 되어왔다. 세계체제가 16세기 자본주의의 태동기, 서구 근대체제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이 라면 가부장제의 발명은 그 이전이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적 논의를 할 수 있는 것이 힘든 것은 지금의 모든 사고가 이전의 지식체제를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역사의 시기 구분이나 역사에 대한 해석, 생산양식에 대한 해석 등이 다 다르다.

성과 계급의 문제설정, 성과 인종의 문제설정, 성과 종의 문제설정은 가부장체제에서 중요하다. 성과 인종의 문제를 미국 흑인 페미니즘의 시각이나 제3세계 페미니즘의 시각 정도에서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인종주의가 어떻게 자본주의에 활용되며, 인종주의적 제국주의가 자본주의에 활용되는지, 더 나아가 가부장체제에 활용되어 왔는지를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인종, 인종주의의 문제는 민족, 민족국가와의 관계 속에서 중요해진다. 특히 전지구적 이동이 더 강화된 현재의 시점에서 볼 때, 이주와 인종, 민족국가의 문제가 가부장체제를 유지하는 것과 연관된다. 성과 종의 문제 또한 가부장체제와 연관된다. 남성, 여성, 서구근대체제, 이 모두는 종의 구조적 문제를 담고 있다. 자연을 어떻게 보고, 자연에 대한 착취를 어떻게 보며, 종의 조화로운 삶은 어떻게 가능한지, 초기 미국의 문학에서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을 작품으로 쓴 이유가 자신들이 광활한 땅, 새로운 땅에 갔을 때의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성과 계급, 성과 인종, 성과 종의 문제가 전지구적으로 확장되는 순간은 제국주의/식민주의가 작동할 때이다. 제국주의를 성과 계급, 인종, 종의 문제로 본다면 지금까지 제국주의에 대한 싸움과 싸움의 내용에서 무엇이 달라질 것인가?

가부장체제를 이론화하는 것은 관련된 개념들을 생산하는 것을 의미한다. 군사주의적 가부장체제, 신자유주의적 가부장체제, 자본주의적 가부장체제, 근대적 가부장체제, 제국주의적 가부장체제 등의 개념어와 그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가부장적 노동, 가부장적 거래, 가부장적 생산, 가부장적 착취, 가부장적 국가, 가부장적 인종주의, 가부장적 시장, 가부장적 폭력, 가부장적 장치 등의 개념어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가부장적 노동은 노동의 성별화/성애화가 그 내용으로 포함되며 앞에서 말한 광범위한 의미의 여성의 성노동이 포함되고 (남성의 성노동은 이론화를 기다리고 있다), 제국주의적이고 자본주의적인 성격을 띤 성노동을 의미한다. 가부장적 관계는 앞에서 말한 성관계를 자본주의-군사주의-제국주의와 연관시켜 정의되는 관계를 의미한다. 가부장적 생산양식은 자본주의적 생산양식도 역사적 국면의 일부로 들어가지만 그 보다 더 오래되고, 범위와 역사성을 띤 생산양식을 의미한다. 가부장적 시장은 결혼시장, 성산업시장, 가사노동시장과 각각의 산업의 형태를 띠면서 기존의 자본제적 시장의 성별화되고, 성애화된 영역들을 포함한다. 이 시장의 거래는 남성과 여성 사이의 거래가 포함

된다. 가부장적 국가는 구성원들을 성별화하고 성차별하는 국가를 의미한다. 군대, 감옥, 경찰 등의 강제적 장치들이 남성중심적이며 성별화되어 있는 국가를 의미한다.

-가부장적 경제

-가부장적 폭력 (성폭력과 중첩되지만 좀 더 포괄적인 폭력, 국가-자본-군사 폭력으로 드러나기도 한다.)

-가부장적 착취 (성착취의 지구지역적 성격과 군사주의-자본주의-제국주의의 역할)

-가부장적 노동

(성노동을 지구지역성과 자본주의적 노동과 연결함으로써 제국주의적이고자본주의적인 노동의 성격을 띠는 노동)

-가부장적 관계 (성관계를 지구지역성과 자본주의-군사주의-제국주의와 연계시킬 때 생산되는 관계)

-가부장적 장치

(성장치를 지구지역성과 자본주의-군사주의-제국주의와 연계시킬 때 발견되는 장치. 예: 국제기구들)

-가부장적 생산양식 (생산식의 지구지역적 성격, 역사적 성격이 더 확실해 질 때 말해질 수 있으며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을 포함하지만 그보다 범위와 역사가 넓고 오래된 생산양식)

### 가부장체제의 현재적 형태로서 자본주의: 자본주의적 생산/노동은 가부장적 생산/노동이다.

자본주의적 생산과 노동 범위의 확장으로서 혹은 기존의 경제학,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을 포함하여 경제학이 제시하는 자본주의적 생산과 노동이 은폐하거나 배제한 생산과 노동을 끌어들이는 틀로서 가부장체제적 생산과 노동 개념을 제시한다. 이는 부분적으로 이제까지 자본주의적 생산과 노동의 범주 확장이기도 하고, 정치경제학에 대한 비판이기도 하다. 가부장체제는 노동현장의 문화적 현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물질 토대 그 자체이다.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자본주의적 가부장체제 혹은 가부장체제의 형태로서 자본주의를 볼 필요가 있다. 이는 앞에서 본 생산/재생산의 관계로서 설명된 부분을 비판적으로 수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포르투나티는 『재생산의 비밀』에서 자본주의는 재생산에 토대를 둔 생산체계라고 본다. 그러나 나는 이 둘이 생산, 재생산으로 관계 맺는 것이 아니고, 다른 생산들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아야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생산-재생산의 틀로 보는 것은 자본주의적 생산과 노동을 설명하고, 그것과 가부장적 노동을 연결시키는 시도였으며 자본주의를 중심에 두고 이론을 전개한 것이다. 그러나 가부장체제를 중심에 두고 생산관계를 제시하는 나는 재생산으로 생산을 받쳐주는 것이 아니라 생산이며 주요한 생산들을 하는 주체로서 여성과 노동을 놓는다. 그리고 이것은 인간의 생활을 위해 해 온 인간들의 상품생산, 재화생산이 지금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경제학이 제시하는 것보다 부분적임을 밝히기 위한 것이다. 상품생산이 비대해진 현재의 경제 시스템은 자본주의적 성격을 띤다. 그리고 이 자본주의적 상품생산은 인간이 하는 다양한 생산의 부분인데, 우리는 자본주의적 '생산'의 그 너머를 볼 수 없게 속박된 것으로 제시된다. 이는 몇 가지 생각을 전제로 한다.

- 현재 자본주의적 경제체제를 벗어날 가능성을 던지기 위한 것이다.
- 남성중심적 가부장적 정치경제학에 대한 비판을 하기 위함이다.
- 자본주의적 생산과 노동은 가부장적 생산과 노동이다.
- 현재는 자본주의와 가부장제가 따로 가는 것이 아니다.
- 가부장적 생산과 노동을 보지 않는 자본주의 비판론은 자본주의 비판론이 되기 어렵다.
- 가부장체제의 생산과 노동을 비판하는 것은 자본주의적 생산과 노동을 비판하는 것이다. 이 둘의 관계를 말하지 않으면서 독단적으로 금융자본, 자본의 축적, 자본의 착취를 말하는 것은 부분적이다.

이 주장을 받쳐줄 이론적 근거는, 1. 자본주의적 생산이란 현재 이론들에서는 상품생산을 의미한다. 인간 삶에는 상품생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생산이 있다. 이 생산들과 자본과의 관계를 규명하는 일이 필요하다. 그 중 하나가 성과 자본의 관계, 성과 생산/노동의 관계를 규명하는 일이다. 성 혹은 성적 모순은 가부장적 모순이고, 자본주의적 모순과는 다른 것이며, 성적 모순은 페미니즘이 담당하는 것, 여성이 담당하는 것이라는 논리는 잘못되었다. 기존 페미니즘 진영에서는 여성해방을 위해서는 자본주의가 해결되어야 한다, 가부장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놓고 싸움을 하기도 하였다. 이는 계급과 성의 문제로 다시 정의되어 계급모순을 해결해야 한다, 성모순을 해결해야 한다고 싸운 셈이다. 크게 보면 마르크스주의, 사회주의 페미니스트들은 계급모순을 우선시 하거나 계급과 성모순을 함께 보아야 한다고 보았다면, 급진적 페미니스트들은 성모순을 주요모순으로 본 셈이다. 성모순과 계급모순은 연동되어 작동한다. 성은 계급모순을 포함하고, 계급은 성모순을 포함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계급모순을 이야기해 온 주된 이론과 운동은 성 모순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놓지 않았기 때문에 자본주의적 모순으로 이야기를 시작할 경우 한참 애들러 갈 수도 있다는 인식에서 가부장체제라는 언어를 도입한다.

발표자가 말하는 가부장체제는 자본-군사-제국주의적 성체제를 의미한다. 이는 성과 자본, 성과 군사주의, 성과 제국주의와 연동되어 돌아간다는 의미이고, 전지구적 가부장체제는 자본주의 세계체제와 무관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다시 말해 자본주의적 모순은 가부장적 모순이며, 가부장적 모순은 자본주의적 모순을 그 내용으로 삼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성-생산-노동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 가부장체제의 전지구적 생산/노동 양상

- 인간생산노동
- 쾌락생산노동
- 가계생산노동
- 상품생산노동

자본주의와 가부장체제는 현재의 지구화, 지구지방화와 연관된다. 성의 경계, 성의 구분을 따라 움직이는 자본과 노동이 있다. 그 중에서 새롭게 산업으로 부상하는 영역 중 하나가 성적 영역이라 할 수 있다. 성노동자들의 이동이

진행된다. 몸이 지역적으로 공간적으로 이동하기도 하고, 몸의 일부가 이동하기도 한다. 결혼계약과 거래로 이동하고, 매춘계약과 거래로 이동하고, 베이비산업의 선을 따라 남자와 아이가 이동한다. 과거에는 입양을 통해 진행되었다면 현재는 대리모산업을 통해 진행된다.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자들이 국경을 넘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다. 이러한 이동은 초국가적 성적 관계의 재편성이 일어남을 보여준다. 정보사회는 <구글베이비>에서 보여주듯이 이러한 교환, 매매, 계약의 중심에서 작동하기도 한다.

“자매애는 강하다.” 자매애는 글로벌하다(Robin Morgan의 책 제목)라고 하는 구호는 액티비즘의 선에서 가능할지 모르지만 정치경제문화적 현장에서는 그것과는 사뭇 다른 현상이 일어난다. 여성들 사이의 차이를 자본과 가부장제가 활용하고, 그것에 대한 대응, 대안이 아직 미미하다. 곳곳에서 저항의 움직임들이 있고, 투쟁이 결실을 보는 경우들이 있다.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운동의 확산과 아울러 가사노동자 운동의 지구지역적 확산, 매춘노동자 운동의 지구지역적 확산은 새로운 액티비즘의 선을 형성한다. 지구지역적으로 낙태법에 관한 저항과 대응이 진행되고 있다.

“월가를 점령하라”, 2011년 세계적으로 등장한 구호다. 금융자본의 핵심이라는 뉴욕의 월가 근처의 주코티 공원에 진을 치고 거리를 점령하고 시위를 계속한 무리들이 있었다. 금융자본의 핵심부에서 터져 나오는 저항의 목소리였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의 탐욕에 대해 99%가 외친 것이다. 1%가 99%의 부를 독점하는 자본주의 사회는 소득증가율의 차이로 간단히 설명될 수 있다. 최근 소득수준 상위 10%의 증가율이 연 1%, 같은 기간 상위 1%의 증가율은 87%. 최상위 0.1%의 증가율은 497%라는 통계가 나온 적이 있다. 이 어마어마한 차이가 바로 99%를 움직이게 하는 것인지는 모르다. 그런데 월가를 점령하자는 99%의 제안을 담은 포스터에 여성들이 등장한다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거리를 점령하고 거기서 뛰어다니는 혹은 춤을 추는 여성들이 포스터에 등장한다. 그리고 이 포스터의 여성들만이 아니라 시위대 내에서는 또 다른 여성들의 목소리들이 있었다. “가부장체제를 점령하라” 라는 구호를 외치는 여성들이 있었다. 금융자본주의로 사람들의 삶을 위기로 몰아붙인 월가의 주인공들을 향하는 지탄의 목소리에는 가부장체제에 대한 저항도 포함되어 있었다. 여성들도 거리를 점령하고, “여성들이 점령한다” 라는 포스터를 들고 시위를 하였다. 여성들이 가부장체제를 점령하자고 제안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다. 왜냐하면 세상 부의 1%를 여성들이 소유하고, 세계 빈곤층의 80%가 여성이며, 세상의 모든 노동의 3분의 2를 여성들이 수행하며, 세계의 수익의 10분의 1만 여성들이 받으며, 여성들이 하는 일의 3분의 2는 지불되지 않는 노동이라는 통계가 그것을 말해 준다. 여성들이 빈곤한 것은 여성들의 시간과 노동에 대해 세상이 가치를 다르게 매기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일찍이 백무산시인은 <자본론>이란 시에서 다음과 같이 자본가에 의한 노동자의 착취를 비판했다. “줄잡아 그의 재산이 5조원을 넘는단다/그 돈은 일년에 천만원 받는 노동자/50만년 치에 해당한다/한 인간이 한 세대에/50만년이라는 인간의 시간을 착취했다/50만년!” 그는 한 자본가가 한 세대에 한 노동자의 50만년이라는 시간을 착취할 수 있다는 계산을 하였다. 그런데 여성들의 시간은 이렇게 계산조차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왜냐하면 여성들의 노동은 앞에서 말한 대로 그들이 하는 노동의 3분의 2가 부불노동이기 때문이다. 노동자의 시간을 착취하는 자본가에 대해 노동자들은 투쟁해 왔다. 노동자들의 시간은 임금으로 계산되긴 하였지만 그 임금이 노동자들의 시간의 가치만큼 돌려주는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끊임없이 임금투쟁을 할 수밖에 없었다. 자본가는 시간의 낭비 없이 최대한 이윤을 창출하려는 목적을 갖고 노동자들의 시간을 착취한다. 그들에게는 노동행위 그 자체가 가치가 있



는 것이 아니라 노동시간이 가치로서 정의된다. 그런데 대부분 여성들의 노동시간은 노동자들의 시간만큼도 계산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노동은 노동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자본가들은 (남녀)임금노동자만이 아니라 여성들의 (가사, 모성) 노동도 자본의 축적을 위해 활용하지만 세상은 이것을 착취로 보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들로 인해 여성들은 “여성들이 점령한다” 혹은 “가부장체제를 점령하자” 라는 구호를 외치게 된다. 그리고 가사노동도 노동이고, 성노동도 노동이라는 구호를 외치게 된다. 또한 노동운동의 중심에 여성들이 서게 된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 비정규직 투쟁의 현장에 여성들이 서게 되는 것도 이러한 상황과 연결되어 있다. KTX여승무원, 이랜드, 기륭의 투쟁이 그러했고 현재 1700일을 넘긴 재능교육지부의 투쟁이 그렇다. 자본은 노동유연화전략으로 남성노동자와 여성노동자를 가리지 않고 해고하고 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여성노동자들은 여성들의 빈곤과 연관되어 더 열악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누구의 시간이 좀 더 높은 가치가 매겨지는가? 누가 그 가치를 매기는가? 노동자의 시간은 왜 가치가 낮게 매겨지는가? 그 중에서도 여자의 시간은 왜 화폐가치가 매겨지지 않는가? 흔히 말하듯이 여자의 시간은 사랑의 시간이고, 가치를 매길 수조차 없는 시간이라고 말하게 될 것인가? 여성임금노동자의 시간은 왜 더 낮게 가치가 매겨지는가? 가정에서의 여자의 시간은 왜 (화폐)가치가 매겨지지 않는가? 이렇게 함으로써 누구에게 이득이 돌아가는가? 여자 자신에게? 아니면 자본가에게 아니면 집안의 남자들에게? 왜 여자의 이름은 어머니/아내의 이름으로, 사랑의 이름으로 가치가 매겨지지 않는가? 누가 무엇을 노동이라 하고 노동이 아니라고 하는가? 페미니즘은 이런 의문을 품고, 여성들의 일을 노동이라 부르고, 여성들의 시간을 노동과 연결시켜 생각하기 시작했다. 역사적으로는 시초축적의 과정에서 자본주의가 남성을 임금노동자로 만들면서 여성들을 배제하였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본가들은 여성들의 집안 노동에 대해 임금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자본을 축적할 수 있었다. 지금은 여성들을 임노동의 장으로도 끌어들이면서 저임금노동으로 불안정노동으로 만들어서 또 이윤을 남겨보려 한다. 그래서 여성들이 노동운동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여성노동자들이 거리를 점령하고 있다. 지난해 50대 취업여성 70% 가까이 임시·일용직의 비정규 고용형태로 일하고 있으며, 주 40시간 이상 일하고 있음에도 100만 원 이하의 임금을 받고 있는 비중이 과반수인 것으로 통계가 나왔다. 지난해 여성 전체 취업자는 전년보다 17만 7000명(1.8%) 늘어난 1009만 1000명으로 사상 처음 100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한다. 그러나 대부분 단체협약, 노동3권 등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 처해 있다. 페미니즘은 계급과 성의 문제를 함께 보자고 제안한다. 계급문제만 임금노동의 문제만 볼 것이 아니라 가사노동이나 다른 여타의 노동들을 함께 보아야 지금의 사회 문제가 풀릴 수 있다. 남성이 여성과 함께 노동을 분배하면 남성의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덜 수 있을 것이고, 여성이 하는 무임금노동을 함께 함으로써 여성에게 주어진 노동의 과부하를 덜 수도 있을 것이다. 페미니즘은 잉여와 이윤의 세계에 대해, 생산성 중심의 세계에 대해, 파괴를 생산으로 보는 상품생산중심의 사회를 비판하면서 성장중심주의도 변혁하고자 한다. 이 변혁의 한 축은 상품생산노동만 노동으로 보지 않고 다양한 일들을 노동으로 보면서 대안적 사회를 꿈꾸는 것으로 채울 수 있을 것이다. 남성들을 가장으로 만드는 것도 가부장체제다. 남성과 여성의 역할을 구분하여 이득을 보려는 자본주의적 가부장체제에 대해 남성과 여성 모두 함께 싸울 수 있어야 세상이 변할 것이다.

## 전지구적 가부장체제: 가부장적 생산의 지구화/세계화, 지구적 회로

가부장체제로서 성적 생산/거래/계급/권력/노동 관계의 지구적 변환의 성격을 살피는 일이 필요하다. 성체제와 지구지역성은 어떻게 연결될 수 있으며 왜 연결되어야 하는가? 지구적 차원의 변환이 일어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성관계, 성노동, 성거래 또한 변환이 일어나고 있다. 이 변환의 과정에 대해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본인의 설명 체계에서는 성장치 중에서 특히 국가와 시장 그리고 미디어가 지구지역성과 연결되는 고리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성적 관계와 성적 노동이 국가와 시장같은 성장치와 연결되어 작동한다면 성적 관계들이 지구지역성과 연결될 지점들이 나온다고 할 수 있다. 미디어는 지구적 차원에서 시공간을 압축하고 있다. 국가의 경계를 넘어 전지구적으로 자본이 이동하고 이 이동은 성적 노동, 성적 거래, 성적 생산과 연결된다. 초국가적인 시장관계가 가부장적 성체제의 재배치와 변화를 가져온다. 여기에 지구지역적 축이 이러한 재배치와 변화를 설명하는 한 축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 지구지역성의 인식소로 지역, 남반구/북반구, 제국/신식민, 인종/민족/계급/종교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인식소들은 성적 관계의 변화를 설명해 줄 축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 남반구와 북반구의 성적 관계의 차이, 성적 노동의 차이를 살핀다는 것은 남반구가 지역이 되면서 그 내부의 지역들이 글로벌 포인트들로 연계하면서 지구지역적 행동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이러한 행동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 행동들을 넘어서 행동의 의제들을 더 확장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인간 생산의 지구적 회로(예. 구글베이비)

인간 생산은 인류가 존재한 이래로 양성생식적 양식과 모태생식적 생산양식을 지속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인간 생산의 양식은 젠더화, 식민화, 계급화의 양상을 띠고 있었고, 지금은 세계화, 자본화, 산업화의 형태를 덧붙이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결혼 산업의 초국화, 국제화, 여성교환의 체계가 달라지는데, 여성의 교환이 일어나는 양상이 아니라 정자난자, 배아, 수정, 착상의 유통과정이 지구적 회로로 변환하는 양상이 일어나는 현상. 부족, 종족, 민족, 자본이 개입하면서 초국적 과정이 진행된다. 자본주의적 생산력-생산관계의 모순을 포함하는 가부장체제적 생산력과 생산관계는 어떤 모순에 처했으며 처하게 되는가. 여기서 생산력이란 상품생산을 중심으로 하는 생산력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인간생산의 생산력의 일부인 출산은 소위 말하는 '저개발국' '개발도상국' '선진국'이라는 국가적 차이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 인종적 차이, 인종-문화적 차이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입양 문제는 인간 생산의 지역적 이동과 연결된다. 상품생산의 자본주의적 생산력 중심주의는 인간생산, 노동력 생산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현재 한국사회에서는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하는 형식으로 출산률을 국가가 높이고자 한다. 성장력이 떨어진다는 통계에 의해 국가중심의 생산성과 성장력을 기준에 둔다. 제1/2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안은 저출산을 고령화와 연동시킨다. 계획안은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를 예측한다. 생산가능인구 중 50-64세 인구비중이 향후 10년에 25%로 증가, 2050년에 41%가 된다고 예측한다. 2017년부터 연평균 42만명씩 감소한다고 한다. 이렇게 감소하게 되면 공적연금나 건강보험제도 자체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고, 의료와 교육같은 사회보장지출 확대에 재정수지 35조원 악화된다고 한다. 그리고 은퇴와 저출산으로 내수 위축과 잠재성장률이 2040-50년에는 1.4%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측한다.

이 기준 자체는 현 자본주의적 기준이다.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를 우려하는 목소리는 '생산'의

내용과 '생산가능인구'의 연령에 대한 단견이 들어있다. 현재의 자본주의적 가부장체제 하에서는 '생산'이란 상당히 한정된 개념이다. 산업사회의 '생산' 개념이 달라지고 있고, 산업의 변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생산가능인구'를 특정 연령대로 잡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생산의 내용과 주체를 한정시킨 것은 변화하는 사회의 면모를 따라가지 못한 판단으로 보인다. 현재는 근대적 산업사회에서 다른 사회로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그것이 서비스 산업이든 정보산업이든 간에 변화를 다양하게 바라보면서 '생산'의 가능성과 '생산'의 개념을 확장해야 하는데, 미래를 예측하는 방식이 근대적이고 제한되어 있다. '생산가능인구'의 정의를 달리할 것을 요청해 본다. 그리고 성장제일주의적 사고와 경쟁체제를 중심으로 사회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아야 할 것이다. 한국은 OECD 국가에서 노동시간이 가장 긴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다. 전체적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하면서 노동의 질을 높이고, 노동이 즐거운 노동이 될 수 있도록 사회의 방향을 잡는 것이 아니라 노동의 양을 중심으로, 그것도 특정 생산 노동을 중심으로 사회를 해석하는 철학이 문제가 있다. 생태사회로의 전환을 고려하고, 성차별이 없는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지금의 '생산' 중심주의와 '성장' 중심주의는 바뀌어야 할 것이다. 베이비붐 세대들이 이미 고령화로 접어든다고 기본계획안은 말한다. 그러나 베이비붐 세대는 고령이 아니라 한창 일하고 생산할 수 있는 연령이다. 이들에게 일/생산을 담당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 저출산을 문제 삼는 것이 우선이 아닐 수 있다. 저출산을 고령화와 연결하면서 고령사회의 문제들을 여성의 책임으로 돌리려는 것은 문제 있다. 저출산과 고령사회는 연결되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연결시킬 문제는 아니다.

제1/2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안은 저출산-고령화의 파급효과로 내수 위축, 소비위축, 노동력 질과 양 저하, 성장 잠재력 약화를 든다. 생산중심주의와 성장중심주의는 근대적 사고로 끊임없는 국가간 경쟁과 자본주의적 소비-생산의 연결고리를 전제로 한다. 인구가 감소하면 소비가 위축되며, 노동력의 질과 양이 저하된다고 한다. 그리고 성장 잠재력이 약화된다고 본다. 한 인간의 가치를 노동력과 연결시킬 때, 양의 문제가 아닌 질의 문제까지 저하된다고 본다.

## 가사 생산의 지구적 회로

가사 생산의 양식은 혈연중심 공동체로서 가족 내 자가/타가 생산, 상품화되는 가사 생산(상품, 산업범주에 포함), 가정, 사회의 구분선이 흐려지는 상황. 가사노동은 현재 지구지역적 차원의 여성 이주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세계화의 하인들: 여성이주와 가사노동(Servants of Globalization: Women Migration and Domestic Work)>>(2001) 라셀 파레냐스(2001) 『세계화의 하인들: 여성, 이주, 가사노동』, 문현아역, 도서출판 여이연, 2009을 쓴 라셀 파레냐스(Rahcel Parremas)는 필리핀에서 교수였지만 미국으로 이주하면서 호텔청소를 하였던 어머니의 경험에서 출발하여 이주가사노동에 대한 책을 출판하였다. 한 국가지역 내에서는 고등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이 이주를 통해 다른 국가지역 공간에서는 저임금 노동에 종사하게 되는 상황이 자신의 연구토대가 되었다고 한다. 초국가적 이주를 통한 가사노동은 국경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 초국적 가족(transnational family)의 문제, 민족학ethnic studies의 문제, 인종의 문제, 친밀/돌봄 노동의 문제, 제국의 문제, 복지국가의 문제, 임금의 문제, 여성노동의 양극화, 인신매매법 등 다양한 문제들이 중첩되는 지점이다. 여성들 사이의 계급화 또한 이주가사노동의 쟁점이 된다.

이주가사노동은 한 국가 내의 젠더 불균형이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가부장체제의 문제를 보여준다. 파레냐스는 필리핀에서 타국가로 이주하여 재생산 노동에 종사하게 된 여성들의 이주의 원인으로 가정폭력, 노동시장분절, 가족 내 불평등한 노동 분업이라는 것을 파악한다(105). 이는 이주의 원인이 경제적인 것만이 아니라 젠더와 맞물려 있음을 제시한다. 이 점은 세계화 논의에 젠더와 섹슈얼리티가 도입되어야 하는 이유를 증명해 주는 셈이다. 다시 말해 세계화의 정치경제학에 젠더 요인이 작동하는 점을 설명해 내는 것이 지구지역페미니즘의 일일 수 있음을 말해준다. 가사노동의 분업은 지구지역적 차원의 인종적, 계급적, 국가적 불평등 구조가 작동하는 방식을 보여준다. 에블린 나카노 글렌은 이런 국제적 분업을 “보살핌의 국제 이전”이라 부른다(파레냐스 106). 글렌은 “재생산 노동의 인종적 분업”이 유지되면서 여성들 사이의 위계화가 형성되는 지점을 보았다(파레냐스 106) Glenn, Evely Nakano. 1992. "From Servitude to Service Work: The Historical Continuities of Women's Paid and Unpaid Reproductive Labor." Signs 18(1): 1-44. 미국의 특권계급 백인 여성들이 가사, 돌봄과 같은 재생산 노동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것은 역사적으로 유색인 여성들의 저임금 서비스 구매를 통해서였다. 20세기 후반 북반구 혹은 산업국가의 여성들이 유급노동에 고용된 수는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유급직에 고용된 여성은 1992년 46.5%를 차지하면서 1960년대의 32.1%에 비해 증가하였음을 보여준다(파레냐스 118). 이는 유급직 종사자 여성들이 개인적으로 고용하는 가사노동자들의 수가 증가함을 의미한다. 임금노동여성이 늘어남에 따라 보살핌 노동이 국가경계를 넘어 이동하고, 국제적 분업의 형태로 드러난다. 이 형태는 여성들 사이의 차이를 보여준다. 여성들은 보내는 국가 내에서 빈자리를 메꾸는 여성들, 받아들이는 나라의 중간계급 이상의 여성들, 그리고 직접 이주하는 여성들로 나누어진다. 가사노동은 현재 제국주의, 자본주의, 인종주의가 연결되어 작동하는 장이다. 페미니즘이 반자본주의적이고 반인종주의적이고 반젠더편향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면 가사노동의 현장은 이러한 운동이 실현되어야 할 장이다. 그리고 지구지역적 페미니즘이 이를 위한 이론과 운동의 기반을 마련할 지점이기도 하다.

중국 북경에는 중국 국내에서 북경으로 이주한 가정공(家政工: 가사노동자)이 170만 명에 달한다. 가사노동자들은 멕시코에서와 마찬가지로 중국에서도 빈곤한 농촌 지역에서 도시로 이주한 사람들이다. 그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노동자로서의 권리가 보장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아시아 가정공 네트워크’가 결성된 상태이고, 중국의 서한이나 북경에 ‘가정공 공회(노조)’가 활동하고 있다. 이 ‘가정공’들은 노동시간이 일정치 않고 복지 보장이 되어 있지 않아 사회적 지위가 낮은 상태에 있다. 가사노동의 현장은 현재 전지구적으로 여성노동이 이동하는 현장이다. 파키스탄의 여성들이 레바논의 가정에 입주식 가사노동자로 들어가고 필리핀을 떠난 여성들이 미국, 일본 등으로 가사노동을 하러 간다.

## 쾌락 생산의 지구적 회로

지역내 섹스의 생산 자체가 국가경계를 넘어 글로벌 차원의 섹스로 변환과정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이 있다. 성산업의 초국화 과정에서 성노동 자체는 억압과 범죄화가 일어난다. 성거래 자체가 지구지역적으로 이동하고 확장되는 상황이다.

## 상품 생산의 지구적 회로

초국적 자본과 초국적 노동은 근대체제이후 임금가부장제의 확산과 지역적 차이의 생산, 시초축적의 과정에서 임노동에서 여성의 배제와 제국주의와 식민주의, 군사주의를 배경으로 하면서 지구적 자본의 확대재생산이 일어났다. 금융상품이나 인지적 영역의 상품들과 성적인 상품 들이 지구적 회로를 따라 이동한다.

### 3. 페미니즘경제와 적녹보라적 생산과 노동을 향해

자본주의적 생산과 노동을 다시보고, 가부장체제적 생산과 노동을 재범주화하는 일은 현재의 자본주의적 가부장체제적 생산과 노동에 대한 비판과 함께 새로운 삶, 생산, 노동, 성의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한 작업이었다. 이 작업은 크게 페미니즘 경제의 구축과 적녹보라적 생산과 노동의 설정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는 전지구적 자본주의-가부장체제에 대한 현실분석을 토대로 한다. 성적 생산관계는 크게 보면 '생산' 과 '재생산' 을 나누고 돌아가는 것이고, 그 자체가 성별 분업이면서 성적 생산관계이다. 남자는 사회노동을 여자는 가사노동을, 남자는 공적 여자는 사적 영역이라는 이분화가 크게 작동하면서 생산의 영역을 남성의 영역으로 재생산의 영역을 여성의 영역으로 놓은 구도 자체가 자본주의적이며 가부장체제적이다.

성과 노동과 생산을 함께 고려하면 기존 생산과 노동의 범주가 드러난다. 그리고 자본주의와 가부장제의 범주 설정이 문제가 있음이 드러난다. 다시 말해 통상 우리가 말하는 생산은 상품생산이고, 노동은 상품생산노동이 된다.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 자본주의이고, 가부장제이고, 그것의 생산과 노동이 생산이며 노동이라 생각하게 만드는 기제가 성적 생산과 노동을 배제하는 결과로 가능해진다. 생산을 인간이 생산수단을 통해 생산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먹고사는 일 전체가 직업과만 연결되며 화폐와만 연결시키는 사회를 형성하고 그것에 매달려 끌려가는 사람들을 양산하는 구조는 자본주의-가부장체제의 구조를 통해 재생산된다. 어느덧 (비 혹은 반)자본주의적 가부장체제를 생각하지 못할 정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다른 대안적 삶을 생각할 여지를 없애버린 것도 '상품생산' 이 생산의 전부인 것으로 간주하는 경제학과 이론이 낳은 현실이기도 하다. 브로델의 물질문명-시장경제-자본주의라는 삼층구조는 역으로 생각하면 물질문명이 우리의 삶의 기저에 있다는 것이고, 물질문명을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와 자본주의 자체로부터 방향을 달리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듯이 성이 생산과 노동에 도입되면 두 가지 효과가 나타난다. 하나는 기존 상품생산의 영역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다른 하나는 자본주의-가부장체제로부터 혹은 그것을 넘어갈 다른 방향 혹은 출구 혹은 틈새가 보인다는 점이다.

성적 생산과 성적 노동이 없이는 자본주의적 생산과 노동이 불가하다는 것을 안다면, 자본주의적 생산과 노동이 아닌 방향을 설정할 수가 있게 된다. 여기에 생태라는 요소가 들어가게 되면 자본주의적 생산, 잉여가치, 축적의 가능성을 원초적으로 달리할 수 있는 여지가 더 커진다. 다시 말해 성적 생산관계에 인간이 의지하는 정도와 자연 자원이라 불리는 살아있는 자연, 동식물의 생산에 인간이 의지하고 있는 정도를 강조하면 자본주의적 생산과 노동으로부터 다른 방향을 틀 수 있게 되는데, 이는 사람들의 인식의 전환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노동이라 하는 것을 인간이 손이나 도구를 사용하여 무엇인가를 만드는 것, 생산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이는 인간

삶의 일부분만을 노동으로 보고 있는 셈이다. 생산과 노동이 인간 삶에 필요한 것이라면 인간이 하는 행위로 범주를 넓혀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인간 삶의 다른 가능성을 볼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슌 배포가 필요하다. 인간으로서의 배짱이 필요한 영역인데, 구조가 우리를 옥죄이고, 그 구조에 매여 전전공공하는 그런 존재로 전락하게 된 것을 넘어설 배짱이 필요한 것이다. 이는 우리의 사고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인데 우리는 구조에 핑계를 댈다. 신자유주의의 파고 속에서 엎드리는 많은 사람들이, 생계 앞에서 구조의 핑계를 대며 자신이 그 욕망의 사다리에서 내려오지 않겠다고 한다. 남들과는 달리 나는 살고, 나의 가족은 살고, 나의 국가는 살고자 하는 욕망, 그 욕망이 만드는 사다리를 끊고 나아갈 방향을 찾는 것을 페미니즘 경제의 재발견과 적녹보라적 생산과 노동을 통해 진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적녹보라적 생산이란 기존 노동자의 생산과 성적인 생산과 자연이라 불리는 존재들의 생산을 함께 고려하면서 그것을 바탕으로 노동을 재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노동 자체도 적녹보라적 노동이 될 것이다. 적녹보라적 생산과 노동은 적녹보라적 생산과 페미니즘경제는 글로벌페미니즘학교 1기 수료생들이 함께 논의한 과제이기도 하다.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생산이고 노동이 된다. 현재의 노동, 노동운동이 방향을 틀어야 할 지점이 여기에 있다. 무엇이든 생산하는 것을 노동이 아니라 가치를 생각하는 노동이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운동과 노동조합운동이 조합주의로 빠지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자본주의적 생산, 가부장적 생산을 바로 보는 것이 노동운동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 생산력, 생산중심성을 비판하지 않는 노동운동은 결국 노동자계급사이의 경쟁과 분열을 조장하는 것이 된다. 자본은 그것을 노렸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여성과 남성 사이의 분리와 분열을 조장하는 것 또한 자본의 이해관계의 결과다. 여기에 하나 덧붙여야 할 것은 남성들, 남성중심적 가부장체제적 남성과 여성들은 이 자본의 이해관계를 묵인하고 도와주고 받쳐주는 결과를 낳는다는 점이다. 이 논의를 하지 않는 남성이론가나 학자나 운동가들도 마찬가지다. 여성들은 일차적으로는 사회적 불평등 혹은 성계급적 관계에서 밀려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비판을 할 자리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주되게는 남성들의 책임으로 볼 수 있다.

이 때 가치란 잉여가치를 생산하는 노동시간의 가치나 노동력의 가치나 화폐가치를 넘어서는 가치를 의미한다. 적녹보라적 패러다임에 입각한 가치의 재설정이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지속가능한 세계를 위한 생산, 노동, 가치, 성의 급진적 재조직화가 일어나야 한다. 자본주의-가부장체제적 생산, 생산성, 남성중심적 생산성, 생산력, 제1세계 중심의 생산성을 넘어 남반구-성-자연의 노동과 노동력을 착취/수탈하지 않는 그런 생산은 일차적으로 적녹보라적 생산이란 이름으로 명명할 수 있을 것이다.

적녹보라적 생산을 고려하기 위한 전단계 작업으로 자본주의적 생산과 노동은 가부장적 생산과 노동임을 생각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가부장적 생산과 노동이란 여성의 생산과 노동을 생산으로 노동으로 놓지 않으면서 여성억압, 여성배제, 여성소외를 불러온 생산과 노동을 의미한다. 이는 바로 자본주의적 생산과 노동이기도 하며 마르크스주의적 생산과 노동관이기도 하다. 마르크스주의가 자본주의적 생산과 노동을 비판하려면 자본주의적 생산과 노동이 가부장적 생산과 노동임을 확실히 하고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대안적 행동이 가능해진다. 그렇지 않으면 내재적 접근을 통해 순환론적이고, 환원론적인 대안이 나올 수밖에 없다.